

2004년 하반기 경제전망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동향분석실
주력기간산업실

2004. 6

제 1 편 거시경제 전망

<요 약>	7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9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19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37
II.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41
1. 현재의 경기상황	41
2. 부문별 경제전망	45
(1) 개 관	45
(2) 성 장	46
(3) 소 비	49
(4) 투 자	53
(5) 수출입	56
(6) 물 가	60
III. 경제정책 방향	63

제 2 편 산업별 전망

I. 개 관	77
1. 금년 상반기 동향	77
2. 금년 하반기 전망	79
II. 산업별 전망	96
1. 자동차산업	96
2. 조선산업	107
3. 일반기계산업	125
4. 철강산업	144
5. 석유화학산업	160
6. 섬유산업	175
7. 가전산업	192
8. 컴퓨터산업	203
9. 통신기기산업	218
10. 반도체산업	232

제1편

거시경제 전망

● 차례 ●

<요 약>	7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9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19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37
II.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41
1. 현재의 경기상황	41
2. 부문별 경제전망	45
(1) 개 관	45
(2) 성 장	46
(3) 소 비	49
(4) 투 자	53
(5) 수출입	56
(6) 물 가	60
III. 경제정책 방향	63

● 표차례 ●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1
〈표 I-2〉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	27
〈표 I-3〉 주요 국제 금융지표	28
〈표 I-4〉 향후 엔화가치 변화 요인	29
〈표 I-5〉 주요 기관들의 국제 유가 전망	33
〈표 I-6〉 유가상승에 따른 업종별 중간투입비용 상승(%)	36
〈표 I-7〉 금리 추이(기말기준)	37
〈표 I-8〉 금리상승 요인	38
〈표 I-9〉 원/달러, 엔/달러, 유로/달러 환율 추이(기말기준)	39
〈표 I-10〉 원/달러 환율	40
〈표 II-1〉 실물경제 주요지표	42
〈표 II-2〉 산업 생산 추이	43
〈표 II-3〉 수출입 추이	45
〈표 II-4〉 2004년 국내경제 전망	46
〈표 II-5〉 하반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49
〈표 II-6〉 내수용소비재 출하 추이	50
〈표 II-7〉 도소매업 판매지수	51
〈표 II-8〉 소비자 전망 조사 추이	52
〈표 II-9〉 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	53
〈표 II-10〉 2004년 하반기 투자 전망의 고려 요인	54
〈표 II-11〉 설비투자 관련지표 추이	54
〈표 II-12〉 건설투자 관련지표 추이	55
〈표 II-13〉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57
〈표 II-14〉 소비자물가 동향	61
〈표 II-15〉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요인	62

● 그림차례 ●

〈그림 I-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20
〈그림 I-2〉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20
〈그림 I-3〉 1999년 이후 국제 원유가 추이	31
〈그림 I-4〉 세계 원유 수급 추이	32
〈그림 I-5〉 CRB 국제상품가격지수와 품목별 추이	34
〈그림 II-1〉 최근 수출입 추이	59

〈요 약〉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 세계경제 및 교역 : 견조한 성장세 유지

- 2003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04년 들어서 중국의 긴축 기조 시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 정세 불안과 그에 따른 고유가 지속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선진국 경제는 2004년 중에 2003년(OECD 기준 2.2%)보다 높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경제도 최소 7%대 이상(정부 9.2% 예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며 200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추세선에 근접하는 4%대를 기록하면서 2003년(3.9%)에 비해 높아질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4~5%의 증가율(2002년 3%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교역은 2004년에 미국

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과 중국 등 개도국들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증가율이 6~7%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 : 하반기, 점진적인 금리상승 가능성

- 글로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각국이 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금리 인하 정책을 견지해 온 미국 연준은 최근, 고용 증가와 제조업 수주액 호조 등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경기호조와 그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고유가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연되면서 하락할 전망이다.

□ 국제유가 및 국제상품가격 :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고유가 기조는 실제 원유 수급 사정을 반영하기보다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향후 수급 여건에 대한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만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해 보임.
-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초반까지 나타난 국제상품가

격의 급등세는 세계경기 회복세의 확산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비철금속과 곡물 등 전 품목에 걸쳐 나타남.

- 세계경제 성장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이용해 경기 연착륙을 시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가급등과 그 영향: 평균 30달러 가정시 GDP성장에 -0.17%포인트

-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 평균유가는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30달러/배럴 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금년 평균유가가 30달러선이 될 경우 이는 작년 평균에 비해 약 12% 상승한 가격임.
- 2000년 산업연관표로 추정할 때 유가 10% 상승시, 제조업 중간투입비용 0.98%, 전산업 중간투입비용 0.76%의 직접적 인상요인이 발생함. 또 수출은 0.18% 감소, 수입 0.64% 증가 효과, GDP성장률은 0.15% 포인트 하락 효과가 나타남(수출입 및 성장률 효과는 한은 추정치).
- 따라서 금년 평균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30달러로 전망시, (전년 대비) 전산업 중간투입비용 0.85%, 제조업 중간투입비용 1.1% 상승, 수출 -0.21% 감소, 수입 0.74% 증

가, GDP성장률 -0.17% 포인트 감소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됨.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 금리 : 완만한 오름세 전망

-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소비침체로 내수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유가 등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 최근 들어 미국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국내의 수출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 경기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되어 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금리도 완만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임.

□ 원화 환율 : 점진적인 하락 가능성

- 2004년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원/달러환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동안 환율 상승을 주도해 오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 물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역시 상향 추세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임.
- 한편,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지속되

고, 달러화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도 점쳐지고 있어 원화 환율은 현 수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1. 현재의 경기상황

□ 경기개관 : 수출과 내수간의 경기양극화 뚜렷

- 2003년에 3.1%의 낮은 성장에 그쳤던 국내경제는 2004년 1분기에는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5.3%라는 잠재성장률 근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러한 수출호조에 도 불구하고, 수출주도품목의 국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 수출 호조가 전체경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임.
- 다만 최근 들어 설비투자 등 일부 선행지표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산업생산 : 수출업종 중심으로 회복세

- 산업생산은 수출업종의 호조에 힘입어 2003년 말경부터 대

체로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음.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3년 3분기 이래 상승 추세로 2004년 1분기에는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 수출입 : 수출 급신장으로 무역흑자 사상 최고 수준
- 내수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급신장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수입도 비교적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내수용 수입은 부진하여 수출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낮음.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사상 최고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 부문별 경제전망

- 성장 : 2004년 경제성장률, 5.5%로 회복 전망
- 2004년 실질GDP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의 호조세로 인하여 상반기에 5.4%, 하반기에 5.6% 성장함으로써 연간 5.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의 3.1% 성장률에 비교하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내수와 수출부문간의 성장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체감 경기는 전망치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하반기에는 중국의 긴축기조,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의 급등세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나, 설비투자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도 4분기경에는 회복됨으로써 성장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지출 :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4.8%로 회복
 - 민간소비지출은 2004년 상반기에 0.3% 성장하여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외 경기 회복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4.8% 성장하여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연간 전체로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 기대
 - 소비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침체로 고정투자는 2004년 상반기에 3.2% 정도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좀더 회복되어 5.1% 성장하여, 연간 전체로는 4.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2004년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2004년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9.8% 성장하여 연간전체로 6.8%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2003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반락효과와 부동산투기억제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004년 건설투자는 상하반기 공히 3%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여 연간전체로 3.1%의 성장이 예상됨.
- 수출입 : 2004년 무역흑자,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29억 달러 전망
 - 2004년 무역수지(수출입차)는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와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IT제품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에는 폭발적인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1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8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전망임.
 - 수출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해외 수요 둔화와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둔화될 것인데 반해,
 -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국내경기의 회복, 작년 하반기 낮은 수입증가율에 따른 기술적 반등요인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

- 소비자물가 상승률 : 물가상승 압력 불구 3.5% 내외 수준
 - 2004년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3%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내수의 회복이 기대되는 데다 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경기 회복세가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원자재, 유가 등 공급측면에서의 상승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물가상승률은 3.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Ⅲ. 경제정책 방향

- 상반기 성장은 주로 해외부문에 의존
 - 2004년 상반기 중 한국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호조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5.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상반기 중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근처의 수준

에 이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왜곡된 형태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긴축정책, 국제유가의 급등, 국제금리의 상승 움직임 등 해외부문의 악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음.

- 우리 경제가 현재 이렇게 해외부문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구조가 점점 더 수출호조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회복 움직임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일면으로는 오히려 경제정책을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해 온 측면에도 기인한다고 판단됨.

□ 하반기에는 내수부문과 해외부문의 고른 성장 기대

- 2004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극단적인 왜곡된 성장구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비교적 해외부문과 내수부문이 고른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의 성장추세를 보이며 5.6% 정도의 성장세를 달성하고 연간 전체로도 5.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가 정부의 투자촉진책의 지속, 수출호조에 따른 영향, 오랫동안 부진하던 내수의 회복 등에 힘입

어 먼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소비도 지금까지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됨.

- 반면에 지금까지 성장세를 주도했던 해외부문은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도 내수촉진 등 미시적인 조정정책 지속 필요

- 따라서, 2004년 하반기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역시 “안정적인 성장 유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많은 분야에서 미시적인 조정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첫째, 세계경제 여건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의 조성보다는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둘째,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제도의 획기적 개선, 배드뱅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등의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건전한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의 확대를 위해 기업투자의 활성화, 공공분야의 고용확대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00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3	2004			
	연간	1/4(실적)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성장률	3.1	5.3	5.4	5.6	5.5
민간소비	-1.4	-1.4	0.3	4.8	2.6
총고정자본형성	3.6	1.8	3.2	5.1	4.2
(설비투자)	-1.5	-0.3	3.9	9.8	6.8
(건설투자)	7.6	4.1	3.1	3.1	3.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5.7	26.9	23.9	12.9	18.0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9.7	11.8	14.1	13.9	14.0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억 달러)	1,938	593	1,223	1,225	2,448
(증가율)	(19.3)	(37.8)	(37.2)	(17.0)	(26.3)
수입(억 달러)	1,788	526	1,078	1,140	2,218
(증가율)	(17.6)	(19.0)	(25.5)	(22.7)	(24.1)
수출입차(억 달러)	150	67	144	85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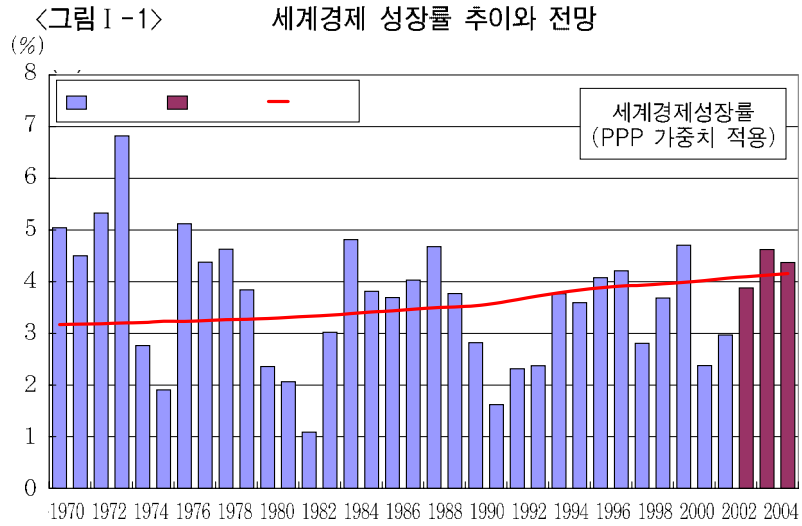
- 넷째,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대외 악재인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의 상승, 국제금리 상승 움직임 등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그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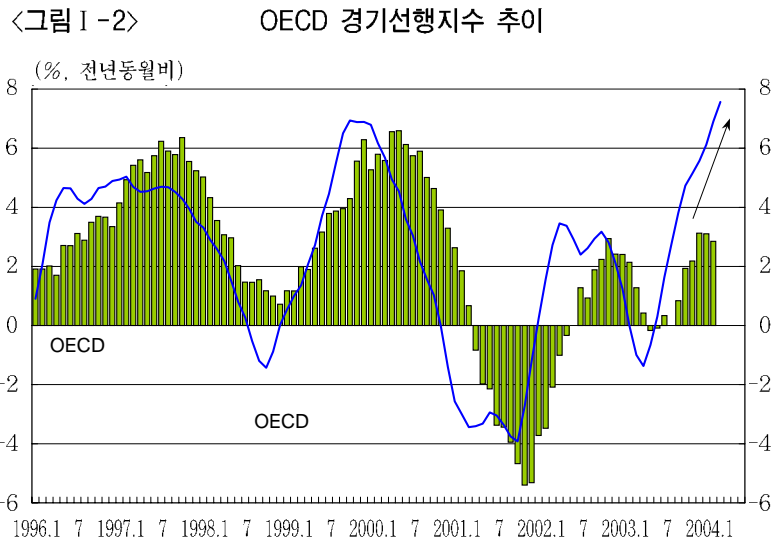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 세계경제 성장

- 200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세계경제는 2004년 들어 고유가 지속,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3년 3월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세계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남.
 - OECD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직후인 2003년 2분기에 성장률이 1.7%(전년동기비)로 떨어졌을 뿐 이후에는 3분기 2.2% → 4분기 2.8%로서 성장률이 점진적인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음.
 - 2004년 들어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와 더불어 중동 정세의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 중국의 긴축 기조 시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이 대두되고 있으



자료 : IMF.



자료 : OECD.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03				2004				2005			
	IMF	WB	EIU	OECD	IMF	WB	EIU	OECD	IMF	WB	EIU	OECD
전세계 ¹⁾	3.9	3.7	3.8	-	4.6	4.6	4.7	-	4.4	4.1	4.1	-
OECD	2.1	2.0	2.1	2.2	3.5	3.1	3.2	3.4	3.1	2.6	.25	3.3
(미 국)	3.1				4.6	4.6	4.5	4.7	3.9	3.2	3.2	3.7
(일 본)	2.5				3.4	3.1	3.1	3.0	1.9	1.4	1.3	2.8
(유 로)	0.4				1.7	1.7	1.6	1.6	2.3	2.3	2.0	2.4
아시아 ²⁾	7.8	7.7	5.6	-	7.4	7.4	6.4	-	7.0	6.7	6.0	-
(중 국)	9.1				8.5	-	9.4	8.3	8.0	-	8.1	7.8
체제전환국 ³⁾	4.5	5.5	-	-	4.5	4.9	-	-	4.4	4.8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3.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4. 3.EIU, *Viewswire*, 2004. 4.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4. 5.

주 : 1) 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기준.

2) EIU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대상 지역.

3) IMF는 중동구, WB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가 대상 지역.

나, 세계경제는 대체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세계경제가 일부 위험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올 하반기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연간 전체로 지난해(3.9%)보다 높은 4%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정책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율적 선순환 구조(투자 증가→고용 회복→소득·소비 증가)를 회복하고 있는 데다, 이는 개도국 등 세계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선진국 경제는 2004년 중 지난해(OECD 기준 2.2%)보다 높은 3%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개도국 가운데서는 중국경제가 최소한 7%대 이상(정부 9.2% 추정)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대비 기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추세 판단에 유용한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지난 3월에 1987년 8월 이후 최고치(7.6%)를 기록함으로써 성장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반영함.

□ 미국경제

- 미국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고용 여건의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경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내구재와 서비스 등과 같은 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설비투자도 2003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7.6%와 14.6% 증가하여 두 자리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 IT 업종에 국한되었던 회복세가 산업장비, 운송장비

등 기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

- 그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고용 여건도 취업자 수가 2004년 4월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실업률이 5.6%(4월)까지 하락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가 2000년 8월~2004년 1월의 4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2004년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1%)를 유지하고 있는 미 연준(FRB)이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연내 소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3.5%)을 초과하는 4%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4년 4월 현재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아직 3%대를 밑돌고 있는 데다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5%대 후반)에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 압력이 우려할 만큼 높은 상황은 아님.
 - 그러나 미국경제 성장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

차원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임.

- 다만, 연내 금리 인상이 예상되더라도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있는 데다 금리 인상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임.
-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체감 지표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의 경기 호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ISM 제조업 지수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 현재까지 7개월 연속 60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구성지표 가운데 그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현재에 대한 평가지수'가 이라크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감.
- 미국의 경기 향방에 주요 관건이 되는 고용 여건의 개선도 소득과 소비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경제

-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수출은 지난 2003년 1분기에 0%대의 증가율(전기비 기

준)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 3분기부터 증가율이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4분기 증가율이 6.9%까지 높아지는 호조를 보임.

- 이에 따라 2003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0%대에 머물렀던 성장률은 4분기에 1989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인 1.7%까지 높아졌고, 2004년 1분기에도 1.4%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함.
- 민간소비는 2002년 4분기와 2003년 1분기에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1%대까지 높아지면서 내수 여건의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뒷받침하고 있음.
- 2003년 중 투자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경제는 2004년에는 2003년(2.7%)보다 높은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경제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투자와 수출 주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일본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단관지수는 지난 2004년 1분기 기준으로 1997년 2분기 이후 최고치인 12를 기록

- 실업률도 2004년 4월에 4.7%(2001년 3월 이후 최저)까지 하락한 것은 고용 여건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므로 앞으로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유로경제

-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경제 대외 여건의 개선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04년 들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
 -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 제로 성장에 머무르며 미국이나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유로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영향으로 점진적인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소비와 투자도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이면서 외수 여건의 개선에 따라 내수 경기의 회복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
- 2004년에는 지난 2003년의 0%대보다도 높은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이나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미국이나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정책적 뒷받침이 미약했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 인플레이 억제(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4월 현재 2%)를 위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점도 빠른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교역

-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4~5%의 증가율(2002년 3%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교역은 2004년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과 중국 등 개도국들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증가율이 6~7%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

- 글로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각국이 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금리 인하 정책을 견지해 온 미국 연준은 최근, 고용 증가와 제조업 수주액 호조 등 예상을 상회하는 각종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금리 인

<표 1-2>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

단위 : %

	2003			2004			2005		
	IMF	WB	EIU	IMF	WB	EIU	IMF	WB	EIU
전세계 교역	4.5	4.6	5.1	6.8	8.7	7.9	6.6	-	6.9
선진국 수입	3.5	2.2	2.2	5.7	7.4	5.9	5.4	-	5.4
개도국 수출	8.7	13.5	12.4	8.1	13.0	12.4	8.7	-	10.1

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 최근의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은 지난 1~4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연율로 4.4%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미 연준은 오는 6월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재 1%인 기준 금리(연방기금금리)를 1.25%로 올려 통화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중국도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약 6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인 3.2%로 치솟았고, 지난 3월에도 3%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이어서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금융 긴축조치로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난 4월, 10년 만기 미국 채무성 채권의 경우 전월 대

<표 I-3> 주요 국제 금융지표

		2002년 말	2003년 말	2004. 2	2004. 3	2004. 4	2004. 5
미국	DJIA	8,341	10,453	10,583	10,357	10,225	10,188
	Nasdaq	1,335	2,003	2,029	1,994	1,920	1,986
	금리(10년)	3.81	4.25	3.98	3.84	4.54	4.65
일본	NIKKEI	8,579	10,676	11,041	11,715	11,761	11,236
	금리(10년)	0.90	1.36	1.22	1.43	1.53	1.52
엔/달러(기말)		118.74	107.31	108.99	104.28	110.43	109.56
달러/유로(기말)		1.0496	1.2578	1.2488	1.2312	1.1980	1.2217

자료 : 한국은행, 일본중앙은행.

비 0.70% 포인트 급등하였고 5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경기회복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 美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2004년 5월 말 현재 2003년 말 대비 2.54% 하락하였고, 나스닥 주가지수도 동 기간 중 0.85% 하락하는 등 증시는 금리 인상의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음.
- 미 행정부의 알카에다 테러계획설 확인발표에 따른 불안감 증대로 인해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4월 중 내구재 주문액과 신규주택판매 등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연준의 6월 금리인상 전망이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함.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는 상승할 전망이다.
- 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고유가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심

〈표 I-4〉 향후 엔화가치 변화 요인

엔화 약세 요인	엔화 강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경기 호조 지속 → 금리인상의 압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경기회복 ·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 (지속적인 테러 가능성) · 미국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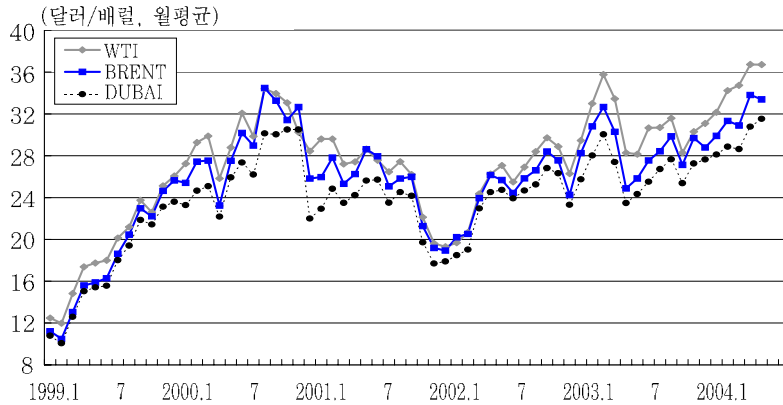
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연되면서 하락할 전망이다.

- 최근 들어서는 대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으로 미 본토에 대한 테러에 시달리고 있으며,
 - 2003년 이후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아시아 통화 강세가 필요하여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 2003년 말 115.79엔이던 엔/달러 평균 환율은 2004년 5월 말 현재 109.56엔으로 약 5.38% 절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보다는 일본의 거시경제 회복(1분기 GDP 5.6% 성장, 2003/2004 회계연도 경상흑자 29% 증가)이 더 크게 작용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고유가 기조는 실제 원유 수급 사정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향후 수급 여건에 대한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종결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향후 수급 여건에 대한 불안 심리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함.
 - 미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브렌트유(Brent), 두바

<그림 I -3> 1999년 이후 국제 원유가 추이



자료 : Reuter.

이유(Dubai) 등 모든 유종의 가격은 지난 1983년 원유 선물시장 개장 이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일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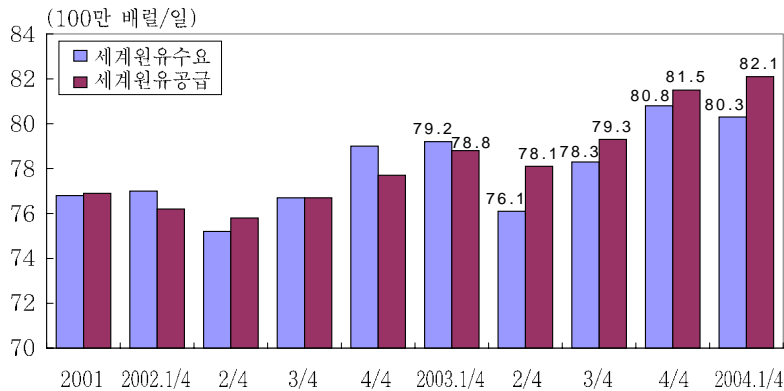
- 전세계 원유생산의 40% 가량을 담당하는 OPEC 국가들은 유가 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9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총 190만 배럴의 감산을 강행하고 유가 상승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2000년 3월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유가 밴드제'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음.

- '유가 밴드제'란 OPEC이 유가 안정을 위해 2000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서 OPEC 바스켓 유가 기준으로 배럴당 22~28달러의 범위를 20일 연속 이탈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증산 혹은 감산을 하기로 하는 것임.

- OPEC 바스켓 유가는 2003년 11월 이후 목표 상한선인 28달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유가 밴드제에 따른다면 OPEC이 증산을 단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감산을 결의함으로써 유가 밴드제의 취지에 역행함.
- 세계 원유 수급 상황은 2004년 1분기 현재 공급이 우위에 있어 원유 수급 사정으로 본 현재의 가격 수준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계 원유 수급은 2002년 4분기와 2003년 1분기에 수요가 공급을 일시 상회했으나, 2003년 2분기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고 있어 OPEC의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량은 늘고 있는 추세임.

<그림 I-4> 세계 원유 수급 추이



자료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다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성수기인 드라이빙 시즌(5월 말~9월 초)을 앞두고 지난 5년 동안의 가장 낮은 수준인 2억 배럴에 그치고 있어 하절기 휘발유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음.
-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만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히 보임.

<표 I-5> 주요 기관들의 국제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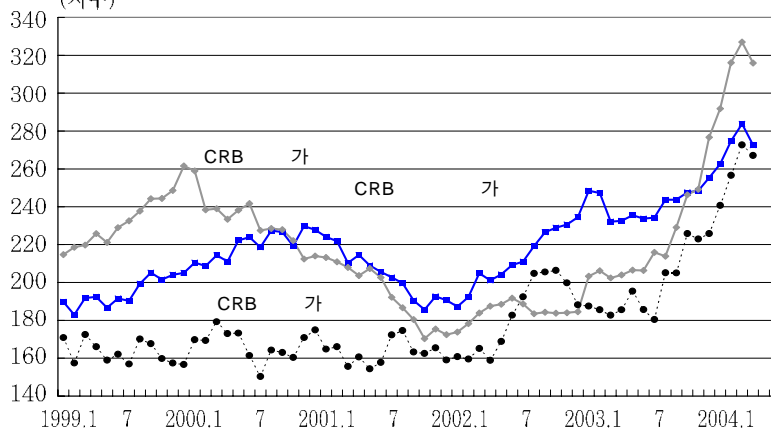
기관 (전망시기)	기준유종	2003	2004					200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EIU(5월)	Brent	28.83	32.03	32.15	28.14	26.78	29.78	22.76
EIA(5월)	WTI	31.12	35.25	37.4	36.83	36.08	36.39	34.52
	수입원유	27.74	31.44	33.99	33.58	32.83	32.97	31.26
CGES(4월)	Brent(I)	28.83	32.03	31.3	29.3	27.6	30.00	-
	Brent(II)			33.2	32.5	31.8	32.40	
CERA(4월)	Brent(I)	28.83	32.03	32.83	30.5	32.6	31.91	-
	Brent(II)			37.35	32	34	34.21	
	WTI(I)	31.12	35.25	35.5	32	33	33.29	-
	WTI(II)			40	38	37	37.58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U; EIA.

- 주 : 1) I와 II는 각각 기준 시나리오와 고유가 시나리오를 의미함.
- 2)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CGES(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 현재의 유가 강세가 실제 수급 상황을 반영하기 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따른 투기적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유가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임.
-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초반까지 나타난 국제상품가격의 급등세는 세계경기 회복세의 확산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비철금속과 곡물 등 전 품목에 걸쳐서 나타남.
- 세계경제 성장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이용해 경기 연착륙을 시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5> CRB 국제상품가격지수와 품목별 추이
(지수)



특별분석 : 유가 급등과 그 영향

- 작년 평균 배럴당 26.93달러(두바이 기준) 수준이었던 국제 유가는 금년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5월 중순 현재 36.1달러를 기록하고 있음(작년 평균 대비 34% 상승).
- 최근의 유가 급상승은 수요측 요인과 아울러 이라크 및 중동사태 불안을 계기로 한 투기적 움직임이 가세하여 나타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우디 등이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아 금년 평균유가는 지금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만 그 경우에도 증산 여력이 비교적 작다는 점과 세계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수요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수준보다 큰 폭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워, 유가는 작년보다는 상당 정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 평균유가는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30달러/배럴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망에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4년 연평균 유가는 시나리오별로 28~35달러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제예측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구DRI/WEFA)

는 금년 평균유가를 WTI유 기준으로 30달러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이는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30달러/배럴 선에 근사함.

- 금년 평균유가가 30달러선이 될 경우 이는 작년 평균에 비해 약 12% 상승한 가격임.

○ 2000년 산업연관표로 추정할 때 유가 10% 상승시, 제조업

<표 I - 6> 유가상승에 따른 업종별 중간투입비용 상승(%)

업종	연간 (11.5%)	상반기 (16.2%)	하반기 (6.7%)	업종	연간 (11.5%)	상반기 (16.2%)	하반기 (6.7%)
전 산업	0.845	1.227	0.508	전기전자	0.190	0.277	0.114
농수산	0.318	0.462	0.191	(반도체)	0.151	0.220	0.091
광산품	0.092	0.134	0.055	정밀기기	0.248	0.360	0.149
제조업	1.093	1.588	0.657	수송장비	0.329	0.479	0.198
음식료품	0.329	0.477	0.197	(자동차)	0.344	0.499	0.206
섬유가죽	0.625	0.908	0.376	기타제조	0.419	0.609	0.252
목재종이	0.424	0.616	0.255	전력가스수도	2.283	3.317	1.372
인쇄출판	0.347	0.504	0.209	건설	0.294	0.427	0.176
석유석탄제품	6.398	9.296	3.845	도소매	0.259	0.376	0.155
화학제품	2.396	3.482	1.440	음식숙박	0.437	0.634	0.262
(석유화학)	3.767	5.474	2.264	운수보관	1.550	2.252	0.931
비금속광물	0.934	1.357	0.561	통신방송	0.147	0.214	0.088
1차금속	0.348	0.506	0.209	금융보험	0.104	0.151	0.062
금속제품	0.375	0.545	0.226	부동산	0.162	0.235	0.097
일반기계	0.301	0.437	0.181	사회서비스	0.320	0.465	0.192

주 : 1) 2004년 상반기 평균유가 31달러, 하반기 29달러 가정.
2) 원유와 수입석유제품가격이 동일률로 상승 가정.

중간투입비용 0.98%, 전산업 중간투입비용 0.76%의 직접적 인상요인이 발생함. 또 수출은 0.18% 감소, 수입 0.64% 증가 효과, GDP성장률은 0.15% 포인트 하락 효과가 나타남(수출입 및 성장률 효과는 한은 추정치).

- 따라서 금년 평균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30달러로 전망시, (전년 대비) 전산업 중간투입비용 0.85%, 제조업 중간투입비용 1.1% 상승, 수출 -0.21% 감소, 수입 0.74% 증가, GDP성장률 -0.17% 포인트 감소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됨.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 금 리

- 2004년 상반기 중에는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국내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표 1-7〉 금리 추이(기말기준)

	2002	2003		2004				
		5월말	12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4
콜(1일)	4.52	4.01	3.97	3.78	3.74	3.76	3.77	3.67
CD(91일)	4.90	4.30	4.36	4.00	3.90	3.90	3.89	3.88
회사채(3년)	5.68	5.21	5.58	5.56	5.30	5.14	4.90	4.83
국고채(3년)	5.11	4.10	4.82	4.78	4.50	4.43	4.23	4.19

자료 : 한국은행.

〈표 I -8〉 금리상승 요인

금리 상승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금리의 상승 가능성 · 수출호조세로 국내경기회복 기대 · 회사채 발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만한 상승 가능성 - 최근 물가상승 압력은 수요 측면보다는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같은 비용 측면 때문이어서 총수요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은 없을 것임 -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총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전망
전망	2004년 연평균 5.7%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 2004년 6월 4일 현재 콜금리 3.67%, 3개월 만기 CD 수익률 3.88%,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4.83%,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4.19%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국고채 금리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2003년 말 4.82%이었던 것이 2004년 5월 말 4.23%,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경기 속도조절 정책, 지속적인 내수부진,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 등 금리하락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2004년 6월 4일 현재 4.19%까지 하락함.
-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소비침체로 내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유가 등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은 물가불안 조짐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가능한 한 빨리 통화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의 수출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 경기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금리는 완만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임.

□ 원화 환율

- 2003년 말 1,192원 수준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1,146원과 1,176원 사이를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기말)은 2004년 6월 4일 현재 1,163원을 기록함.
 - 원/달러 환율은 2004년 들어 1,170원대를 유지하다 3월 들어 외국인의 주식순매수, 1월 중 경상수지 흑자 기록, 엔/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1,140원대 중반으로 급락하였으나,
 - 이후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이라크 추가 파병

<표 I -9> 원/달러, 엔/달러, 유로/달러 환율 추이(기말기준)

	2002	2003.5	2004					2003.4 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원/달러	1,200.4	1,205.9	1,173.7	1,176.2	1,146.6	1,173.3	1,160.1	-3.79
원/100엔	1,012.9	1,020.9	1,107.8	1,072.5	1,090.0	1,062.1	1,056.1	3.44
엔/달러	118.74	119.27	105.76	108.99	104.28	110.43	109.56	-8.14
유로/달러	1.0496	1.1772	1.2473	1.2488	1.2312	1.1980	1.2217	4.22

자료 : 한국은행.

계획 발표에 따른 엔/달러 상승,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더니 4월 하순경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 시사 발언과 이에 따른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였음.

- 2004년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동안 환율상승을 주도해 오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 물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역시 상향 추세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임.
- 한편,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달러화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도 점쳐지고 있어 원화환율은 현 수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표 I -10〉 원/달러 환율

	환율 하락요인	환율 상승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수출업체들의 달러 대기물량 · 정부 개입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경기 속도조절 정책(중국쇼크) · 유가상승 · 미국 경기 회복 →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 엔화가치 급락 → 원화가치 급락 · 외국인 주식 순매도 추세 지속
전망	2004년 상반기 1,170원대/하반기 1,150원대 전후, 2004년 연평균 1,160원대 전후	

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1. 현재의 경기상황

- 경기개관 : 전반적 부진 속에 수출과 내수간의 경기양극화 뚜렷
- 2003년에 3.1%의 낮은 성장에 그쳤던 국내경제는 2004년 1분기에는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5.3%라는 잠재성장률 근처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침체는 1분기에도 지속되었음. 특히 GDP의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가계신용 위기 등에 따라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전체 내수경기의 부진을 주도하고 있음.
- 한편 이 같은 내수의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수출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제품 등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품목의 국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 수출 호조는 전체경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따라 내수의 부진과 수출 호조가 엇갈리는 극심한

경기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들어 설비투자 등 일부 선행지표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1분기에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2~3분기 이후 설비투자 회복을 시사하고 있고, 민간소비도 가계신용 위기가 점차 완화되

〈표Ⅱ-1〉

실물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02	2003			2004			
	연간	연간 ^p	3/4	4/4 ^p	1/4 ^p	2월 ^p	3월 ^p	4월 ^p
GDP성장률	7.0	3.1	2.4	3.9	5.3			
민간소비(국민계정)	7.9	-1.4	-1.9	-2.2	-1.4			
내수소비재출하	8.3	-5.9	-7.0	-6.1	-2.5	0.9	1.0	-1.1
설비투자(국민계정)	7.5	-1.5	-5.0	-2.4	-0.3			
설비투자추계	1.6	-4.6	-7.0	-4.6	-3.8	0.5	-7.7	-2.5
건설투자(국민계정)	5.3	7.6	7.9	7.4	4.1			
건설기성액	3.7	18.8	17.9	18.6	9.8	5.5	17.0	14.8
산업생산지수	8.0	5.1	3.2	7.8	11.0	16.9	11.6	11.3
출하지수	7.9	4.2	2.5	6.8	9.9	14.7	10.8	10.1
재고지수	-0.4	5.7	8.1	5.7	4.2	5.2	4.2	1.5
제조업 가동률	78.3	78.3	76.9	80.4	81.5	83.4	80.6	80.5
서비스업 활동지수	8.4	1.3	0.6	0.4	0.6	2.6	1.9	
수출증가율	8.0	19.3	15.9	25.6	38.0	43.7	38.0	37.0
수입증가율	7.8	17.5	10.5	18.1	18.9	25.5	20.0	27.4
무역수지(억 달러)	103	150	49	70	68	18	22	2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KOTIS.

주 : 제조업 가동률 이외는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는 추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향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생산 : 수출업종 중심으로 회복세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은 수출업종의 호조에 힘입어 2003년 말경부터 대체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

〈표II-2〉 산업 생산 추이
단위 : 2000=100, 전년동기비, %

	2003			200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산업생산지수	109.6	125.4	114.4	115.2	120.9	130.1	122.1
증감률	3.2	7.8	5.1	4.7	16.9	11.6	11.0
S.A.전기비	1.6	5.4	-	1.2	3.0	-2.1	3.8
제조업	109.5	125.3	114.0	113.5	119.7	129.6	121.0
증감률	3.1	8.3	5.2	5.2	17.5	11.9	11.4
섬유	-10.5	-8.2	-9.6	-15.2	-1.6	-8.5	-8.5
화학	5.1	6.6	3.8	2.4	10.0	6.7	6.3
철강	5.5	7.2	6.4	6.1	14.8	5.3	8.6
기계 및 장비	1.4	3.9	4.3	4.9	9.6	6.1	6.8
컴퓨터·사무기기	-11.5	-23.5	-12.6	-21.2	-2.5	-6.0	-9.8
반도체	30.5	39.4	27.8	53.8	65.2	56.4	58.2
통신·방송장비	16.6	9.1	10.2	21.2	40.8	30.3	30.6
의료·정밀기기	-7.1	0.4	1.9	-11.4	13.5	-3.2	-0.8
자동차	-12.2	12.1	6.5	-9.1	19.8	6.1	5.3
조선	8.3	13.3	11.4	6.0	9.1	2.7	5.8
S.A.전기비	1.6	5.4	-	1.1	3.1	-2.0	3.8
중화학공업	5.7	11.2	8.0	9.3	21.6	14.9	15.2
경공업	-5.1	-1.9	-4.1	-9.0	3.0	1.4	-1.7
제조업ICT	18.2	20.6	15.3	29.6	44.3	36.3	36.6

자료 : 통계청.

음.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3년 3분기 이래 상승하는 추세로 2004년 1분기에는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 다만 전체경기와 마찬가지로 산업생산에 있어서도 수출업종과 내수형 업종간의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짐. 최근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종의 경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내수비중이 높은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서비스업 역시 아직까지는 낮은 증가세에 머물고 있음.

□ 수출입 : 수출 급신장으로 무역흑자 사상 최고 수준

- 심각한 내수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수출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대중국 수출의 급신장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급증과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도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4년 4월 수출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30%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업종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주력업종 중 섬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표II-3>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2003					2004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4월	1~4월
수 출	1,938 (19.3)	461 (14.4)	479 (16.0)	569 (25.6)	197 (31.3)	190 (32.5)	192 (43.6)	212 (37.8)	215 (37.0)	809 (37.6)
수 입	1,788 (17.5)	417 (12.1)	430 (10.5)	499 (18.1)	176 (22.0)	162 (11.4)	174 (25.6)	191 (20.2)	188 (27.4)	715 (21.1)
무역수지	150	43	49	70	21	28	18	21	27	94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정보통신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수입도 비교적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내수용 수입은 부진하여 수출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낮음.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사상 최고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4년 4월까지의 무역수지만도 9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여 연간전체로는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부문별 경제전망

(1) 개관

○ 2004년 중 국내경제는 상반기 5.4%, 하반기 5.6%, 연간

〈표Ⅱ-4〉

200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3	2004			
	연 간	1/4(실적)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 성장률	3.1	5.3	5.4	5.6	5.5
민간소비	-1.4	-1.4	0.3	4.8	2.6
총고정자본형성	3.6	1.8	3.2	5.1	4.2
(설비투자)	-1.5	-0.3	3.9	9.8	6.8
(건설투자)	7.6	4.1	3.1	3.1	3.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5.7	26.9	23.9	12.9	18.0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9.7	11.8	14.1	13.9	14.0
통관기준 수출입					
수 출(억 달러)	1,938	593	1,223	1,225	2,448
(증가율)	(19.3)	(37.8)	(37.2)	(17.0)	(26.3)
수 입(억 달러)	1,788	526	1,078	1,140	2,218
(증가율)	(17.6)	(19.0)	(25.5)	(22.7)	(24.1)
수출입차(억 달러)	150	67	144	85	229

전체로는 5.5%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성장구조는 상반기 중의 수출위주 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투자, 소비 등 내수의 회복과 해외부문의 성장이 고루 기여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성장

□ 2004년 경제성장률, 5.5%로 회복

○ 2004년 실질GDP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의

호조세로 인하여 상반기에 5.4%, 하반기에 5.6% 성장함으로써 연간 5.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03년의 3.1% 성장률에 비교하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내수와 수출부문간의 성장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체감 경기는 전망치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1분기 중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1.4%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0.3% 감소하는 등 내수부진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26.9%나 증가하는 대외부문의 호조로 성장률이 2003년 4분기의 3.9%보다 훨씬 높은 5.3%로 상승하였음.
- 2003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수부진, 수출호조의 양상이 2004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2003년 2분기 이후 민간소비가 4분기째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등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2004년에 들어와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대외부문의 호조가 2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건축기조, 국

제유가의 급등세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나, 상반기에 부진하였던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민간소비도 미미하나마 회복세를 보여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하반기에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대외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다소 낮아질 것이나, 이를 내수부문의 회복이 상쇄함으로써 성장률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더욱이 긴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7%대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미국의 금리인상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유가의 급등세는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저하로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나, OPEC의 증산 가능성 및 미국·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등으로 고유가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부문별로는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4분기에나 가서야 회복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는 최근의 선행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치적 불안 요인의 해소와 수출호조의 지속,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압력 등으로 하반기에는 비교적 가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진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표II-5> 하반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세계각국의 경기회복세 • 반도체 등 세계 IT산업의 회복 • 중국의 성장세 지속과 이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의 효과 • 추경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가능성 • 신용카드 불안 진정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완만한 회복 • 정치적 불안요인 해소 등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건축기조,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생산, 수출 차질과 외국인투자 위축 •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재원의 해외유출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건설투자의 낮은 증가세 •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 압력 • 물가상승과 경기회복에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기에도 위축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 상반기 중 20%대에 달하였던 재화와 용역의 수출도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나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3) 소비

□ 민간소비지출 :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4.8%로 회복

- 2004년 1분기 민간소비가 -1.4%의 증가율을 나타남에 따라 전년에 이어 여전히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Ⅱ-6〉

내수용소비재 출하 추이

단위 : %

	2003			2004			
	3/4	4/4	연간	1/4	2월	3월	4월
내수용소비재출하 (전년동기(월)비)	101.6 (-7.0)	108.5 (-6.1)	104.5 (-5.9)	102.6 (-2.4)	98.6 (0.9)	107.1 (1.0)	103.0 (-1.1)
내구재	-14.9	-13.8	-11.5	-6.4	-2.3	-3.9	-6.7
비내구재	-2.8	-2.1	-3.1	-0.3	2.6	3.5	1.9

자료 : 통계청.

- 그러나 소비자 기대지수 및 소비자 평가지수가 2분기를 지나면서 회복세를 나타남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는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용 소비재 출하추이를 보면 내구소비재는 여전히 부진을 겪고 있으나 그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비내구소비재는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여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내구소비재의 경우 승용차, 냉장고 등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비내구재의 경우, 의약품, 냉동식품 등 음식료품을 위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도소매업 판매지수는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7> 도소매업 판매지수

단위 : 전년 동월(기)비, %

	2003				2004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총 지 수	1.7	-1.5	-2.3	-2.0	0.1	-2.5	2.4	0.8	0.1
도매업	2.3	-0.5	-0.1	-0.8	2.9	-0.1	4.7	4.2	1.6
소매업	-0.4	-3.4	-2.1	-2.1	-1.8	-2.9	1.5	-3.6	-0.9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4.2	-0.7	-10.5	-6.9	-6.6	-11.8	-5.5	-2.5	-4.0

자료 : 통계청.

- 도소매 판매지수의 구성 중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부문이 유가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매업은 전년에 비해 1월 이후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소매업 판매지수는 회복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주체들은 향후 경기 여건을 전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작년 9월을 저점으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6개월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를 보면 4월 현재 99.9로 향후 경기가 작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Ⅱ-8〉 소비자 전망 조사 추이

	2003									2004			
	2/4			3/4			4/4			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 기대지수	94.5	94.5	91.7	90.8	92.0	90.4	91.5	94.6	96.0	98.0	96.3	94.4	99.9
경기	90.8	91.0	85.5	84.0	86.3	81.4	84.1	90.4	94.7	99.6	95.6	89.8	103.6
생활형편	98.6	97.9	95.7	96.6	96.8	96.1	96.3	98.8	99.0	101.8	98.5	99.0	102.2
소비지출	98.5	100.0	97.8	97.0	97.8	98.8	98.2	100.9	101.1	102.1	102.8	100.4	103.2
내구소비재구매	91.1	90.2	89.4	87.5	88.0	88.0	88.7	91.0	90.6	90.0	89.3	89.4	90.2
외식, 오락, 문화	89.5	88.5	86.2	84.3	86.1	82.3	85.9	85.9	87.8	87.0	87.1	87.1	91.3
소비자 평가지수	64.7	67.0	62.7	62.1	63.9	59.9	62.7	68.4	69.2	72.6	71.9	68.5	74.9
경기	51.3	55.4	48.9	47.4	51.2	45.5	48.5	57.8	59.0	63.9	64.8	58.4	68.1
생활형편	78.1	78.7	76.6	76.7	76.6	74.3	76.9	79.0	79.5	81.3	79.0	78.7	81.7

자료 : 통계청.

-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경기, 생활여건, 소비지출 등은 100 이상으로 전기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내구소비재와 외식, 오락, 문화 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음.
- 이러한 민간소비지출 추이는 1분기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으나 2분기 들어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부동산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전세 및 월세 등의 하락이 이어졌음. 다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신용불량자의 배드뱅크를 통한

<표 II-9> 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근무확산 여가 증대 • 배드뱅크 운영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 물가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인상 • 고유가에 따른 가격상승 • 소득불평등도 심화

구제로 소비계층의 확산, 안정적인 물가수준 등으로 전체적으로 하반기 들어 소비 회복 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지출은 2분기 들어 내수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완만하나마 회복되어 상반기 중 0.3% 정도 성장한 후,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외 경기 회복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4.8%라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 연간 전체로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의 급격한 내수위축에 따른 반등효과, 세계경기 회복세 지속, 국내 경기 회복세 가시화 등으로 경제불안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4) 투자

- 고정자본형성 : 2004년 상반기 3.2%, 하반기 5.1% 성장 전망
- 고정자본형성은 2004년 상반기에 3.2%, 하반기에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전체로는 4.2%의 성장이 예상됨.

-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서는, 금년 들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국내경기침체의 주요인인 소비부진도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최근의 투자 부진에 따라 설비투자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교적 자금여유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상기 전망치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 중 긍정적 측면에 좀더 가중치를 둔 것으로, 실제 투자의 증가율은 무엇보다 향후

〈표Ⅱ-10〉 2004년 하반기 투자 전망의 고려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 회복 추세 • 국내 소비 회복 전망 • 2003년의 낮은 투자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압력 • 기업들의 풍부한 여유자금 • 탄핵사태 등에 따른 정치불안 요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까지 내수부진 지속 • 고유가, 중국건축 등에 따른 해외 불안요인 • 2003년 건설투자 급증에 따른 반락 가능성

〈표Ⅱ-11〉 설비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월(기)비, %

		2003			2004			
		3/4	4/4	연간	1/4 ^p	2월 ^p	3월 ^p	4월 ^p
설비 투자	설비투자 (국민계정)	-5.0	-2.4	-1.5	-0.3			
	설비투자추계	-7.0	-4.6	-4.6	-3.0	2.1	-6.8	-6.8
	국내기계수주	-7.5	-5.0	-8.5	18.8	12.7	30.1	30.1

국내소비 회복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 : 2분기 이후 점차 회복 전망

- 설비투자는 2004년 1분기 증가율 추정치가 -0.3%로 부진 하였으나, 국내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추이를 볼 때 2분기 부터는 비교적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소비 등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의 회복세는 하반기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2004년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9.8% 성장하여 연간 전체로 6.8%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 : 2003년보다 증가율 둔화 예상

-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호황 등에 힘입어 2003년에 높은 증가를 보였음. 2004년에는 그에 따른 반락효과와 부동산 투기억제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

〈표Ⅱ-12〉 건설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월(기)비, %

		2003			2004			
		3/4	4/4	연간	1/4 ^p	2월 ^p	3월 ^p	4월 ^p
건설 투자	건설투자 (국민계정)	7.9	7.4	7.6	4.1			
	국내건설기성	17.9	18.6	18.8	9.6	5.5	16.6	16.6
	국내건설수주	47.6	2.1	22.5	-14.2	-23.9	-3.2	-3.2

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도 2004년 2분기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4년 건설투자는 상하반기 공히 3%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여 연간 전체로 3.1%의 성장이 예상됨.

(5) 수출입

□ 2004년 무역흑자, 229억 달러로 대폭 확대

- 2004년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대중국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와 세계경기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흑자규모가 2002년보다 대폭 늘어난 2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26.3% 증가한 2,448억 달러, 수입은 24.1% 증가한 2,2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들어 수출은 5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38.6%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하였음.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고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증가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50%를 넘는 증가율 기록
 -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

- 세계 IT산업의 회복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산업의 수출 호조
 - 극심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국내 업체의 수출확대 노력
 - 반도체·철강 등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 상승과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
- 2004년 들어와 수입도 1~5월 중 23.2%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반도체,

〈표II-13〉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1.1~5.20
중화학제품	134,341 (10.4)	164,446 (22.4)	79,707 (42.8)
반도체	16,631 (16.6)	19,535 (17.5)	9,714 (56.3)
무선통신기기	13,619 (38.2)	18,697 (37.3)	9,117 (52.2)
컴퓨터	12,941 (15.1)	14,977 (15.7)	7,124 (49.0)
자동차	14,779 (10.9)	19,119 (29.4)	8,744 (38.2)
철강제품	7,065 (2.0)	9,282 (31.4)	4,523 (41.5)
석유화학	9,265 (10.4)	11,917 (28.6)	5,529 (32.9)
일반기계	9,256 (10.4)	11,767 (27.1)	6,290 (63.5)
가정용전자	10,760 (11.0)	12,610 (17.2)	6,014 (31.1)
선박	10,867 (9.7)	11,334 (4.3)	6,408 (46.6)
경공업제품	24,146 (-1.9)	24,081 (-0.3)	9,358 (9.6)
직물	8,666 (-2.0)	8,307 (-4.1)	3,142 (4.2)
섬유제품	4,938 (-6.5)	4,601 (-6.8)	1,487 (0.5)
플라스틱	2,244 (12.1)	2,555 (13.9)	1,201 (33.8)

자료 : 산업자원부.

기계류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한데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반면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소비재 수입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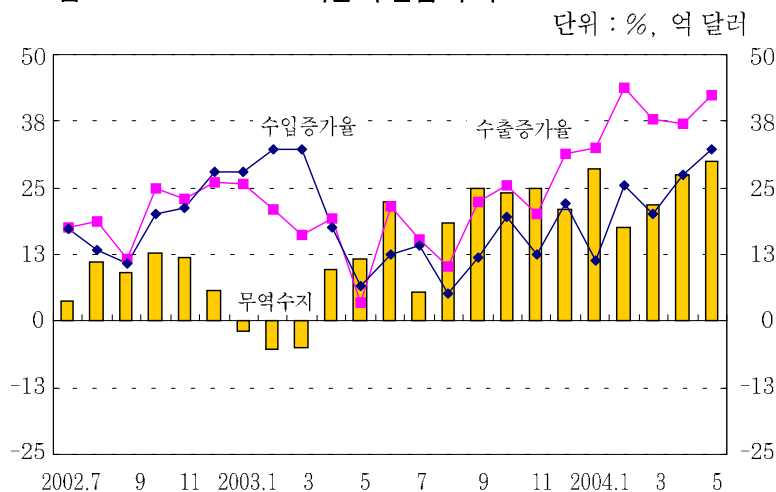
□ 하반기 수출입여건은 다소 악화

- 5월까지의 폭발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어 상반기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1,2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17.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우선 하반기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해외수요 둔화를 들 수 있으며, 작년 하반기 높은 수출증가율(상반기 17.4%, 하반기 21.6%)도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크게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데다, 중국의 높은 수출증가율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확대에 의한 대중국 수출 증가,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기회복, 가전·통신기기·자동차 등에서의 경쟁력 상승을 감안하면 견조한 수출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긴축, 국제유가의 상승 등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없지는 않으나,

최근의 수출기조를 크게 뒤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2004년에 7%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도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임.
 - 최근의 유가급등은 장기화된다면 세계 성장률의 저하를 초래하여 우리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OPEC 증산에 따른 국제유가의 안정 가능성과 원유의존도가 낮은 IT산업 위주의 국내 수출구조로 인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한편, 하반기에도 수입은 22.7%나 증가, 상반기(25.5%) 보다는 다소 낮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림 II-1> 최근 수출입 추이



전망됨. 국제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상승, 국내경기의 회복, 작년 하반기 낮은 수입증가율에 따른 기술적 반등요인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6) 물가

□ 소비자물가 : 물가상승 압력 불구하고 3.5% 내외 상승에 그칠 듯

○ 2004년 1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 들어 전월대비로 보합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유가상승 등 비용부문의 물가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물가상승률은 3.5%대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상품부문에서는 1분기에 전기대비 2.6% 상승하였으나 3~4월 들어 농수산물의 출하 증가와 공업제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부문에서는 개인서비스 부문이 1분기에 전기대비 2.3% 상승하였으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의 파생효과로서 집세가 낮은 상승률을 보인데다 공공요금 가격의 안정에 따라 전체 서비스 부문의 가격이 2분기 들어 1%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하반기 들어 유가, 원자재 등 공급측면의 비용상승요인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표 II-14>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기말월 대비, %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3.7 (2.7)	2.4 (4.1)	-0.6 (3.4)	1.3 (3.2)	0.4 (3.5)	3.4 (3.6)	2.1 (3.3)	1.0 (3.1)	0.0 (3.3)
상 품	4.9	2.9	-2.3	2.4	0.4	3.2	2.6	1.0	-0.2
농축산물	6.9	6.6	-5.9	10.3	-1.6	8.9	6.6	2.7	-0.7
공업제품	4.1	1.7	-1.1	-0.2	1.0	1.4	1.2	0.4	0.0
서비스	2.8	1.9	0.7	0.4	0.4	3.5	1.7	1.1	0.0
집 세	4.8	0.7	1.0	0.6	0.4	2.8	0.3	0.0	0.2
공공요금	-0.8	2.0	0.6	-0.5	-0.2	2.0	1.8	0.7	-0.3
개인서비스	3.9	2.7	0.6	0.6	0.7	4.7	2.3	1.8	0.3
근원인플레이션 (전년동기비)	3.1 (3.0)	1.6 (3.2)	0.5 (3.2)	0.3 (3.1)	0.5 (2.7)	2.8 (3.1)	1.5 (2.8)	1.1 (2.7)	0.1 (2.7)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 한편 석유류, 농산물 가격 등 경제여건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의 추이를 보면 금년 1분기에 0.1% 상승률로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음.
 - 전년동기 대비로는 2.7%대로 일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들어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요인이 있으나 실제 내수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

〈표Ⅱ-15〉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안정 • 경기침체로 물가상승압력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 임금상승 • 공공요금 인상

- 또한 상반기 들어 급등하였던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요인들이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태풍,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과 임금상승세는 여전히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반면, 농산물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농산물가격 하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Ⅲ. 경제정책 방향

- 상반기 성장은 주로 해외부문에 의존
 - 2004년 상반기 중 한국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호조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5.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근처의 수준으로 전체적인 성장률 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성장의 내용 면에서 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 즉, 수출의 호조가 점차적으로 투자, 소비 등 내수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수출과 내수가 함께 회복되는 형태의 경제회복이 기대되었으나, 경제성장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요인에 의존하는 결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경제규모가 매우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부

문의 약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음.

- 우선, 우리의 제1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긴축정책 발표는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고, 우리 산업 전반이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음.
 - 다음으로, 시장수급 상황과는 완전히 별도의 요인 때문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불안한 움직임도 또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또한 2003년부터 이미 빠른 경제성장세가 지속되어 온 미국경제가 다소의 과열기미를 나타냄에 따라 미국 연준이 가까운 시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호조를 주도해 오던 미국경제의 빠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역시 우리 경제 운용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 경제가 현재 이렇게 해외부문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구조가 점점 더 수출호조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회복 움직임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일면으로는 오히려 경제

정책을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해 온 측면에도 기인한다고 판단됨.

- 정부는 2004년 벽두부터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수산업 특히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으나 그 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오랜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특별소비세의 인하, 신용불량자의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민간소비의 회복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지금의 수출호조는 물론 주로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 움직임 속에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수출기회 극대화 등의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지만, 2004년 상반기 중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로서 원화의 상대적인 저평가 기조의 유지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원화의 저평가 기조는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 자본재 및 원자재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반기에는 내수부문과 해외부문의 고른 성장 기대

- 2004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극단적인 왜곡된 성장구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비교적 해외부문과 내수부문이 고루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의 성장추세를 보이며 5.5% 정도의 성장세를 달성하고 연간 전체로도 5.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가 정부의 투자촉진책의 지속, 수출호조에 따른 영향, 오랫동안 부진하던 내수의 회복 등에 힘입어 먼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소비도 지금까지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됨.
- 반면에 지금까지 성장세를 주도했던 해외부문은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도 내수촉진 등 미시적인 조정정책 지속 필요

- 따라서, 2004년 하반기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역시 “안정적인 성장 유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많은 분야에서 미시적인 조정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그 첫 번째 분야로서, 세계경제 여건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의 조성보다는 내수 회

복을 위한 경제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지적되어 온 원화 환율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점진적인 원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 등 내수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설비투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토지구제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시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그 두 번째 분야로서,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추진된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몇몇 특수품목을 제외한 특별소비세 제도의 전면적인 철폐, 배드뱅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해 소비촉진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세 번째 분야로서,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출호조 및 정부의 지속적인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은 한편으로는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인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고용불안

특히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투자의 활성화, 공공분야의 고용확대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대외 악재인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의 상승, 국제금리 상승 움직임 등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그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특히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에 큰 불안을 안겨주었던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유가 상승 추세 등이 물가불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2편

산업별 전망

● 차례 ●

I. 개 관	77
1. 금년 상반기 동향	77
2. 금년 하반기 전망	79
II. 산업별 전망	96
1. 자동차산업	96
2. 조선산업	107
3. 일반기계산업	125
4. 철강산업	144
5. 석유화학산업	160
6. 섬유산업	175
7. 가전산업	192
8. 통신기기산업	203
9. 컴퓨터산업	218
10. 반도체산업	232

● 표 차례 ●

〈표 I-1〉 주요 기존 주력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	81
〈표 I-2〉 IT제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82
〈표 I-3〉 주요 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금년도 하반기 예상) .	84
〈표 I-4〉 주요 산업의 투자예상	86
〈표 I-5〉 주요 여건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89
〈표 I-6〉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92
〈표 I-7〉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	93
〈표 I-8〉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94
〈표 I-9〉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95
〈표 II-1〉 자동차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99
〈표 II-2〉 자동차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01
〈표 II-3〉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01
〈표 II-4〉 주요 여건변화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103
〈표 II-5〉 자동차산업의 수급전망	105
〈표 II-6〉 1500cc 차량의 1년 운행 세금 비교	106
〈표 II-7〉 조선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114
〈표 II-8〉 조선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16
〈표 II-9〉 조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17
〈표 II-10〉 주요 여건변화가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118
〈표 II-11〉 조선산업의 수급전망	122
〈표 II-12〉 일반기계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129
〈표 II-13〉 일반기계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32
〈표 II-14〉 일반기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33
〈표 II-15〉 주요 여건변화가 일반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	137
〈표 II-16〉 일반기계산업의 수급전망	141
〈표 II-17〉 철강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150
〈표 II-18〉 철강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52
〈표 II-19〉 철강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52

● 표 차례 ●

〈표Ⅱ-20〉 주요 여건변화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156
〈표Ⅱ-21〉 철강산업의 수급전망	158
〈표Ⅱ-22〉 석유화학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165
〈표Ⅱ-23〉 최근 국내 석유화학 유형별 설비투자 추이	167
〈표Ⅱ-24〉 석유화학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67
〈표Ⅱ-25〉 석유화학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68
〈표Ⅱ-26〉 주요 여건변화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170
〈표Ⅱ-27〉 석유화학산업의 수급전망	173
〈표Ⅱ-28〉 섬유산업의 생산증가율 현황	176
〈표Ⅱ-29〉 섬유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178
〈표Ⅱ-30〉 섬유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79
〈표Ⅱ-31〉 국제 화섬원료 가격 추이	182
〈표Ⅱ-32〉 섬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83
〈표Ⅱ-33〉 주요 여건변화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187
〈표Ⅱ-34〉 섬유산업 전망	190
〈표Ⅱ-35〉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196
〈표Ⅱ-36〉 가전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96
〈표Ⅱ-37〉 가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98
〈표Ⅱ-38〉 주요 여건변화가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199
〈표Ⅱ-39〉 가전산업의 수급전망	202
〈표Ⅱ-40〉 통신기기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209
〈표Ⅱ-41〉 통신기기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211
〈표Ⅱ-42〉 통신기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211
〈표Ⅱ-43〉 주요 여건변화가 통신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214
〈표Ⅱ-44〉 통신기기산업의 수급전망	217
〈표Ⅱ-45〉 컴퓨터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223
〈표Ⅱ-46〉 컴퓨터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225
〈표Ⅱ-47〉 컴퓨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225

● 표 차례 ●

〈표Ⅱ-48〉 주요 여건변화가 컴퓨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227
〈표Ⅱ-49〉 컴퓨터산업의 수급전망	231
〈표Ⅱ-50〉 반도체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237
〈표Ⅱ-51〉 반도체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238
〈표Ⅱ-52〉 반도체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239
〈표Ⅱ-53〉 주요 여건변화가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241
〈표Ⅱ-54〉 반도체산업의 수급전망	242

● 그림차례 ●

〈그림 II-1〉 신조선가 추이	121
〈그림 II-2〉 통신기기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증가율 추이	204
〈그림 II-3〉 통신기기산업의 품목별 수출구성비(2004.4)	205

I. 개 관

1. 금년 상반기 동향

-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력업종의 수출급증이 경제 활력 유지
 - 금년 상반기에도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일부 업종은 큰 폭의 내수감소가 이루어지거나 정체를 면치 못한 반면, 대부분의 주력업종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업생산의 증가를 견인
 - 자동차, 섬유,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작년 동기 대비 내수가 감소했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들도 내수 증가세가 5%를 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음.
 - 특히 내구소비재인 자동차와 가전, 컴퓨터 등은 큰 폭의 내수감소를 보여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반면, 섬유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가전을 제외한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조업은 40%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
 - 우리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한국 소비재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중국 등 개도권의 높은 성장에 힘입은 한국산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수요확대에 기인

- 특히, 통신기기와 디지털가전, 컴퓨터 등 IT제품의 품질 향상에 힘입어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도 한국제품에 대한 품질인정과 인지도 상승, 중국 등 개도권의 개발 특수 등으로 인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내수·수출의 상대적 영향 정도에 따라 업종별 생산 희비 교차

- 자동차는 높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생산 감소를 면치 못했고, 섬유는 내수 감소 폭에 비해 수출증가가 미미하여 생산 역시 감소를 면치 못했음.
 - 가전과 철강 등의 경우에도 내수가 감소하거나 낮은 내수 증가로 5% 미만의 생산증가율을 보였음.
- 한편, 수출특화산업인 조선이나 IT제조업의 주력부문인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은 높은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높은 생산증가를 실현함으로써,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경기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 수출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투자재 및 원부자재 수요충족을 위해,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통신기기, 반도체 등 자본재 및 부품소재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섬유, 컴퓨터, 가전 등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금년 하반기 전망

- 안정적인 수출증가세 예상되나, 하반기 산업경기는 내수회복 여부에 달려
 - 10대 주력 업종 전체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33.3% 보다는 낮지만, 19.5%로 여전히 안정적인 수출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에 물량기준으로 12.5%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철강산업의 경우 하반기에는 3% 미만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
 - 상반기 4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자동차,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도 30% 아래로 낮아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
 - 한편, 내수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명암이 엇갈려 향후 내수회복 여부가 하반기 산업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
 - 상반기에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자동차는 업체들의 판촉 강화 및 경기회복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되고, 섬유도 내수감소율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컴퓨터의 경우 노트북 수요의 증가, EBS 교육방송 등 컴퓨터 특수, PC의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화 등에 따라 큰

폭의 내수 감소세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수가 회복될 전망

- 한편,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자본재 및 소재산업도 투자확대와 수요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내수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가전 및 통신기기는 가계부채문제와 고용불안 등 구매력 감소요인이 큰 데다, 신규가입 유치의 한계 등으로 내수감소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도 IT제조업이 산업경기 회복 주도 예상

- 통신기기, 반도체 등 핵심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20%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고, 특히 컴퓨터도 6.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컴퓨터, 가전, 통신기기 등 주요 IT소비제품의 생산증가는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확대에 기인
 -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등 기존제품의 국내외 수요급증과 더불어 USB메모리стик, 자동차 등 신수요가 등장함에 따라 반도체의 생산도 크게 증가
- 한편, 자동차도 내수회복,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어 18% 이상의 생산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자동차는 하반기에도 품질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기업의 판촉활동, 경기회

〈표 I-1〉 주요 기존 주력산업의 수급 전망 (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생 산	11.9	-9.1	-1.8	17.8
	수 입	13.7	-10.6	7.7	12.0
	내 수	-10.0	-7.5	-25.5	0.5
	수 출	24.1	17.1	30.6	20.0
조 선	생 산	20.4	1.5	13.6	0.2
	수 출	22.8	1.1	14.0	1.3
일반기계	생 산	5.4	5.1	5.8	6.2
	수 입	33.2	17.7	27.0	17.3
	내 수	8.0	3.6	5.2	5.8
	수 출	23.2	22.8	29.0	18.4
철 강	생 산	3.3	2.8	2.1	2.2
	수 입	14.3	6.7	14.6	6.6
	내 수	5.4	2.3	3.6	3.4
	수 출	3.6	15.0	12.5	2.9
석유화학	생 산	2.8	4.1	7.4	4.3
	수 입	6.3	4.8	10.3	10.1
	내 수	0.3	-4.7	0.7	3.9
	수 출	6.1	11.1	12.7	8.9
섬 유	생 산	-2.1	-0.5	-6.7	-4.2
	수 입	9.2	-0.5	13.7	16.1
	내 수	-10.2	1.9	-6.3	-3.7
	수 출	-2.2	-2.8	3.1	3.3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주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은 물량기준이고, 섬유의 생산 및 내수는 물량, 수출입은 금액이며, 조선, 일반기계는 모두 금액기준임.

〈표 1-2〉 IT제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가 전	생 산	-1.5	15.8	4.6	3.6
	수 입	14.6	17.8	19.9	19.2
	내 수	-2.9	12.7	-7.4	-8.2
	수 출	10.4	24.0	29.1	27.5
통신기기	생 산	21.2	8.2	22.0	21.0
	수 입	-4.0	17.8	31.0	22.0
	내 수	7.1	-13.0	-2.5	-3.6
	수 출	39.6	34.0	49.5	38.0
컴 퓨 터	생 산	-4.3	5.2	8.3	6.1
	수 입	-3.3	3.0	14.5	12.0
	내 수	-7.4	-12.8	-15.0	-0.2
	수 출	0.5	30.8	45.4	19.0
반 도 체	생 산	21.3	25.8	26.8	27.5
	수 입	28.5	16.9	22.7	16.2
	내 수	32.6	18.8	11.8	23.9
	수 출	6.5	27.1	53.1	21.4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주 : 모두 금액기준임.

복 기대 심리 등으로 내수가 작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중국건축 등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내수부진 등으로 하반기에도 생산증가율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섬유산업은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작년 하반기에 비해 생산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 하반기에는 지속적 수출수요 확대와 더불어 국내에도 설비 투자 증가 및 자동차, 전자 등 수요산업의 성장이 예상되어 일반기계의 생산도 증가할 전망
- 한편, 하반기의 주력산업 수입 증가율은 상반기의 26.5% 보다 낮은 17.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 섬유 및 가전의 저가품 역수입뿐만 아니라, 수출호조에 힘입어 자본재 및 부품, 소재 등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국내 자동차수요의 증가와 일본차의 진출확대 등으로 자동차 수입도 12% 이상의 증가를 나타낼 전망
- 해외생산 증가는 일반적인 추세
 - 조선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가전, 컴퓨터 등은 국내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생산만 증가하는 양상
 - 이에 따라 생산능력 확장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최근

국내경기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특히 가전이나 컴퓨터, 섬유 등에서는 업종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품목의 국내 생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생산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생산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산업내 생산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 대부분의 주력업종 분야에서 해외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크게 저임금노동력 활용과 현지수요 대응으로 나눌 수 있음.

<표 I -3> 주요 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금년도 하반기 예상)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 및 국내생산 동시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자 동 차			○	
조 선	○			
일 반 기 계		○		
철 강		○		
석 유 화 학			○	
섬 유			○	
가 진			○	
통 신 기 기		○		
컴 퓨 터			○	
반 도 체		○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 대부분 두 가지 이유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등 기존 주력산업들은 현지수요라는 측면이 강조
- 반면, 가전, 섬유, 컴퓨터 등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 개도국에 진출
- 한편, 자동차나 반도체, 디지털가전 등은 선진국에서의 현지생산 확대 또는 현지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현지시장의 공략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회피수단으로서 해외생산을 활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하반기에 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 예상

- 그 동안 침체를 면치 못하던 국내투자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컴퓨터 및 섬유산업을 제외하면 전업종에서 설비투자과 연구개발투자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디지털TV, 프리미엄 백색가전 분야의 사업 확대 등이 예상되는 가전산업과, 플래시메모리 등의 생산라인 증설이 예상되어 있는 반도체산업에서는 대대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투자확대가 예상
- 대부분의 산업들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표 1-4〉 주요 산업의 투자예상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총투자
자 동 차	△	△	△
조 선	△	△	△
일 반 기 계	△	△	△
철 강	△	△	△
석 유 화 학	△	△	△
섬 유	▽	△	▽
가 전	▲	▲	▲
통 신 기 기	▲	△	△
컴 퓨 터	▽	△	▽
반 도 체	▲	△	▲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경우도 단순한 생산능력 확충이 아니고,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제품 투입을 위한 설비개체나 노후설비개체, 자동화, 에너지절약 등 합리화투자, 공해방지 등에 기인

□ 주요 여건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주요 경제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상승, 철강 등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등은 이들이 단기에 그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

〈중국 긴축정책 영향〉

- 중국의 긴축정책이 우리의 수출, 수입, 중국직접투자 등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
 - 철강은 긴축정책의 직접 규제 대상품목이어서 국내 수출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규제품목으로 거론하고 있는 철근, 봉, 형강 등 건자재의 대중 수출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은 아직까지 자국제품 자급률이 낮고, 원자재 성격의 수출패턴으로 인해 중국의 수입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위축, 물동량 감소 등이 이루어지면 선박 수주량 감소 등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산업의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및 금리인상 등이 수반될 경우 일반기계, 철강, 섬유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중국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유가 상승 영향〉

- 유가상승이 대부분의 산업에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석유화학을 제외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가전을 제외하면 내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는 특정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여타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평가
- 단기적으로 생산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어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판매 감소도 가능
- 조선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이 원유수요 감소로 이어져 탱커수요가 감소할 경우 1, 2차 오일쇼크 때처럼 큰 폭의 선박 발주 감소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

- 철강은 고철, 조선은 후판, 석유화학은 납사, 자동차는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 일반기계는 철강 등이 주요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작용
 - 이들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세계적인 현상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업체의 수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겠지만 기업의 채산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환율하락 영향〉

- 환율하락은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효과를 지니고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의 환율이 더 큰

〈표 I-5〉 주요 여건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상승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수출	수입	해외 투자	수출	내수	수입	생산 비용	수출	생산 비용	수출	수입	생산 비용
자 동 차	○	○	○	○	▽	○	△	○	△	○	△	○
조 선	○	○	○	○	○	○	△	○	▲	▽	○	○
일 반 기 계	○	○	▽	○	○	○	△	○	○	○	○	○
철 강	▽	○	▽	○	○	○	△	○	▲	▽	○	▽
석 유 화 학	○	▽	○	▽	○	▽	△	▽	△	○	○	▽
섬 유	○	○	○	○	○	○	▲	○	○	▽	△	○
가 전	○	○	○	○	▽	○	○	○	△	▽	△	▽
통 신 기 기	○	○	○	○	○	○	○	○	○	○	○	▽
컴 퓨 터	○	○	○	○	○	○	△	○	○	▽	△	○
반 도 체	○	○	○	○	○	○	○	○	○	○	○	○

주 : 1)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2) 중국경제는 긴축정책으로 연착륙 예상, 유가는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가정, 대미환율은 하반기 1,145원 예상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하락을 바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단기간내 수출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환율하락으로 생산비용 절
감 효과를 지님.

□ 산업별 전망 요약

○ 자동차의 경우 내수가 상반기의 침체에서 회복되고 수출증
가세도 지속되어 생산은 상반기의 감소세에서 17%를 상회

하는 큰 폭의 증가 예상

- 선진국의 경기회복, 국산 자동차의 품질향상 등에 의해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회복의 기대감과 업체들의 판촉 강화로 내수도 회복 기대
- 조선의 경우 현재 3년치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조일정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풀가동상태이므로 생산증가율이 크게 높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의 경우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지만 내수증가율이 다소 높아지는 영향 등으로 생산증가율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은 6.2%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철강의 경우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안정적 성장 등으로 철강생산은 안정적 성장세 유지
-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증가세 지속,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생산도 증가세를 이어 가겠지만 수출증가율의 둔화로 생산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떨어질 전망
- 섬유류의 경우 선진국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증가세를 이어 가겠지만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해 생산도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를 면치 못할 전망
- 가전의 경우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나, 한국산 브랜드의 인

지도 향상, 올림픽 등 디지털TV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생산은 3.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통신기기의 경우 내수는 위축되고 있으나 세계시장의 성장 지속, 브랜드이미지 제고, 독일, 영국 등으로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도 2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컴퓨터의 경우 수출증가세가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내수도 전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도 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반도체의 경우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등 기존 반도체응용제품 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USB메모리 스틱, 플래시메모리, 자동차 등에서의 신규수요 확대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어 생산도 27% 이상 증가가 기대

〈표 1-6〉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대)	3,148 (6.8)	1,682 (11.9)	1,496 (-9.1)	3,178 (1.0)	1,651 (-1.8)	1,763 (17.8)	3,414 (7.4)
조 선 (백만달러)	10,793 (9.3)	6,192 (20.4)	5,010 (1.5)	11,202 (3.8)	7,032 (13.6)	5,020 (0.2)	12,052 (7.6)
일반기계 (십억원)	49,506 (9.6)	25,998 (5.4)	26,132 (5.1)	52,130 (5.3)	27,506 (5.8)	27,752 (6.2)	55,258 (6.0)
철 강 (천톤)	51,676 (5.7)	26,094 (3.3)	27,175 (2.8)	53,269 (3.1)	26,650 (2.1)	27,760 (2.2)	54,410 (2.1)
석유화학 (천톤)	16,125 (6.2)	8,127 (2.8)	8,561 (4.1)	16,688 (3.5)	8,726 (7.4)	8,928 (4.3)	17,654 (5.8)
섬 유 (천톤)	2,716 (-10.7)	1,323 (-2.1)	1,358 (-0.5)	2,681 (-1.3)	1,234 (-6.7)	1,301 (-4.2)	2,535 (-5.4)
가 전 (십억원)	30,602 (-)	15,700 (-1.5)	16,981 (15.8)	32,681 (6.8)	16,423 (4.6)	17,591 (3.6)	34,014 (4.1)
통신기기 (십억원)	32,116 (31.2)	17,697 (21.2)	18,956 (8.2)	36,653 (14.1)	21,590 (22.0)	22,943 (21.0)	44,533 (21.5)
컴 퓨 터 (십억원)	28,884 (-)	13,329 (-4.3)	15,710 (5.2)	29,039 (0.5)	14,429 (8.3)	16,661 (6.1)	31,090 (7.1)
반 도 체 (백만달러)	25,908 (-)	15,502 (21.3)	16,514 (25.8)	32,016 (23.6)	19,660 (26.8)	21,050 (27.5)	40,710 (27.2)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표 I-7〉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888 (95.3)	590 (59.0)	576 (11.4)	1,166 (31.3)	640 (8.6)	621 (7.9)	1,261 (8.1)
일반기계	12,523 (12.5)	7,568 (33.2)	8,052 (17.7)	15,620 (24.7)	9,611 (27.0)	9,448 (17.3)	19,059 (22.0)
철 강	4,933 (30.0)	3,112 (39.1)	3,298 (22.4)	6,410 (30.0)	5,230 (68.1)	4,180 (26.7)	9,410 (46.8)
석유화학	4,745 (5.1)	2,867 (31.7)	2,955 (15.1)	5,822 (22.7)	3,378 (17.8)	3,305 (11.8)	6,683 (14.8)
섬 유	5,688 (17.0)	2,664 (9.2)	3,232 (-0.5)	5,897 (3.7)	3,028 (13.7)	3,752 (16.1)	6,780 (15.0)
가 전	3,008 (19.9)	1,651 (14.6)	1,846 (17.8)	3,497 (16.3)	1,980 (19.9)	2,200 (19.2)	4,180 (19.5)
통신기기	3,079 (-5.5)	1,436 (-4.0)	1,866 (17.8)	3,302 (7.2)	1,886 (31.0)	2,275 (22.0)	4,161 (26.0)
컴 퓨 터	5,682 (-4.7)	2,768 (-3.3)	2,904 (3.0)	5,672 (-0.2)	3,169 (14.5)	3,252 (12.0)	6,421 (13.2)
반 도 체	17,476 (12.4)	9,955 (28.5)	11,373 (16.9)	21,328 (22.0)	12,210 (22.7)	13,210 (16.2)	25,420 (19.2)
9개업종 합 계	57,104 (11.5)	32,021 (24.4)	35,526 (14.8)	67,547 (18.3)	40,492 (26.5)	41,622 (17.2)	82,114 (21.6)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석유화학은 산자부 수출입통계분류 석유화학(MTI코드21), 섬유는 섬유사, 섬유제품, 의류기준임.

〈표 1-8〉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대)	1,622 (11.8)	730 (-10.0)	588 (-7.5)	1,318 (-18.8)	544 (-25.5)	591 (0.5)	1,135 (-13.9)
일반기계 (십억원)	49,535 (9.4)	26,178 (8.0)	26,241 (3.6)	52,419 (5.8)	27,555 (5.2)	27,780 (5.8)	55,336 (5.5)
철강 (천톤)	43,720 (14.7)	22,382 (5.4)	22,988 (2.3)	45,370 (3.8)	23,188 (3.6)	23,770 (3.4)	46,958 (3.5)
석유화학 (천톤)	10,351 (9.3)	5,097 (0.3)	5,024 (-4.7)	10,121 (-2.2)	5,132 (0.7)	5,220 (3.9)	10,352 (2.3)
섬유 (천톤)	1,183 (-23.8)	538 (-10.2)	595 (1.9)	1,133 (-4.2)	504 (-6.3)	573 (-3.7)	1,077 (-4.9)
가전 (십억원)	20,875 (-)	10,483 (-2.9)	11,364 (12.7)	21,847 (4.7)	9,707 (-7.4)	10,435 (-8.2)	20,142 (-7.8)
통신기기 (십억원)	19,434 (26.8)	9,928 (7.1)	8,844 (-13.0)	18,773 (-3.4)	9,684 (-2.5)	8,522 (-3.6)	18,206 (-3.0)
컴퓨터 (십억원)	21,625 (-)	9,629 (-7.4)	9,805 (-12.8)	19,434 (-10.1)	8,188 (-15.0)	9,790 (-0.2)	17,978 (-7.5)
반도체 (백만달러)	26,753 (-)	17,194 (32.6)	16,615 (18.8)	33,809 (26.4)	19,220 (11.8)	20,580 (23.9)	39,800 (17.7)

주: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표 I-9〉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13,750 (11.9)	8,047 (34.1)	9,386 (20.3)	17,433 (26.8)	10,987 (36.5)	11,638 (24.0)	22,625 (29.8)
조 선	10,672 (10.0)	6,165 (22.8)	4,939 (1.1)	11,104 (4.1)	7,028 (14.0)	5,004 (1.3)	12,032 (8.3)
일반기계	12,502 (12.7)	7,417 (23.2)	7,960 (22.8)	15,377 (23.0)	9,568 (29.0)	9,423 (18.4)	18,991 (23.5)
철 강	5,899 (-13.8)	3,650 (34.4)	4,330 (36.0)	7,980 (35.3)	5,074 (39.0)	4,836 (11.7)	9,910 (24.2)
석유화학	9,265 (10.4)	5,597 (28.8)	6,320 (28.5)	11,917 (28.6)	7,180 (28.3)	7,025 (11.2)	14,205 (19.2)
섬 유	15,674 (-2.5)	7,295 (-2.2)	7,959 (-2.8)	15,253 (-2.7)	7,524 (3.1)	8,220 (3.3)	15,744 (3.2)
가 전	10,760 (11.0)	5,981 (10.4)	6,629 (24.0)	12,610 (17.2)	7,720 (29.1)	8,450 (27.5)	16,170 (28.2)
통신기기	14,232 (34.3)	8,394 (39.6)	11,014 (34.0)	19,411 (36.4)	12,558 (49.5)	15,200 (38.0)	27,758 (43.0)
컴 퓨 터	12,941 (15.1)	6,470 (0.5)	8,507 (30.8)	14,977 (15.7)	9,410 (45.4)	10,123 (19.0)	19,533 (30.4)
반 도 체	16,631 (16.6)	8,263 (6.5)	11,272 (27.1)	19,535 (17.5)	12,650 (53.1)	13,680 (21.4)	26,330 (34.8)
10개업중 합 계	122,326 (12.1)	67,279 (19.5)	78,319 (22.9)	145,598 (19.0)	89,699 (33.3)	93,599 (19.5)	183,298 (25.9)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석유화학은 산자부 수출입통계분류 석유화학(MTI코드21), 섬유는 섬유사, 섬유제품, 의류기준임.

Ⅱ. 산업별 전망

1. 자동차산업

(1) 상반기 동향

□ 수출호조 속에 내수 및 생산 감소

-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선진국 경기회복과 국산차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수출 호조로 인해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소폭 감소
 - 수입수요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상반기 자동차 내수는 특소세 인하와 신차종 출시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과 소비심리의 급랭으로 인해 전년 동기비 25.5% 감소한 54만 4,100대에 그침.
 - 수출은 유럽 및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비 30.7% 증가한 110만 2,600대를 기록
 - 생산은 165만 1,300대로 전년 동기비 1.8%가 감소하였

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생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상용차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

- 수입은 고급차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비 7.7% 증가한 1만 6,300대를 기록

(2) 하반기 전망

1)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

□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계 수요 둔화

-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고성장세와 유럽의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이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중동사태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가가 급등하면서 선진국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자동차업체간 판촉 경쟁 심화

- 선진국 완성차업체들이 하반기에 신차종을 대거 출시할 계획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예상
 - 특히 국내 업체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소형차와

소형 SUV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

□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내수 부진

- 경기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는 4/4분기 이후에나 회복될 전망
 - 완성차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이어지겠고, 무이자 할부판매 등 판촉전략이 강화될 예상이나 내수가 본격 회복되기 어려울 예상
 - 특히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내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에 따라 자동차 내수는 전년 동기비 0.5% 증가에 그칠 전망

□ 품질개선과 신흥개도국 수요 증가로 수출증가세 유지

- 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큰 폭으로 개선됨으로써 선진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흥개도국시장에서의 신규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
 -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멕시코 등 신흥개도국의 수요도 증가
 - 원화 가치가 중국사태 이후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예상

- 현지 조립용 부품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임가 공한 후 국내로 Buyback하기 위한 부품수출이 증가할 전망
-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비 20%가 증가할 전망

□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우려

- 금년 노사쟁점사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조건 개선, 주 5일 및 주간 2교대 근무제, 사회공헌기금 5% 적립 등 단기적인 합의가 어려운 문제가 대두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질적인 노사분규로 이어져 생산에 차질을 빚을 예상
 - 이 경우 공급차질과 품질문제를 유발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상
 -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어질 경우 하반기 생산은 전년 동기비 17.8%가 증가할 전망

<표II-1> 자동차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없음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			
현지 수요 증가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한 증산(중국, 인도) 한국차에 대한 인지도 개선			

□ 산업공동화 현상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예상

○ 해외생산이 점증하고 있으나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

- 완성차의 해외생산이 증가하면서 금년 완성차 해외생산 물량은 40만대를 상회할 예상이나, 산업공동화를 유발하지 않을 예상

□ 고가 자동차 수입 증가

○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업체를 비롯한 외국 완성차업체의 국내시장 공략이 강화되면서 수입차 판매가 증가할 전망

- 특히 3,000cc 이상의 대형 고가 자동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

□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전략차종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증가

○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는 SUV와 상용차 등 전략차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차세대 성장동력인 미래형자동차의 개발을 위한 투자와 함께 신기술개발을 위한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현대의 상용차 엔진공장 및 GM대우의 엔진공장 건설과

〈표II-2〉 자동차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단위 : 억원

	투자 예상	이유
설비투자	△(34,000)	SUV 및 상용차 생산라인 증설 생산효율화 투자
연구개발투자	△(24,800)	미래형자동차 개발 및 원천기술개발
총투자	△(58,800)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현대기아자동차 투자 기준.

〈표II-3〉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산	·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출 증가 ·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	· 고유가로 인한 내수부진
내수	· 특소세 인하와 자동차업체들의 판촉 강화 ·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 중산층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 · 고유가 지속
수출	· 선진국 수요 증가 · 국산자동차의 품질개선	· 원화가치 상승 ·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수입	· 고소득층의 수입차 선호 · 원화가치 상승	
투자	· 생산차종의 보완 · 생산효율화 추진	· 내수 침체 및 해외 증설투자
종합평가	· 생산은 수출호조로 인해 증가 · 내수는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전년비 감소 · 수출은 선진국 경제 성장세 지속과 품질경쟁력 제고로 증가세 유지 · 수입은 고소득층의 수요증가로 지속 증가 · 투자는 완만하나 수출증대를 위한 생산차종의 보완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해 증가	

마그나 등 세계적인 부품업체의 국내 투자 증가로 부품산업에서의 투자도 증가할 예상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 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은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 없을 듯

○ 중국경제의 연착륙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예상

-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현지생산도 증가하고 있어 부품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단지 중국의 '자동차산업정책'에 따라 KD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큼.

□ 유가상승은 자동차내수 감소요인으로 작용

○ 유가상승은 자동차운행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자동차내수를 위축시킬 것이나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상

-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은 미미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소폭 증가할 것이나 생산 효율성 제고로 극복해 나갈 예상

-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

일 예상이어서 일시적인 원가상승에 그칠 전망

□ 원화환율 하락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상

○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환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원화환율 하락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표II-4> 주요 여건변화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인
중국의 긴축정책	수출	○	중국내 수요의 증가에 따른 현지 판매 호조 부품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수입	○	부품 Buyback, 즉 기업내 교역의 활성화
	해외투자	○	시장 선점을 위한 완성차 증설투자 가속화 현지공급을 위한 부품업체의 투자 증가
유가상승	수출	○	해외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비 압박 요인 미미
	내수	▽	중형차 수요 감소
	수입	○	-
	생산비용	△	에너지 비용이 소폭 상승하겠으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철강, 석유화학제품)	수출	○	생산효율화로 극복
	생산비용	△	-
환율	수출	○	환율하락의 영향을 생산비용 절감으로 극복 가능
	수입	△	수입가격 하락
	생산비용	○	-

주 :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 그러나 일본 자동차업체의 비용절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1달러당 100엔 이하로 엔화가 절상되지 않는 한 일본의 자동차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이에 따라 최근 세계시장에서 한일 자동차업체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생산 효율성 제고가 필요

3) 자동차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내수 소폭 증가

- 상반기에 감소한 자동차 내수가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와 교체 수요로 인해 소폭 증가할 예상
 -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특소세 인하 및 신차 출시의 내수 촉진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예상

□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품질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증가율은 하락할 전망
 - 고유가의 지속과 중국경제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예상
 - 상반기 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 증가율은 미국내 자동차 판매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와 함께 판촉 강화로 미국 시장 판매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상반기 국산 자동차의 서유럽시장 판매 증가율은 서유럽

시장 자동차 판매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 수출증대에 힘입어 생산은 7.4% 증가

○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비 7.4%가 증가할 전망

－ 금년 하반기 자동차생산은 지난해 하반기의 생산부진에 따라 큰 폭의 신장률을 나타낼 전망

□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라 수입은 9.8% 증가

○ 고소득 계층의 수요 증가 및 선진국업체의 시장진입과 판

〈표II-5〉 자동차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대,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3,148 (6.8)	1,682 (11.9)	1,496 (-9.1)	3,178 (1.0)	1,651 (-1.8)	1,763 (17.8)	3,414 (7.4)
수 입 (물 량)	30,491 (83.3)	15,140 (13.7)	15,360 (-10.6)	30,500 (0.03)	16,300 (7.7)	17,200 (12.0)	33,500 (9.8)
수 입 (금 액)	888 (95.3)	590 (59.0)	576 (11.4)	1,166 (31.3)	640 (8.6)	621 (7.9)	1,261 (8.1)
내 수	1,622 (11.8)	730 (-10.0)	588 (-7.5)	1,318 (-18.8)	544 (-25.5)	591 (0.5)	1,135 (-13.9)
수 출 (물 량)	1,510 (0.6)	844 (24.1)	971 (17.1)	1,815 (20.2)	1,102 (30.6)	1,165 (20.0)	2,267 (24.9)
수 출 (금 액)	13,750 (11.9)	8,047 (34.1)	9,386 (20.3)	17,433 (26.8)	10,987 (36.5)	11,638 (24.0)	22,625 (29.8)

주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측 강화로 2004년 수입은 전년비 9.8%가 증가할 예상

- 일본 자동차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3) 정책건의

□ 세제 단순화 및 세율 조정

- 우리나라 자동차관련 세제(12개)는 미국과 독일의 각각 4개와 일본의 7개에 비해 많은 수준
 - 현재 7개의 국세와 5개의 지방세가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행정편의 주의로 인해 중첩
 - 자동차 구매시 공채매입 제도 개선과 서로 다른 명목으로 3단계에 걸쳐 중복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 개선
 - 교육세는 자동차특소세, 자동차세, 유류특소세에 부과중
 - 과중한 소형차(1,500cc) 세금부담의 완화
- 특소세의 단계적 인하와 장기적 철폐
 - 전술한 교육세의 단순화와 주행세로의 전환을 위해 유류

〈표Ⅱ-6〉 1,500cc 차량의 1년 운행 세금 비교

단위 : 만원, %

	한 국	일 본	독 일	미 국
세 금	343	208	213	69
비 율	100	60.6	62.1	20.1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특소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미래형자동차 개발 촉진

-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유도를 위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는 세제 인센티브의 도입

부품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촉진

- 부품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모듈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기업간 인수합병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

2. 조선산업

(1) 상반기 동향

연이은 수주 호조로 세계 1위 유지

- 세계시장의 호조세 지속으로 주력선박인 컨테이너선, 탱커 및 LNG선의 수주 점증
 - 후반기가격의 급등으로 건조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나 선가의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조선업체들의 기록적 수주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실적호조를 보여 수주량의 경우 4월 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한 642만 CGT를 기록했고, 특히 고부가가치선인 LNG선의 수주가 작년 전

체의 수주량인 12척에 근접한 11척으로 나타나 금액대비 증가율은 약 35.8%에 달했음.

- 선종별 수주실적은 탱커 97척, 240만 CGT, 벌커 3척, 7만 CGT, 컨테이너선 70척, 260만 CGT, LNG선 11척, 81만 CGT, 기타선박 54만 CGT 등으로 나타남.
- 건조량은 4월 말 기준 306만 CGT, 약 43억 달러로 금액기준 증가율이 약 7.4%로 나타났고 수출(통관기준)도 약 5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5%의 증가를 보임.
- 앞으로 충분히 확보된 안정적 일감을 바탕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선별적 수주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영향으로 해운시황이 위축되어 선박발주가 감소하면 기존의 수주패턴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추세들을 감안할 때 수주된 일감의 건조일정에 따라 조선산업의 2004년 상반기 생산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약 70억 달러로 예상됨.

(2) 하반기 전망

1) 조선산업의 여건변화

- 해운시황은 선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호조세
- 2월까지 최대 호황을 보이던 드라이 벌커시장의 경우 3월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했으나 하반기엔 다시 회복 예상

- 호주의 3월초 호우 영향으로 인한 철광석 생산 및 운송 중단사태, 남미지역의 가뭄 및 호우에 따른 곡물출하 지연으로 최근 벌크 시황이 냉각되었음.
 - 이러한 기후에 의한 영향은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투자억제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철광석 업체들은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에 따라 증가된 재고소진에 주력하고 있어 하반기까지 중국의 철광석 수요급증은 어려울 전망이다.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세 및 중국의 각종 원자재 수요에 따른 물동량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2005년까지 호경기가 예상됨.
- 탱커의 경우 원유재고가 낮은 미국과 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시황이 관건
- 하반기 초에는 석유 비수기로 물동량의 일시적 감소가 예상되나 세계경기의 회복추세,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 원유 수요 증가, 미국 및 OECD 국가의 낮은 재고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복 과잉의 우려가 있으나 물동량 증가로 최고의 운임수준 유지 등 호조세 지속

- 향후 2~3년간 신조선 대량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다소 선복과잉이 우려되고 있으나 세계경기의 성장세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당분간 호조세 지속이 예상됨.

□ 선종별 해체는 해운시황 및 선복량에 따라 다소 증가

- 벌커의 경우 선박 인도량 증가, 해운경기 안정화 추세에 따라 노후 선박의 해체 증가 예상
 - 케이프사이즈 및 파나막스급의 선박해체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후선의 비중이 높은 헨디사이즈급의 해체는 증가할 전망이다.
- 탱커의 선복량은 전년대비 약 3.9% 증가가 예상되나 VLCC의 해체는 감소 예상
 - VLCC의 운임률이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해운시황의 호조에 따라 동 선형의 해체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수에즈막스, 아프리카막스 및 파나막스 등의 선형은 주요 대상지역의 원유수요 감소, 운임하락 등의 요인으로 해체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VLCC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석유수요 증가, 선박의 인도량 감소, 선진국들의 낮은 재고 등의 요인에 따라 시황의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국제적 안전규제 강화 등의 추진으로 지속적 대체수요 예상

- 탱커의 경우 좌초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이중

선체가 의무로 추진

- 특히 2002년 10월에 발생했던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준미달선박 및 단일선체 탱커의 자국내 정박을 금지하고 있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도 단일선체 탱커의 퇴출 시한을 앞당겼음.¹⁾
- 이에 따라 퇴출 탱커의 대체물량이 2010년 이전부터 2015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벌크의 경우도 신조는 이중선체 의무화가 추진²⁾

-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양오염 최소화 움직임과 함께 선박사고 저감 노력은 화주, 선주 및 보험기관, 각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벌크선의 안전규정을 하반기에 공식 채택하여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신조 벌크선은 의무적으로 이중선체로 건조해야 함.

1) 제50차 IMO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단일선체 탱커의 퇴출시한을 2010년으로 앞당기기로 하고(2010년 기준 선령 20년 미만인 단일선체 선박은 CAS:Condition Assessment Scheme를 시행하여 통과할 경우 2015년에 퇴출)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음.

2) 이중선체 의무화 방안은 3년에 걸친 형식안전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후 안전운항 및 운항비용 절감을 들어 영국이 발의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IMO가 마련한 규정임. 다수의 벌크선을 보유한 국가들(그리스, 일본 등)의 경우 이중선체에 소요되는 건조비 및 연료비 증가, 선박 검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시행이 예상되고 있음.

□ 정기항로선박의 대형화 및 다량 투입 추세

-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항로별 투입선박의 대규모·대형화 추세 가속
 - 아시아-미국항로, 아시아-유럽항로의 경우 2010년까지 7,5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약 300여척 투입되어 운항될 예정임.
 - 현재 각 항로에 투입되어 있는 7,5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30척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7년 140척, 2010년 300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계의 선종별 수주잔량은 화물선의 경우 크게 증가

- 향후의 생산 및 수출을 의미하는 수주잔량의 경우 1/4분기 기준 화물선은 약 52.4% 증가하였으나 크루즈선 및 Offshore는 11.1~26.7% 감소
 - 선종별 수주잔량은 탱커 2,170만 CGT로 전년동기 대비 27.6% 증가하였고 벌크선은 1,210만 CGT로 47.6% 증가함.
 - 특히 벌크선의 경우 VLOC(Very Large Ore Carriers)의 발주 등으로 초대형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대형선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컨테이너선은 약 2,300만 CGT로 전년동기 대비 1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스운반선도 620만 CGT로 19.2% 증가하였음.

-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 7,5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수주잔량기준 국내 조선소들의 점유율이 약 80%로 나타나고 있음.
- 가스운반선 가운데 LNG선은 2020년까지 신조선 수요가 연평균 약 11척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에는 과거 최고 수주량인 2001년의 22척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금년내 발주될 예정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카타르 RasgasII향 14.5만cbm급 8척, 카타르 카타르 가스 II향 20만cbm급 8척, 나이지리아 LNG 향 14.5만 cbm급 6척, 사할린 향 14.5만cbm급 최대 2척 등임.
- 그러나 크루즈선의 경우 약 220만 CGT로 26.7% 감소하였고 Offshore의 경우도 약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크루즈선의 경우 향후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어 크루즈선 사들이 선대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의 이슈가 될 전망

-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조치는 사내 하청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조선산업에도 영향파급 가능

- 조선산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 신분은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사원으로 되어 있어 법적 기준에서 비정규직은 아님.
-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대우(임금) 요구에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함.
- 각 작업공정을 각 하도급업체에 위임하는 특성측면에서 본다면 건설업과 유사하나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정기적/반복적으로 노동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 하도급업체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조선소 정규인력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제조원가의 약 25%에 상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가격경쟁력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가능성 희박

- 조선산업의 경우 경기호조세의 지속으로 산업 공동화를 야기하는 해외직접투자는 주된 이슈가 아닐 뿐 아니라 국내업계의

<표Ⅱ-7> 조선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			
없음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해외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

○ 따라서 향후 1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의 가능성은 전무

- 일부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경우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대중국투자를 모색하고는 있으나 수요기업인 조선업체들의 기술유출 우려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보임.
- 향후 10년 이후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후발국인 중국에 비해 뒤지기 시작하면 세계조선의 생산비중이 많은 부분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있으나 국내업체의 해외이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생산성 제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증가 예상

○ 국내 조선소들의 경우 최대 수주물량의 확보로 도장, 용접 등 노동집약부문의 자동화 추진, 생산량 증대를 위한 육상 건조 모색을 위한 투자 추진 예상

- 육상 건조는 도크의 여유가 없어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대의 경우 Aframax 탱커, 대우의 경우 Capesize 벌크캐리어, STX의 경우 제품운반선의 건조에 적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이외에도 안벽 및 기반시설 확충, 생산과 설계의 일체화, 자원 최적화, 새로운 건조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Ⅱ-8〉 조선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유형	투자 예상	이유
설비투자	△	최대 수주잔량으로 건조설비 부족 → 육상건조설비 확충(대규모 투자는 한계)
연구개발투자	△	신선형 개발, 새로운 건조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활발
총 투자	△	건조량 증대 대응 시설 확충, 신선형/건조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 지속 (대규모 투자는 한계)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 그러나 설비투자의 경우 과잉설비에 대한 국제적 논란, 통상마찰 등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투자는 어려울 전망이다.
- 한편 국내 업체들의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크게 늘면서 동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
- LNG선을 비롯, LNG-FPSO, 대형 여객선, 해양플랜트 등의 수주 및 건조에 대비하고 나아가 각종 해양구조물, AUV³⁾, ROV⁴⁾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분한 조업물량 확보로 단기적으로 안정 조업 예상
- 조선산업의 여건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긍정적 요인은 총

3)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4) Remotly Operated Vehicle.

<표 II-9> 조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 산	- 생산성 향상 및 공법개선 - 충분한 건조물량 확보(약 3년치)	- 환율절상(수익 악화)
내 수	- 선박편드의 원활한 추진 - 해운업체의 시황호전	- 해운업체의 보유선박 감소 - 원근해 어업 침체
수 출	- IMO 단일선체 운항금지, 기준미달선 규제 강화로 선박해체 증가 - 세계경기 회복/해상물동량 증가	- 노후선박 대체 감소 - 중국 조선소의 경쟁력 제고
투 자	-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 - 신선형/신공법개발을 위한 R&D 투자	- 세계적 설비과잉 논란
총 합 평 가	- 단기적으로 안정적, 큰 여건변화는 없음(3년치 건조물량확보) - IMO의 단일선체 탱커 퇴출의 조기시행으로 대체물량 조기발주 예상 - 육상 건조설비 투자, R&D투자 활발 전망	

분한 물량확보로 생산성 제고 및 공법개선 활발, 해운업체의 시황 호전, 해상물동량 증가, 투자 활발 등

- 부정적 요인은 중국 조선소의 부상과 국제적 과잉설비 논란이지만 과거부터 진행되어오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은 미미함.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작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주요 원자재인 후판의 가격급등으로 수익성 악화
 - 대표적인 원자재인 후판의 제조원가 비중은 약 18~20%

〈표Ⅱ-10〉 주요 여건변화가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 인 별	부문별	영 향	원 인
중국의 긴축정책	수 출	○	중장기적으로는 물동량 감소시 수주 감소로 영향 가능
	수 입	○	없음
	해외투자	○	거의 없음
유가상승	수 출	단 기:○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원유수요 감소→탱커 수요 감소→발주량 감소로 수출 큰 폭 감소 가능(1, 2차 오일쇼크 때)
	내 수	단 기:○ 중장기:▽	거의 없으나 중장기적 감소 가능
	수 입	○	거의 없음
	생산비용	△	간접적으로 자재단가 상승
기 타 원자재가격상승 (철강재:후판)	수 출	단 기:○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으나 세계 공통의 현상이면 영향이 적을 수 있음.
	생산비용	▲	생산원가의 18~20% 차지
원화환율 절상	수 출	▽(○)	경쟁국의 환율 동반 절상시 영향 상쇄
	수 입	○	수입이 거의 없음 (기자재수입은 다소증가 가능)
	생산비용	○(▽)	수입 기자재의 단가 인하 가능성

주: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로 후판가격 급등에 의한 영향(원가대비 약 9.3% 상승 추정)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후판가격은 POSCO 출고가 기준 2001년 말 37만 2,100원/톤에서 2004년 4월 54만 5,000원/톤으로 46.5%가 상승했음(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동국제강의 경우 더 큰 폭 상승).

- 특히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은 최저 선가 시점에서 수주된 것으로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됨.
 - 전 세계적으로 신조수요의 급증으로 후판수요가 크게 늘어나 후판공급물량 부족 및 후판가 급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철강의 다른 제품(열연코일을 중간재로 하는 열연/냉연제품 등) 수요가 감소하면 후판 공급량이 증가될 수 있고 이는 후판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긴축에 의한 단기적 수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중국 수출은 조선산업 전체 수출의 0.2%인 2,356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고 이번 조치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기과열로 촉발된 해운시장의 활황으로 운임 급상승, 일시적 선박량 부족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긴축정책으로 해상물동량 감소가 유발된다면 해운시황의 퇴조가 예상되고 이는 선박의 중장기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선박의 중장기 수요감소는 신조 발주량 감소를 의미하며 우리 조선산업의 경우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임.
- 유가상승에 의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장기로 이어지거나 폭등할 경우 심각한 영향 가능
- 중장기적으로 원유 수요감소는 우리의 주력 선박 가운데

하나인 탱커수요 감소 및 발주량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세계경기의 침체는 해상물동량 감소 및 모든 선박의 발주 감소로 이어져 선박수출의 큰 폭 감소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음(제1, 2차 오일쇼크 이후 선박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원화 환율의 절상은 가격경쟁력 하락요인이나 경쟁국 환율의 동반절상시 상쇄 가능

- 통상 원화절상시 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절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경쟁력 하락의 상당부분은 상쇄되는 것으로 평가됨.

□ 특수분야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부족 애로 지속

- 인력 수급 불균형, 특수분야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어 현장기술의 단절 우려

- 해양플랜트 관련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장부문 등은 3D직종으로 인식되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특정부위 근육의 과다 사용에 의해 초래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분류체계, 판정기준의 일관성 미흡 및 전문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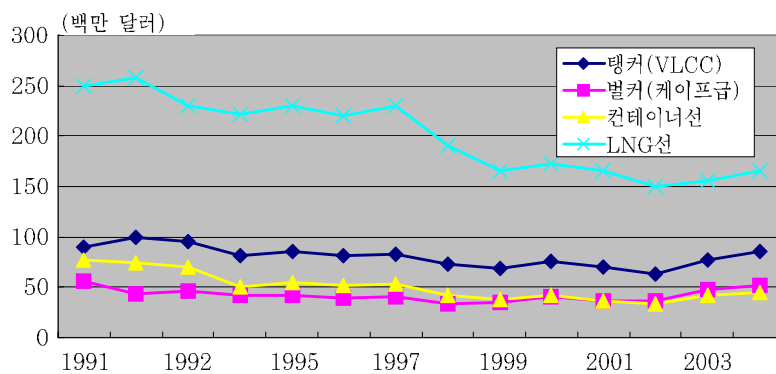
3) 조선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2002년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선박의 발주물량 증

가와 함께 꾸준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조선가도 지속적 상승추세 예상

- 신조선가는 2004년 5월 말 기준 VLCC의 경우 약 9,000만 달러로 상승하여 최저수준 대비 4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컨테이너선의 경우도 선복 수급상황 개선과 물동량이 늘면서 3,5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선가가 최저수준 대비 45.5%의 상승률을 보였음.
- LNG선의 선가도 작년 연말부터 상승추세를 보여 최저수준 대비 12.7% 상승하고 있는 등 전 선종에 걸쳐 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신조선가의 상승은 강재를 비롯한 자재비의 상승에 따른 건조비용 상승, 해운시황의 호조 유지 예상, 단일선체 탱커의 퇴출 및 LNG선 대형 프로젝트 증가 등 건조수요 증가, 2003년 대량수주에 따라 납기에 여유가

<그림 II-1> 신조선가 추이



없어진 점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예상

- 2003년의 수주실적 및 수주잔량이 사상 최대규모를 보임에 따라 2004년에는 고부가가치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예상
 - 세계 조선시장의 발주규모가 중국의 긴축정책 여파 등으로 2003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LNG선의 발주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수주 감소, 생산 및 수출은 증가

- 2004년의 선박 수주는 2003년의 초호황세에 비해 발주규모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수주물량은 감소할 전망
 - 2003년의 대폭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이미 3년간의 건조일감을 채웠고, 세계시장의 발주감소가 예상되므로 2004년의 수주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Ⅱ-11〉 조선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10,793 (9.3)	6,192 (20.4)	5,010 (1.5)	11,202 (3.8)	7,032 (13.6)	5,020 (0.2)	12,052 (7.6)
수 출	10,672 (10.0)	6,165 (22.8)	4,939 (1.1)	11,104 (4.1)	7,028 (14.0)	5,004 (1.3)	12,032 (8.3)

주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 한편 생산 및 수출은 그동안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전년보다 더 증가할 전망
 - 2004년 하반기의 조선산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한 약 50억 2,000만 달러, 수출은 1.3% 증가한 약 50억 400만 달러로 예상됨.
 - 따라서 2004년의 조선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0억 5,000만 달러, 수출은 8.3% 증가한 120억 3,000만 달러로 추정됨.
- 국내 조선산업은 가격 경쟁력 우위는 물론 기술·생산성·품질·납기·A/S 등 비가격 경쟁력에서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종합 경쟁력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전망

(3) 정책건의

- 후판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방안 제시
 - 후판은 조선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로서 원가비중이 18~20%에 달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체계 필요
 - 특히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2년으로 계약이후 건조기간 동안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영향요인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안정적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념 및 기준 정립

- 조선산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중은 약 50%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
 - 업체별로 동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조선산업 기능인력의 상당부분이 사내 하청업체 인력이므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여 노사 내지 노노갈등이 현재화되면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홍보하여 산업현장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 비사고성(근골격계 질환 등) 재해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조사 전문기관 설립 방안

-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장기간 동일 작업의 수행으로 특정 부위에 무리가 가면서 발생하는 비사고성 질환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은 미흡
 - 질환예방을 위한 작업장 설비 및 작업방식의 개선은 기업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범산업적으로 발생하는 비사고성 재해인 만큼 정부의 체계적 대처가 필요함.
 - 특정부위 근육의 과다 사용에 의해 초래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분류체계, 판정기준의 일관성 미흡 및 전문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일반기계산업

(1) 상반기 동향

- 생산 견실한 호조세, 수출은 급격한 신장세 유지
- 국내 기계수주는 2004년 1/4분기 기준 민간 및 공공부문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여 2004년 1/4분기 기준 81.5%를 나타냄.
 - 국내 기계수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일반기계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력업 등에서 증기발생보일러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반도체장비의 발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의 경우 대선자금수사,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압력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호조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계수주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일반기계산업의 1/4분기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8%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 및 이라크를 중심으

로 한 해외수요의 증가와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긴축정책 실시 및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고조와 대내적으로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증가세는 둔화되어 상반기까지 5.8% 증가한 27조 5,000 억원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품목별 생산동향은 건설광산기계가 전년동기 대비 47.6% 증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장비와 금속공작기계가 각각 39.3%, 21.0% 증가한 반면 냉동공조기계는 11.5%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3월 말까지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한 48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6.7% 증가한 48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약 1,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냉동공조기계가 22.7% 증가한 74억 8,000만 달러, 건설광산기계가 53.3% 증가한 5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한편 수출증가율 면에서는 용접기, 유리·요업용기계, 산업용로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47.5% 239.9%, 192.0%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수입은 풍수력기계가 23.9% 증가한 49억 2,000만 달러, 금속공작기계가 28.3% 증가한 46억 2,000만 달러, 기관 및 터빈제품이 14.0% 증가한 3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섬유기계와 식품가공기계는 각각 41.7%, 35.1%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한편 2004년 상반기까지의 수출입을 전망해 보면 세계경기 회복세 및 중국 서부대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의 지속적 수행에 따른 건설기계류 수출확대 등으로 인하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0% 증가하여 96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핵심기계설비류 수입확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9.0% 증가한 95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1/4분기 지역별 수출 동향은 미국이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한 38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에서 24.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101.0% 증가한 28억 2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수입의 경우 일본이 전년동기 대비 41.8% 증가한 43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물량의 38.1%를 차지하였으며 미국과 독일, 중국이 각각 20억 3,900만 달러, 12억 4,700만 달러, 12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2) 하반기 전망

1) 일반기계산업 여건변화

□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른 생산 증가세 유지

○ 2003년 이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관련업계의 채산성 악화 등의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생산감소는 내수경기 회복으로 만회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회복세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수출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 이후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지속적인 증가세 및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업들의 자동화 및 합리화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일반기계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노사관계의 악화에 따른 조업중단기간의 장기화,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기업의 사업철수 등으로 인하여 생산이 감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반 증가세 유지

○ 일반기계산업의 해외생산은 범용기종 위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등 투자대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과 판매시장의 확대에 기인함.

<표 II-12> 일반기계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

- 범용기종 위주로 투자
- 중국 등 투자대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과 판매시장의 확대
- 특히 휴대폰, PDP, 자동차부품업체의 이전에 따른 동반 투자 확대

- 2003년 3월 현재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637건, 금액은 4억 8,628만 달러를 기록

- 기계·장비산업의 대중 투자가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 4.7%, 금액기준 6.0%이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22만 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산업의 해외생산은 주요 수요업체인 휴대폰, PDP, 자동차 부품업체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 해외 생산이 점증하고 있으나 수출 증가에 따른 국내생산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공동화 현상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음.

□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될 예상

○ 2004년도 하반기 내수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나 긍정적 요인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전

년동기 대비 6.2% 정도의 견실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총선 및 대통령 탄핵기각 이후 정계와 재계의 신뢰구축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 등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예상된다
 - 부정적인 요소로는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로 보수적 투자 심리 고조, 꾸준한 신용불량자 증가, 높은 실업률,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가 내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한편 지난해 하반기 -2.1%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 상반기 1%대로 상승하여 민간소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가계의 실질구매력도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하반기 들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하반기 수출증가세 둔화 예상
- 올 하반기 이후 중국의 경기조절로 인해 수출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일반기계제품의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지역으로 수출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2004년 1/4분기 일반기계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제긴축정책 발표로 수출전선에 일시적인 먹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

반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고성장 이면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 중복 투자 심화, 과도한 통화 유동성, 수입의 폭발적 증가 등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중국 총리가 긴축경제정책을 발표
- 한편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지방투자 추진 정책이 지속되거나 금융시스템 불안이 표면화되는 등의 요인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나타날 경우 수입수요 또한 줄어들어 우리 일반기계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경제도 부동산 과열, 과도한 가계부채, 고질적인 무역적자 등 경제 기초여건이 건실하지 않아 지금의 경기호조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범용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만 및 중국 등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요인도 수출증가세 둔화를 가중시킬 것임.
- 기계설비류 수입 증가율 둔화 전망
 - 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 등 국내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핵심기계설비류 수입의 확대가 예상되며, 또한 국내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로 한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어 일반기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유가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자재부족으로 인해 수입수요 하락 요인도 상존할 전망
 -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로 인하여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재무적 압박으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수입 감소요인이 상존

□ 생산능력 및 자동화 설비투자 확대 예상

- 디스플레이산업(특히 PDP 등), 자동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장비·부품업체들까지 투자확대가 나타나 일반기계 가운데 공작기계 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업체들의 신규발주가 늘어나는 점도 일반기계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

〈표Ⅱ-13〉 일반기계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 예상	이 유
설비투자	△	- 생산능력 및 자동화 투자 확대
연구개발투자	△	- 신제품 개발 확대
총투자	△	-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예상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표II-14> 일반기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조 · 2004년 1/4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세 유지 · 기업들의 자동화 및 합리화 투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 우려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전망 · 2004년 1/4분기 국내기계수주 전년동기비 18.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로 보수적 투자 심리 고조 우려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기 회복세 · 개도권 수출세 지속 전망 · 중국 서부대개발 등 대형프로젝트 지속 예정에 따른 건설기계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만, 중국과의 경쟁 확대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채산성 악화로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 우려 · 유가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및 자동화투자 확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불안 심리로 인한 투자 위축
총 합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의 수출 여건 호조 · 특히 중국의 경우 건축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부대개발, 동북지역 노후공업지역 재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계획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수출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수출 여건 호조세 지속 전망 · 제조업의 설비투자 확대 전망으로 일반기계산업의 내수 호조 예상 	

- 특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왔던 수출호조세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설비투자용 내부자금을 비교적 여유있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원화가치 절상 및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른 금융여건도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에는 설비투자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수출중심의 대기업들의 경우 설비투자를 선도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다소 불안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일반기계산업의 설비투자의 경우 설비능력 및 자동화 투자 확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등의 요인으로 전체적으로 일반기계분야의 총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은 일반기계산업에 큰 영향 없을 듯
 -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일반기계 수출은 32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1/4분기 중에는 전년 동기비 58.2% 증가한 10억 8,500만 달러를 기록
 - 대중 수출비중은 2002년 16.5%, 2003년 21.1%, 2004년 1/4분기 중 22.2%를 기록
 - 중국의 긴축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므로 일반기계류의 대중 수출은 현추세를 유지하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서부 대개발, 동부지역 노후공업지역 재개발, 베이징올림픽 특수 등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들은 계획대로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인 건설기계의 수출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
 - 중국의 섬유산업분야는 과잉생산능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대중국 섬유기계의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공작기계의 경우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철강 등이 중국이 지목한 과잉투자 5개 업종에 포함되어, 이 분야에 신규대출이 억제될 경우 공작기계의 대중국 수출이 다소 감소 우려
- 2003년 3월 현재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637건, 금액은 4억 8,628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계·장비산업의 대중 투자가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 4.7%, 금액기준 6.0%이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22만 달러 기록
- 대중국 일반기계 투자는 지역재개발 등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 현 추세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 건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유가상승은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

- 유가상승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반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상승세가 장기간 지속 되면 일반기계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참고로 산업연구원의 유가상승에 따른 업종별 중간투입비용의 상승 분석자료에 의하면 일반기계의 경우 연간 유가 11.5% 상승시 중간투입비용 상승이 0.301%로 나타나 타업종에 비해 영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또한 유가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반기계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관련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연결되어 일반기계산업의 내수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원자재는 철강제품인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일반기계업계에서는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부품업체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 원자재난이 언제 재연될지 모르는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는 실정임.

<표II-15> 주요 여건변화가 일반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 인
중국의 건축정책	수 출	○	-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업지역 재개발 등 대형프로젝트 지속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별 영향이 없음
	수 입	○	- 단기적으로 별 영향이 없음
	해외투자	▽	- 대중 투자의 경우 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감소 우려
유가상승	수 출	○	- 단기적으로 별 영향이 없음 -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가격경쟁력 악화로 수출 둔화 예상
	내 수	○	-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음 - 장기적 관점에서는 설비투자 위축으로 내수감소 예상
	수 입	○	-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으나 장기화될 경우 수입 감소 예상
	생산비용	△	- 기업 채산성 악화 요인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철강)	수 출	○	-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에 별 영향 없음 -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우려
	생산비용	○	-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음 -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출품에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 수출 채산성 악화 우려
환 율	수 출	○	- 일본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기계 등의 경우 원화에 비해 엔화의 절상폭이 상대적으로 커, 중국, 동남아지역 등지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우위
	수 입	○	-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에 구매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별 영향이 없음
	생산비용	○	- 일본산 부품 장착의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원화에 비해 엔화의 절상폭이 상대적으로 커 생산비용 압박요인으로 작용

주: 1)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품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요부진으로 전가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한편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출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
- 환율변동으로 인해 우리 일반기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듯
 - 수출 측면에서는 일본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기계 등의 경우 원화에 비해 엔화의 절상폭이 상대적으로 커, 중국, 동남아 지역 등지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우위가 예상됨.
 - 수입측면에서는 가격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에 구매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일반적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산 설비도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수입설비보다 국내산 기계류 도입이 증가하고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임.
 - 일본산 부품 장착의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원화에 비해 엔화의 절상폭이 상대적으로 커 생산비용압박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메카트로닉스 등 핵심기계류·부품 등이 이에 해당됨.

3) 일반기계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내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하반기 생산은 6% 상회 예상

○ 하반기 생산은 수출호조, 생산능력 및 자동화 투자 확대로 인한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하반기 생산증가율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하반기 생산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 PDP 및 자동차업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상반기의 지속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하반기 일반기계 생산액은 27조 7,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기준으로 5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생산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중국으로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설광산기계, IT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 공작기계 등의 품목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

□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 호조로 수출 18.4% 증가율 예상

○ 중국 수출의 경우 최근 긴축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경제성장이 8%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므로 하반기

기 일반기계류의 대중 수출은 현 추세를 유지하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다만, 공작기계류의 경우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철강 등이 중국의 과잉투자 5개 업종에 포함되어, 신규대출 억제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투자된 섬유기계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수출은 규모면에서 볼 때 상반기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전년동기비 18.4%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회복세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가 불안 요소, 대만·중국 등 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심화 등 수출증가율 둔화 요인도 상존함.
- 하반기 내수 5.8% 증가 예상
- 일반기계 하반기 내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관련 수요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에 크게 작용하여 전년동기비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IT 산업, 자동차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II-16> 일반기계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49,506 (9.6)	25,998 (5.4)	26,132 (5.1)	52,130 (5.3)	27,506 (5.8)	27,752 (6.2)	55,258 (6.0)
수 입	12,523 (12.5)	7,568 (33.2)	8,052 (17.7)	15,620 (24.7)	9,611 (27.0)	9,448 (17.3)	19,059 (22.0)
내 수	49,535 (9.4)	26,178 (8.0)	26,241 (3.6)	52,419 (5.1)	27,555 (5.2)	27,780 (5.8)	55,336 (5.5)
수 출	12,502 (12.7)	7,417 (23.2)	7,960 (22.8)	15,377 (23.0)	9,568 (29.0)	9,423 (18.4)	18,991 (23.5)

자료 : 통계청,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료를 이용 산업연구원 전망.

주 : 1) 생산 및 내수는 원화 기준이고, 수입 및 수출은 달러 기준임.

2)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 한편 내수의 부진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일반기계 중소기업체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설비투자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임.

- 특히 기업대출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추가대출을 꺼리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하반기 수입증가율 둔화 예상

- 하반기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7.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94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근 관련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업체들의 경우 수입용 설비 도입보다는 국산설비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반도체 제조장비, 메카트로닉스 등 핵심기계류·부품의 경우 관련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기타의 경우 국산 기계류·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정책건의

- 정부간 협력강화를 통한 중국시장의 지속적 확대와 수출 및 투자선 다변화 필요
 -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건설기계 등의 시장 확대 적극 추진
 - 대중국 수출액 중 건설기계 점유율을 보면 2003년 17%, 2004 1/4분기 중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굴삭기의 경우 중국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
 - 한편 중국 경제의 경착륙시 국내 일반기계류의 수요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금형산업 등의 산업 또한 중국의존도가 크므로 이들 산업이 중국건축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국내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공작기계류의 경우 대중국 수출비중이 40% 내외로 나타나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시 타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책 및 내수의 투자 확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중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중국정책 및 일반기계산업정보 등 대중국 해외투자관련 정보체제 구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인도 등 여타 BRICs에 대한 투자 진출을 모색하거나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 및 투자선의 다변화 적극 추진
- 상호간 니즈(needs)에 부합한 해외 선진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선진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내 일반기계업체의 공백을 보충해 나가야 할 것임.
 - 해외 선진기업들의 생산기지와 연구개발기지 이원화 전략에 따른 핵심부품 및 R&D 센터로서의 역할 제고
-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가속화
 -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품·소재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한국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술개발과제가 완료될 경우 관련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관련 수요기업의 구매보증 등 가시적인 효

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생산인력의 고령화 대책 마련 필요

- 일반기계업체의 생산현장 기피,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높은 이직률 등에 따른 생산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4. 철강산업

(1) 상반기 동향

□ 내수는 수요산업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

- 2004년 상반기 철강 명목소비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3.6%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
 - 2004년 1/4분기 철강소비는 부동산 투기억제로 철근·형강 등 봉·형강류의 소비는 2.7% 감소한 반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판재류의 소비는 11.1%의 큰 폭 상승
 - 1/4분기의 기조가 2/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철근, 형강 등 봉·형강류의 부진 속에서도 수요산업의 수출호조로 판재류는 호조세 지속

- 상반기 생산 역시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2.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
 - 1/4분기 철강재 생산은 철강재 가격급등과 수출을 포함한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비능력의 한계와 원자재 구득난으로 3.6% 증가에 머물렀음.
- 중후판과 아연도 강판 수입이 대폭 늘어나며 철강재 수입증가 견인
 - 상반기 철강수입은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수요산업의 생산 호조와 이들 산업에 소요되는 강재공급 부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 14.6%의 증가율 기록
 - 2004년 1~4월 중 철강수입은 국내 원자재 수급난을 겪고 있는 조선용 중후판의 수입이 261%로 큰 폭 증가하였고, 아연도 강판도 108% 증가하며 전체 철강수입증가 견인
 - 수출은 국내 공급이 부족한 핫코일과 중후판을 제외한 전 품목이 늘어나며 12.5%의 증가율 기록 전망
 - 국내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봉·형강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판재류 수출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철강재 가격이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조정 단계에 진입
 - 2002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던 국제 철강재 가격

이 금년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 지속

- 우리나라 철강재 수입평균 가격은 2002년 상반기 : 328달러 → 2002년 하반기 : 367달러 → 2003년 상반기 : 399달러 → 2003년 하반기 421달러 → 2004년 1월 : 445달러 → 2월 : 510달러 → 3월 : 501달러 → 4월 : 547달러

○ 그러나 지난 4월 중국이 긴축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 철강재 가격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5월에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

- 중국의 연착륙에 대한 견해가 우세해지면서 철강재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어 강재 가격하락이 멈추고 다시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됨.

(2) 하반기 전망

1) 철강산업의 여건변화

□ 세계경제의 호전에 따른 수요산업의 수출증가로 판재류 수요는 안정적 성장

○ 하반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미증하고 설비투자도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철강수요는 어느 정도 개선될 소지를 지니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5.3%에서 5.5%로 증가하고 총고정자본형성도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5.6%로 개선 전망

- 그러나 철강의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은 수출호조로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철강소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 하반기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은 2004년 4월 현재 지난해보다 25.8% 감소하였고, 건축물 착공면적도 12.7% 감소하였음.
 - 반면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산업생산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에 힘입어 6~7%의 비교적 높은 성장 예상

□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 전망

- 중국의 긴축정책 추진, 미국·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유가 지속 등으로 하반기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상반기보다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의 긴축정책이 철강산업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의 긴축정책은 철강재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철강재 수요감소, 가격 조정 등의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중국은 이번 조치가 일부 과열 전자재의 수요억제와 가격하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철강재 전반에 걸쳐 수요와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음.

-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리인상의 경우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음.
- 금리인상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하락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주요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러한 요인이 서로 상쇄되면서 그 영향이 상당히 감소됨.
- 고유가는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 전반적인 경제성장둔화를 가져와 철강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일관제철의 경우 유가 인상에 대한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지만 전기로업체의 경우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 인상분이 모두 제조코스트에 전가될 가능성이 큼.

□ 하반기 철강재 가격은 하향 안정세 예상

-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철강재 가격이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조정국면으로 진입.
- 국제 철강재 가격은 2001년 12월 195달러에서 2003년 373달러로, 그리고 금년 4월 495달러로 지난 2년여 동

안 약 2.5배나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에 근접

○ 그러나 하반기의 철강재 가격은 현재의 철강재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 중국의 긴축정책 영향이 하반기 철강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과열 양상을 보인 상반기보다는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지의 경기회복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철강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철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 한보철강의 매각으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 지난 5월 한보철강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으로써 IMF 이후 부실기업 처리를 통해 추진해 온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

- 한보철강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INI Steel과 현대 하이스코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음.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양사가 한보철강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그 동안 포스코가 독점해 온 국내 핫코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 국내 핫코일 생산능력은 총 2,343만톤 중 포스코 2,163만톤, 한보철강 180만톤이나 한보철강의 핫코일 설비가 가동 중단상태여서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생산

□ 대중국 투자 점차 대형화 추세

- 중국의 철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수요가 둔화하면서 철강업체들은 대중국 시장확보 및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래 철강업계의 대중국투자는 21건이며 투자 규모는 8억 200만 달러에 달함.
- 그러나 대중국 투자는 섬유, 기계 등과 같이 국내 생산업체의 이전이 아니고 대부분 신규투자이며, 하공정 즉 가공설비에 대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으로 오면서 대중국투자가 하공정의 단순가공설비 투자에서 점차 상공정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임.
 - 포항제철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INI Steel의 형강설비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추진되고 있음.

<표II-17> 철강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			
- 국내 성장둔화에 따른 투자유인 감소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			

□ 상공정과 하공정간의 불균형 심화로 강반제품 및 핫코일 수입 증가

-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상공정과 하공정 간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시 철강원자재인 강반제품 및 핫코일의 수입이 증가
 - 1990년대 후반 원자재 생산설비의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판 및 냉연강판 설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하공정간의 수급불균형이 심화
 - 2000년대 들어 핫코일 수입은 연간 400만~500만톤 수준에 이름.
- 상·하공정간의 수급불균형 심화는 원자재 수급불안과 가격등락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 원자재 수급불안과 가격등락이 증폭되는 요인으로 작용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투자집중

- 철강산업의 투자는 CGL 및 TWB 등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비롯하여 기존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 환경 규제대응 등을 위한 합리화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철강산업의 투자는 2002년 2조 1,000억원에서 2003년 1조 6,000억원(-20.9%)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는 3조 1,000억원(97.8%)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Ⅱ-18> 철강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 예상	이유
설비투자	△	-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 기존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 환경 규제 대응 등을 위한 합리화 투자
연구개발투자	△	- 혁신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총투자	△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표Ⅱ-19> 철강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 산	·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관련 수요 산업 생산증가 ·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수요 지속	· 부동산·건설경기 침체
내 수	· 국내 경제 회복 기대	· 부동산 투기억제로 전자재 수요 감소
수 출	· 선진국, BRICs 등 경기회복	· 중국의 긴축조치로 수출 감소 및 가격 하락 ·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수 입	·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 국내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수요 증가 시 수입 증가
투 자	·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설비 투자 · 연구개발투자 증가	· 중국 등 해외시장진출 증가 · 내수 성장세 둔화
중 합 가	·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국제 철강재 및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 ·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의 수출호조로 철강 수요 및 생산은 견조한 증가세 유지 · 국내 생산능력의 한계로 강반제품 등 철강 원자재 수입 증가	

- 스트립캐스팅, 파이넥스공법개발 등 혁신기술개발과 첨단소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R&D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4년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화가 추진됨에 따라 향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은 수출 및 투자에 영향 미칠 듯

-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억제가 이번 중국 긴축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판재류의 수출은 이번 긴축정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목·건축 등 건설업에 사용되는 봉·형강 등 건자재의 수출은 큰 폭 감소 예상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 철강 수출에서 건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므로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이번 조치에서 신규 및 기존 투자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투자억제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 투자마저 지체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정부는 철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부합한 투자는 장려하지만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함.
- 현재 포스코, INI Steel 등이 기획하고 있는 대규모의 고급강재 생산설비 투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 이번 긴축정책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이 난립된 철강업체들의 퇴출이 이루어질 경우 기 진출한 경쟁력을 갖춘 철강업체들은 영업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도 있음.
- 유가상승은 전기로 제강업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
 - 철강산업은 유가상승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철강산업은 오일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기로 제강업의 경우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가인상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제조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중량물인 철강제품의 해상, 육상수송 시 물류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환율상승은 수입에는 플러스요인으로, 수출에는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
 - 환율상승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산업 으로서는 원자재 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와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 수출 시에는 수출가격 인하효과로 나타남.
 - 철강수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원자재 수입에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로 상당 부분 상쇄 가능
-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중간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수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여도 이를 즉각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움.
 - 특히 전기로 제강업의 경우 고철이 제품원가의 50~60%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상승은 기업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 다가 최근 중국의 구매중단 등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
 - 국제 고철가의 주요 변수는 중국의 수입물량과 CIS의 수출물량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요증가와 CIS의 수출감소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표Ⅱ-20〉 주요 여건변화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 인
중국의 건축정책	수 출	▽	- 중국이 건축정책의 직접 규제 대상 품목으로 삼고 있는 전자재의 대중 수출이 5% 미만이므로 이번 조치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
	수 입	○	
	해외투자	▽	- 이번 조치는 생산이 난립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기존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이므로 일부 대중투자가 지체 또는 중단 예상
유가상승	수 출	○	
	내 수	○	
	수 입	○	
	생산비용	△	- 전기로제강업체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제조 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고철)	수 출	○	
	생산비용	▲	- 고철이 전기로제품 원가의 50~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
환 율	수 출	▽	- 환율상승은 수출에서 원가인상 요인으로 작용
	수 입	▽	-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가하락 요인으로 작용
	생산비용	○	-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출 원가인상 부담을 원자재 수입에 의한 원가하락 요인으로 상쇄

주 : 1)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2) () 안에는 주요원자재 명기.

3) 철강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수요산업의 수출호조로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봉·형강류의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수요산업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소비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도 수출주도형 제조업이 전반적인 철강소비를 주도하면서 철강소비는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2,377만 톤 수준으로 전망

□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수출은 둔화

- 중국의 긴축정책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대중국 철강수출이 다소 위축되어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및 개도국의 수요회복에 힘입어 전체 수출은 약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철강재 수출가격은 정점을 이룬 상반기보다 5~10% 하락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철강수출은 내수가 부진한 봉·형강류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재류는 국내공급 부족으로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하반기 철강 수출증가율은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둔화되어 2.9%의 증가율을 보이며 762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금액 역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11.7% 증가한 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공급이 부족한 중후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수요산업의 호조로 국내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중후판, 아연도강판의 수입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표Ⅱ-21〉 철강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톤,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51,676 (5.7)	26,094 (3.3)	27,175 (2.8)	53,269 (3.1)	26,650 (2.1)	27,760 (2.2)	54,410 (2.1)
수 입	14,164 (31.4)	7,804 (14.3)	7,828 (6.7)	15,632 (10.4)	8,944 (14.6)	8,347 (6.6)	17,291 (10.6)
내 수	43,720 (14.7)	22,382 (5.4)	22,988 (2.3)	45,370 (3.8)	23,188 (3.6)	23,770 (3.4)	46,958 (3.5)
수 출 (물량)	12,951 (-8.3)	6,752 (3.6)	7,399 (15.0)	14,151 (9.3)	7,596 (12.5)	7616 (2.9)	15,212 (7.5)
수 출 (금액)	5,899 (-13.8)	3,650 (34.4)	4,330 (36.0)	7,980 (35.3)	5,074 (39.0)	4,836 (11.7)	9,910 (24.2)

자료 :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산업연구원.
 주 : () 안은 증가율임.

- 중후반의 경우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국내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하반기에도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3) 정책건의

- 원자재의 수급동향 사전 모니터링 및 안정적인 확보방안 강구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급안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의 수요변화에 따라 수급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상존
 - 중국의 경제동향, 정책변화, 철강수급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구매 확대, 공급원의 다변화 추진
- 저급강재 수입급증 가능성에 대한 대비
 - 중국은 봉·형강재의 생산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긴축정책과 부동산 억제책이 지속될 경우 중·저급 전자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 금년부터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중저급 전자재가 대량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
 - 불공정 무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하여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강구 필요

□ 한중 철강산업의 협력 강화

-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중국 철강산업의 정책, 수급동향, 투자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으며 양국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밀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그 동안 양국 철강업체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석유화학산업

(1) 상반기 동향

□ 상반기 내수, 국내 경기침체로 미미한 증가 예상

- 2004년 상반기 내수는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소폭 증가(0.7%)할 전망이다.
- 부문별로 볼 때 합섬원료와 합성고무의 내수는 정체 내지 소폭 하락하고, 합성수지의 내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년 1~3월 내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합섬원료와 합성고무의 내수는 공히 전년동기 대비 1.7% 하락

하였고, 합성수지의 내수는 1.4% 하락하였음.

□ 상반기 수출, 물량과 금액기준 대폭 증가 예상

- 2004년 상반기에 수출은 생산능력과 생산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침체로 물량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1~4월까지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실적은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증가하였음.
 -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유지할 전망
- 2004년 상반기 수출단가는 연초의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납사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적인 수급요인도 다소 호전되면서 2003년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1~4월 중 석유화학제품 대세계 수출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13.8%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대중국 수출단가는 그보다 높은 16.3% 상승하였음.
 - 1~4월 중 수출단가 상승폭은 기초유분, 기타제품, 합성수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렇게 볼 때 2004년 상반기 중 수출금액은 수출물량 증가율을 대폭 상회하는 28.3%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03년 1~4월까지의 대세계 수출금액 실적치는 전년 동기 대비 합성수지는 26.7%, 합섬원료는 58.3%, 합성 고무는 15.1% 각각 상승하였으며, 그 외 기초유분과 중간원료가 각각 25.3%,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30.4%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대중국 수출금액 실적치는 대세계 실적치를 크게 상회하는 51.5%의 증가율을 나타내 중국의 수입수요 급등세를 반영하고 있음.

□ 상반기 생산, 다소 증가 예상

- 석유화학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신·증설 투자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TPA를 비롯한 소폭의 신증설과 공정개선 노력으로 생산능력이 다소 증가하여 7.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 수입,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관산업의 수출호조로 증가 전망

- 2004년 상반기 수입은 내수 부진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2003년 수입물량 감소세에 따른 반등과 연관산업의 수출호조세로 물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10.3%의 증가가 예상됨.
- 2004년 1~4월까지 실적치를 보면 중간원료 및 합섬원료 수입이 각각 12.9%, 10.6% 감소하였으나 기초유분 및 기타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각각 41.7%, 16.0%로 대폭 증가하였음.

- 상반기 수입단가는 수출단가 상승폭보다는 낮지만 전년동기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04년 1~4월 중 석유화학제품 대세계 수입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8.3% 상승하였음.
- 이렇게 볼 때 2004년 상반기 중 수입금액은 수입물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17.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03년 1~4월까지의 대세계 수입금액 실적치는 전년동기 대비 합성수지는 17.2%, 합섬원료는 7.0%, 합성고무는 5.2% 각각 상승하였음.

(2) 하반기 전망

1) 석유화학 산업의 여건변화

- 경기의 상대적 호전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 2004년 하반기에는 수출의 급격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섹터의 상대적 회복이 예상됨.
 - 하반기에 경기회복 움직임과 더불어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연관산업의 상대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주요 중간재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반면, 향후 경기둔화가 지속된다면 합섬원료 및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내수 둔화양상이 심화될 수 있음.

□ 세계시장의 활황세 예상으로 수출증가세 유지

- TPA, PE 등 일부 품목의 시설 증대로 인해 수출 여력이 다소 확대될 전망
- 세계 전체적으로는 납사를 비롯한 기초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및 수요초과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 발표로 하반기에는 중국의 가수요 진정 및 내수위축이 일정수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04년 1/4분기 현재 대중국 총수출의 15%, 총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48%를 차지하며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음.
 - 중국의 자급률(50% 수준)과 용도(상당부분이 수출용 원자재)를 감안할 때 수출물량 변화는 소폭에 그칠 것이나 가수요 진정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경제의 연착륙 조정 실패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세계적인 환경규제 움직임 강화와 중국 긴축정책에 따른 무역마찰 가능성, 주요국의 공급물량 확대 가능성은 한국의 수출여건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주요국의 수입수요 증가와 내수 회복은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해외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국내생산이 정체 혹은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해외생산의 증가가 산업공동화의 징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공동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해외생산의 증가는 주력수출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세계경기 회복세와 맞물린 주요 연관산업의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됨.
 - 하반기 합리화투자 증대와 함께 공정개선 및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세계경기 회복세 전망에 따라 주요수출국의 석유화학제품

<표II-22> 석유화학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			
- 주력 수출시장의 교두보 확보 - 연관산업(전자, 섬유 등)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노력 · 국내생산의 정체는 공동화 영향이라기보다는 산업 발전특성(성숙기 진입)에 맞물린 범용제품 수요정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됨			

의 수입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적으로는 내수의 회복세도 예상되어 생산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반면, 범용제품 수요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신증설 투자의 부재는 생산 증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수입, 내수 회복과 연관산업의 수요증가로 성장세 유지
 - 하반기 내수 회복이 예상되고 연관산업의 수요 증가도 전망되어 국내 수입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수입물량 증가폭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 상반기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수입단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므로 수입금액은 상반기보다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합리화 및 연구개발투자 활발할 전망
 -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충분한 공급여력, 국내경기의 급속한 침체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급속히 감소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충분한 공급여력과 성숙단계로서의 발전단계상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소극적인 설비투자 마인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최근 설비투자의 큰 특징으로는 내용 면에서 생산능력증대를 위한 동기의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자동화, 유지보수, 공해방지 등 합리화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 정보화

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2004년에도 설비투자 면에서 고전을 보이는 대신 합리화나 연구개발 면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II -23〉 최근 국내 석유화학 유형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 억원

	2001	2002	2003
생산 투자	7,364	5,726	6,101
신 설	2,921	2,264	1,561
확 장	4,443	3,462	4,540
합리화 투자	3,087	3,508	4,153
자동화	485	428	513
유지보수	2,051	2,400	2,783
에너지·공해방지	551	680	857
연구개발 투자	545	661	809
정보화	704	480	539
기 타	486	569	658
합 계	12,186	10,944	12,260

주 : 석유화학 영위 대기업 3개사 합계.

〈표II -24〉 석유화학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 예상	이 유
설비투자(신설, 확장)	△(다소 증가)	충분한 공급여력, 범용제품 수요의 포화상태
합리화투자(자동화, 공해방지 등)	▲(대폭 증가)	생산성 향상, 환경규제의 확대 움직임
연구개발투자	△(다소 증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
총 투 자	△(다소 증가)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표Ⅱ-25〉 석유화학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의 공정개선 노력 지속 · 주요수출국 수입수요 증가세 · 내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신증설 계획 부진 · 범용제품 수요의 포화상태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의 경기회복세 예상 · 연관산업의 수요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둔화양상 지속 · 합성원료 및 합성고무의 내수 둔화양상 지속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A 등 시설증대에 따른 수출여력 확대 · 중국경제의 부정적 영향 해소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납사가격 상승 및 공급물량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경제의 악화 · 중국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무역마찰 가능성 상존 · 중동 및 아시아 국가의 공급 물량 확대 가능성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 내수 침체양상 지속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화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세 · 적극적 해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침체양상 지속 · 충분한 공급여력
중 합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등 아시아, 미국 등 주요수출국의 경기회복세 지속 및 원유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세 지속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며 내수 증가가 플러스로 반전 예상 · 주요수출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및 debottlenecking 노력으로 생산 증가 예상 · 합리화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예상으로 투자의 소폭 증가 예상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미한 영향을 줄 전망
 -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은 국내 석유화학산업 수출의 높은 대중 의존도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 중국은 아직까지 자국제품의 자급률(약 50% 내외)이 낮고 대중국 수출품 대부분이 원자재 성격이 짙어 수입수요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
 - 또한 연관산업인 전자 및 섬유산업 등은 중국의 주요 외화획득원으로서 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수요도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해외투자 측면에서도 투자지역 다변화 움직임과 전략적 투자가 강조되는 등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 유가상승세 지속은 석유화학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
 - 만약 유가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납사가 가격 상승으로 작용하여 석유화학 수요를 감소시켜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Ⅱ-26〉 주요 여건변화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인
중국의 긴축정책	수출	○	중국의 낮은 제품 자급률 연관산업인 전자 및 섬유산업 등의 호조세 유지 예상
	수입	▽	적은 수입량(수출의 2%)과 국내 내수 부진
	해외투자	○	연관산업의 호조세 예상 및 합리적 투자 증가
유가상승	수출	▽	납사가격 동반상승으로 비용상승요인 발생
	내수	○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된다면 설비투자과 내수의 동반 위축 가능성이 있음
	수입	▽	수입단가 상승으로 소폭 영향
	생산비용	△	납사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채산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기타원자재 가격상승(납사)	수출	▽	비용상승요인 발생
	생산비용	△	기업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
환율	수출	○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우위, 원/엔 환율의 개선 전망
	수입	○	환율의 안정적 하락 예상, 가격경쟁력 우위
	생산비용	▽	원자재비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개선 가능성

주: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 내수 면에서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된다면 설비투자과 내수의 동반위축이 심화될 수 있음.
- 유가상승은 수입단가 상승을 부추겨 수입에 소폭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사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채산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납사 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납사 등 석유화학관련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산비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환율의 안정적 하락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 환율의 안정적 하락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의 수출입에 부정적으로는 작용치 않을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엔화는 원화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환율 하락은 원자재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채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3) 석유화학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내수, 하반기 3.9%, 연간 2.3% 증가 예상

- 하반기 내수는 경기 호전 전망과 주요 연관산업의 수요 확대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2004년 하반기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522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상반기의 상대적 부진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한 1,035만 2,000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 수출, 물량기준 연간 10.8%, 금액기준 19.2% 증가 전망

- 하반기 수출 환경에는 소폭의 시설증대로 인한 수출 여력 확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과 중국경기의 급속한 위축 가능성, 무역마찰 가능성 등의 부정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전망
- 긍정적 요인 우위 예상으로 하반기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한 974만 5,000톤을 기록하며 연간 10.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금액 기준으로는 단가상승의 요인으로 물량기준 증가율보다 높은 연간 19.2% 증가한 60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생산, 하반기 4.3%, 연간 5.8% 증가 예상

- 세계경기 회복세 전망에 따라 주요국의 수입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 생

<표II-27>

석유화학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톤,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16,125 (6.2)	8,127 (2.8)	8,561 (4.1)	16,688 (3.5)	8,726 (7.4)	8,928 (4.3)	17,654 (5.8)
수 입 (물량)	8,184 (7.8)	4,279 (6.3)	4,356 (4.8)	8,635 (5.5)	4,720 (10.3)	4,795 (10.1)	9,515 (10.2)
수 입 (금액)	4,745 (5.1)	2,867 (31.7)	2,955 (15.1)	5,822 (22.7)	3,378 (17.8)	3,305 (11.8)	6,683 (14.8)
내 수	10,351 (9.3)	5,097 (0.3)	5,024 (-4.7)	10,121 (-2.2)	5,132 (0.7)	5,220 (3.9)	10,352 (2.3)
수 출 (물량)	15,788 (7.3)	8,205 (6.1)	8,946 (11.1)	17,151 (8.6)	9,250 (12.7)	9,745 (8.9)	18,995 (10.8)
수 출 (금액)	9,265 (10.4)	5,597 (28.8)	6,320 (28.5)	11,917 (28.6)	7,180 (28.3)	7,025 (11.2)	14,205 (19.2)

자료 : 생산 및 내수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주 : 1) 생산(출하 기준) 및 내수는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기준.

2) 수출입 물량 및 금액은 MTI 기준.

3)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감률임.

산은 전년동기 대비 4.3%, 연간으로는 5.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수입, 물량기준 연간 10.2%, 금액기준 14.8% 증가 전망

○ 하반기 중 경기 회복세 가시화 전망과 연관산업의 수요확대로 국내 수입수요 증가세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하반기 중 물량기준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가 예상되어 연간 10.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3) 정책건의

- 환경규제 및 반덤핑 제소 증가에 대비한 전략적 통상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예상되는 환경규제 강화 및 중국 등의 반덤핑 제소 증가에 대비하여 통상문제와 연계한 산업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 발표로 향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측의 반덤핑 제소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됨.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절실
 -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범용제품의 물량공세식 수출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생산 및 수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투자방식의 유연화 및 다양화 필요
 - 투자 측면에서는 특히 대중국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기 진출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재고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신중한 투자계획 검토가 필요
 - 사업제휴, 전략적 제휴, 지분참여 등 투자방식의 유연화·다양화를 위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할 것임.

6. 섬유산업

(1) 상반기 동향

□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로 반전

- 지난 2년 동안 감소하였던 수출이 금년 상반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 회복 및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업계의 수출 마케팅 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업계의 수출 마케팅 강화 노력에 힘입어 1~4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비 6.1% 증가
 -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터키로의 수출도 섬유소재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에 각각 24.3%, 31.1% 및 35.8%의 매우 높은 증가
 - 대중국 수출은 중국이 생산능력 확장과 함께 수입 대체를 확대해 나가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
 - 우리 제품은 중국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이 많은데, 중국이 생산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있음.

□ 내수 위축으로 생산 급감

- 금년 상반기 중 섬유산업의 내수는 국내경기 위축, 가계부

채 누증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섬유사 기준으로 전년 동기비 6.3%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의류 및 신발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이 금년 1/4분기에 4.6% 감소
- 생산은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급격한 위축으로 섬유사 기준으로 6.7%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금년 1~4월 기간 동안 각 분야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 우선 봉제의복 생산이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감소로 같은 기간에 전년 동기비 7.0% 감소
 - 섬유소재 생산도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류 생산 감소에 따른 섬유소재 수요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에 전

〈표Ⅱ-28〉 섬유산업의 생산증가율 현황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1~4)	
			상반기	하반기		
화학섬유	-7.9	7.1	1.0	-5.2	-2.1	-5.2
섬유소재	-11.3	-6.3	-11.0	-11.2	-11.1	-9.7
봉제의복	-8.0	7.1	-15.9	-15.7	-15.6	-7.0
기타 섬유제품	-2.7	-5.4	-3.4	-2.4	-2.7	-5.6
섬유산업 전체	-9.2	-1.3	-10.6	-11.0	-10.7	-7.9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통계」, 2004. 5.

주 : 1) 섬유소재는 화학섬유 제외.

2) 수치는 물량기준 증가율.

년동기비 9.7% 감소

- 특히, 그 동안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편조업의 생산도 금년 3월부터 감소세로 반전
- 화학섬유 생산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격 급등, 화섬직물 생산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전년 동기비 5.2% 감소
- 특히, 지난 3월에 금감화섬이 경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였고 대한화섬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량을 감축
- 지난해에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3.7% 증가에 그쳤던 수입이 금년 상반기에는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생산 급증에 따른 역수입 증가로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13.7% 증가할 것으로 추정

(2) 하반기 전망

1) 섬유산업의 여건 변화

□ 해외직접투자 급증

-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였던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외환위기 직후 둔화되는 듯하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급증
- 금년 들어서도 섬유소재와 화학섬유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1~4월 기간 동안 1억 842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1.3%나 증가

<표Ⅱ-29> 섬유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 원인			
-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등 후발 개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확대			

- 특히, 중국의 WTO 가입(2001년 11월)을 계기로 중국으로 집중
 - 국내 섬유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001년 33.3%에서 2003년 53.4%로 높아진 데 이어 금년 1~4월 기간 동안에는 무려 76.7%에 달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도 국내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내년 미국, EU 등의 섬유수입쿼터 완전 폐지 이후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이들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임.
- 국내 설비투자 감소 속에 R&D 투자는 증가세 지속 예상
 - 섬유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국내 생

<표II-30> 섬유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 예상	이 유
설비투자	▽	- 설비과잉 등으로 인해 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연구개발투자	△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총투자	▽	- 설비 유지보수, 연구개발 투자만 일부 확대

주 : 투자 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산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화섬, 면방, 직물업계는 최근 과잉설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설비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는 어려울 것임. 단지,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만 유지할 전망

○ 하지만 섬유업계는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

□ 생산기반 약화로 생산량 감소 지속 전망

○ 이처럼 해외직접투자 증가 속에 국내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설비 축소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우선 의류 생산설비 대수는 1994년 8만 1,517대에서 2002년 현재 2만 3,989대로 70% 정도 감소

- 염색가공기도 직물 및 섬유사 생산 둔화 및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2002년 현재 5,320대로 1996년보다 12.2% 감소
- 직물을 생산하는 직기도 2001년 현재 4만 3,600대로 1997년보다 1만 4,700대 감소
- 이처럼 생산 기반 약화로 인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제품 고부가가치·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금액은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경기 회복으로 의류판매 회복 기대
 - 금년 상반기 중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내수 경기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의류 판매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선진국경기 회복으로 수출 여건 개선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우리 섬유산업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에는 내수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일본도 경기회복과 함께 소비자태도지수도 1/4분기에 42.5로 2000년 1/4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면서 하반기의 내수 회복을 예견
- 하지만 중국이 높은 수출 증가와 함께 우리시장 잠식을 가속화
 - 중국은 WTO 가입(2001.11)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
 - 1996~2001년 기간 동안 연평균 5.6%의 낮은 증가에 그쳤던 중국의 섬유 수출이 2002~2003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21.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전년 동기비 24.8%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 반면, 우리나라는 2002~2003년 기간 동안 연평균 2.6% 감소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1.9%의 낮은 증가에 그쳤음.
 - 이처럼 중국이 높은 수출증가와 함께 우리 시장 잠식을 가속화
 - 중국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0년 8.0%에서 1995년 12.5%로 높아진 데 이어 2002년 현재 17.5%로 크게 상승
 - 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0년 6.6%에서 1995년 5.6%로 낮아진 데 이어 2002년 현재 4.0%로 크게 하락

〈표Ⅱ-31〉

국제 화섬원료 가격 추이

단위 : 달러/톤

		2003.5	2003.4/4	2004.1/4	2004.5
PTA	중 국	470~480	560~620	600~730	730
	미 국	635	675	693~763	780
	서유럽	1,135~ 1,225	1,070~ 1,185	1,125~ 1,330	1,190~ 1,320
MEG	극 동	735	710~740	700~850	860
	미 국	789	764~794	754~904	914
	서유럽	870	805~850	815~935	955

자료 : 화섬협회.

□ 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섬원료 가격 상승

-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화섬원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음.
 - 대표적인 폴리에스터 원료인 PTA 가격이 중국시장에서 2004년 5월 현재 730달러/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53.7% 상승하였고, 미국시장에서도 780달러/톤으로 22.8% 상승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 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영향 미미

- 중국의 긴축정책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 (87%)하는 섬유소재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중국에 수출한 섬유소재는 대부분이 수출용 의류에 사용 되기 때문에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은 미국, 일본, EU 등 수입국들의 경기에 영향을 받고, 중국 내수경기에 영향을

<표II-32> 섬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 산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호조로 수출증가 기대 ·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 회복	· 국내투자 부진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에 따른 역수입 증가
내 수	· 의류업체들의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전략 강화 ·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증가 한계
수 출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	· 중국 등 개도국들의 생산능력 확장에 따른 경쟁 심화 · 선진국과 개도국들 모두 수입규제 강화 · 원화 환율 하락
수 입	· 국내 경기 회복 ·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역수입 증가 · 원화 환율 하락	
총 합 평 가	·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 수입 급증으로 섬유경기 부진	

적게 받음.

- 특히, 2005년 섬유교역자유화 이후 중국은 의류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섬유소재 수입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
- 단지, 중국건축 정책이 내수 위축으로 연결될 경우 의류수출은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섬유산업의 대중국 수출의 4.4%가 의류인데, 중국으로 수출되는 의류는 대부분 중·저가품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수출 둔화가 예상
- 대중국 직접투자도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우선 의류부문의 경우 중국 진출업체들이 대부분 수출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임.
 - 특히, 2005년 섬유교역자유화에 대비해 대중국 직접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섬유소재부문의 경우도 중국의 긴축정책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의류생산 증가와 함께 섬유소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국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
 - 단지, 중국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업체들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 및 금리 인상의 경우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려는 신규 진출업체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국제유가 상승은 채산성 악화를 초래
 - 에너지 다소비업종, 특히 석유 다소비업종인 섬유소재업종

은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높음.

- 섬유산업은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가 2002년 현재 0.59로 제조업 평균(0.28)보다 2배가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섬유산업은 에너지사용량에서 차지하는 석유 비중이 42.4%로 제조업 평균(19.7%)보다 2배가 넘는 높은 수준
- 하지만 연료비 부담을 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키지 못함으로써 수익성 하락이 우려됨.
 - 세계 섬유시장은 완전경쟁상태이기 때문에 외적인 비용 상승 요인을 수출가격 상승으로의 전가가 어려운 상황
- 더욱이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섬 및 화섬직물업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가 초래
 - 화섬업체는 유가 상승에 따른 화섬원료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 부담이 높지만, 화섬사가격 인상이 제한적이어서 채산성 악화가 초래
 - 화섬업체는 세계시장에서의 수출경쟁 심화 및 내국 화섬직물업체의 어려움 등으로 화섬사가격을 화섬원료가격 상승만큼 올리지 못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고 있음.

- 화섬직물업계도 원료인 화섬사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섬직물가격 상승이 어려워 채산성이 크게 악화

- 세계시장에서는 화섬직물의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로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

□ 원화 환율 하락은 채산성 악화 및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

○ 섬유산업은 국제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율 하락, 제조원가 상승 등과 같은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못함.

- 특히, 최근 원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홍콩, 중국은 고정환율제로 인해 환율 변동이 없고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상승하고 있어, 우리 제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음.

○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원화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제품가격 상승보다는 채산성 저하로 감내해야 함.

- 더욱이 수출 마진이 낮아 원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수출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들 업체들이 수출 오더가 있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한편, 수입은 원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제품가격 하락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표 II -33> 주요 여건변화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 인
중국의 긴축정책	수 출	○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중국 수출의 87%가 섬유소재인데, 중국에 수출한 섬유소재가 대부분 수출용 의류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영향이 미미
	수 입	○	-
	해외투자	○	- 중국 진출 의류업체의 경우 수출용 의류를 생산하고, 섬유소재도 수출용의류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경기에 영향이 적음
유가 상승	수 출	○	- 세계 섬유시장은 완전경쟁상태이기 때문에 외적인 비용 상승 요인을 수출가격 상승으로의 전가하기 어려움 - 단지,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채산성 악화로 감내하지 못할 경우에만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음
	내 수	○	-
	수 입	○	-
	생산비용	▲	- 섬유소재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다소 증가 - 화섬 및 화섬직물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채산성 악화가 초래
환 율	수 출	▽	- 환율 하락을 수출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키지 못함으로써 채산성 악화가 발생 - 그러나 환율이 채산성 악화로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하락할 경우 기업들은 수출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수출 악화를 초래
	수 입	△	-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입증가 예상
	생산비용	○	-

주 :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3) 하반기 수급전망

□ 의류 내수 회복 속에 섬유소재 내수는 위축 예상

- 금년 하반기 중 섬유산업의 내수는 섬유소재의 위축으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하겠지만, 의류판매 회복으로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섬유사의 내수는 직물부문의 생산 감소에 따른 섬유사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비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직물 내수도 의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직물 수요 감소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의류 내수는 민간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증가의 한계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 감소 예상

- 수출은 선진국들의 경기호조 지속, 업계의 수출 마케팅 강화 등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 의류 수출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및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대체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식물 수출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은 식물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수입 대체를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확대하면서 우리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
- 섬유사·원료 수출은 내수부진을 만회하려는 업체들의 수출 확대 전략 등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가 예상
-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한 67억 8,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업체들의 해외생산분의 역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수 회복에 힘입어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로부터 고가·차별화 제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처럼 낮은 수출 증가 및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94억 달러에서 금년에 90억 달러로 4억 달러 정도 줄어들 전망
 - 특히, 의류 무역수지 흑자의 경우 지난해에 9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3억 달러 수준으로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생산은 내수 부진 속에 수입 급증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 생산은 내수 부진 속에 수입 급증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표Ⅱ-34〉

섬유산업 전망

단위 : 천톤,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2,716 (-10.7)	1,323 (-2.1)	1,358 (-0.5)	2,681 (-1.3)	1,234 (-6.7)	1,301 (-4.2)	2,535 (-5.4)
수 입	5,688 (17.0)	2,664 (9.2)	3,232 (-0.5)	5,897 (3.7)	3,028 (13.7)	3,752 (16.1)	6,780 (15.0)
내 수	1,183 (-23.8)	538 (-10.2)	595 (1.9)	1,133 (-4.2)	504 (-6.3)	573 (-3.7)	1,071 (-4.9)
수 출	15,674 (-2.5)	7,295 (-2.2)	7,959 (-2.8)	15,253 (-2.7)	7,524 (3.1)	8,220 (3.3)	15,744 (3.2)

주 : 1) 생산과 내수는 섬유사 기준(천톤)이고, 수출과 수입은 섬유 산업 전체 기준(백만 달러)임.

2)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것으로 예상

- 의류 생산은 후발 개도국들과의 경쟁력 약화 속에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확대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및 역수입 증가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직물 생산도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생산량 감소에 따른 직물수요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섬유사 생산(화섬원료 포함)도 수출 둔화 및 국내 직물생산 감소에 따른 섬유사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비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정책건의

□ 수입규제에의 대응

- 세계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가 빈번해지고 있음.
 - 특히, 내년 미국, EU 등의 섬유수입쿼터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가일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

□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출품을 통해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을 강화
- 주요 수출시장의 품목별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업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

□ 섬유업체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적극 지원

- 개성공단 투자시 섬유업종이 최우선 투자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 과거 홍콩이 중국 심천지역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인 산업 협력을 통해 홍콩 섬유산업을 다시 발전시킨 것처럼 우리 섬유산업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 섬유산업의 발전을 도모

7. 가전산업

(1) 상반기 동향

□ 경기침체로 상반기 내수 감소

- 가전산업은 국내경기 침체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내수가 지난해 상반기와 같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비 7.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3월 내수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으나 기대만큼 내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에어컨 16% → 11.2%, 프로젝션 TV 8% → 5.6%
 - 신규수요 창출을 견인해야 할 디지털 TV는 디지털방송방식 논란 지속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늦추고 있고, 그 동안 급팽창하면서 냉장고 시장을 주도해왔던 김치냉장고도 보급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체 냉장고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음.
 - 반면, 드럼세탁기와 양문형 냉장고 등 고가제품의 빌트인 수요 확대, 화소수 증가에 따른 카메라폰의 구매 증가, 금년초에 신규 출시된 MP3폰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수출이 가전산업 성장 견인

- 내수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4월 현재 가전수

출은 53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27.7%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상반기동안 29.1%의 증가율이 전망됨.

- 미국과 유럽, 호주를 중심으로 디지털 TV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컬러TV의 해외생산 확대로 디스플레이 모듈, 칩셋 등 주요 부품을 국내로부터 조달 공급하고 있어 부품의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중대형 프리미엄 냉장고, 첨단 기능의 세탁기 등 고가 백색 가전의 수출도 호조세임.

□ 생산은 내수 부진으로 증가세 둔화

- 지난해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덕분에 6.8%의 증가를 기록한 생산은 금년 상반기 들어 내수 침체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어 4.6% 증가할 전망임.
- 가전업체는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웰빙, 저전력, 저소음 가전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증가세

- 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2003년 16.3%, 금년 4월 현재 23.6%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9.9% 증가할 전망임.

- 이러한 수입증가는 고소득층은 고가의 일본산 제품을, 저소득층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소비양극화에 기인하고 있음.
- 전체 가전 수입 중 영상기기와 음향기기가 각각 1/3씩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기기의 60%는 일본이, 음향기기의 4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2) 하반기 전망

1) 가전 산업의 여건변화

□ 내수 여건

- 긍정적 요인으로는 배드뱅크 설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불량자 축소 정책, 아테네 올림픽 특수, 웰빙·저소음·저전력의 신제품 출시와 업계의 적극적 마케팅 전략 전개, 디지털방송방식 조기 종결 가능,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특소세 인하 정책의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 증가, 가전업계의 수출호조에 따른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 등임.
- 그러나, 가전은 소득수준에 좌우되는 내구소비재로서 근본적으로 소득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고실업 상태, 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가전산업의 내수는 부진할 것으로 보임.

□ 수출여건

- 금년 가전산업의 수출여건은 긍정적 요인이 부정적 요인을 압도하여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긍정적 요인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과 비례해 소비가 늘어나는 디지털 가전제품의 수요확대가 기대됨.
 - 특히 미국의 경우 디지털 TV보급 촉진을 위해 TV에 디지털 튜너 내장을 2007년까지 의무화하는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일체형 디지털 TV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였고, 독일은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적극적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영상기기의 수요 활성화가 기대됨.
 - 아테네 올림픽 특수로 디지털 TV, DVD리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기기 수요 확대가 기대됨.
 - 또한 국내 가전업체들의 시장선점을 위한 제품 다양화 및 적극적 마케팅전략으로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제고되고 있음.
 - 미국 디지털TV시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일본산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고 위안화의 달러화 환율고정으로 달러가치 하락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며, 또한 막대한 자국수요에 힘입은 가격인하 등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시장을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는 점은 수출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생산 여건

- 긍정적 요인으로서는 디지털TV와 프리미엄 백색가전 수출

<표Ⅱ-35>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 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디지털 TV	아날로그 컬러 TV 백색가전(에어컨 등)	음향기기, 소형가전 (전자레인지 등), 소형 아날로그TV
해외생산 증가원인			
완제품 수출에 대한 고관세 회피, 물류비 절감, 원가 절감, 해외 수요에 부응하고 현지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현지화 전략 추진 등 (아날로그 컬러TV는 세계 30여개 지역에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표Ⅱ-36> 가전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 예상	이 유
설비투자	▲	DTV수출 호조, 프리미엄 백색가전 사업확대
연구개발투자	▲	DTV핵심칩, 소프트웨어, 신제품개발, 프리미엄 백색가전 개발
총투자	▲	

주 : 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호조로 생산설비 확충, 디지털 TV의 핵심칩 등 디지털 가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디스플레이 가격 하락 및 생산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가전 가격하락으로 수요 촉진 등이 있음.

- 부정적 요인으로는 아날로그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생산의 축소 현상 심화, 원자재난이 지속될 경우 원가상승 압박의 가중, 소득격차 양극화에 따른 고가 및 저가의 수입품 증가 추세 지속 등이 있음.

□ 수입여건

- 증가 요인은 일본산 고가제품과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증가, 일본 부품업체들의 국내투자진출 확대에 관련 부품의 대일 수입 확대 등임.
- 감소 요인은 내수 부진, PDP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 추진, 엔화에 대한 원화의 상대적 약세로 수입수요 억제 등임.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은 가전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 중국의 긴축정책이 경기조절을 위한 과열부문 투자 및 기업 대출 억제에 있으므로 연착륙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소비재 구입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대중 가전수출은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첨단 가전산업 유치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과 아시아지역을 겨냥한 디지털 TV의 대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표Ⅱ-37> 가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호조로 생산설비 확충 · 첨단 신제품 연구개발 투자 · 가격하락으로 수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분 감소 · 원자재난 지속시 원가상승 압박 · 소득양극화로 수입 증대
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소세 인하 · 아테네 올림픽 특수 · 신용불량자 축소 정책 · 웰빙, 저소음, 저전력 신제품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가계부채수준으로 구매력 감소 · 국내 DTV방송 지연 · 고용사정 악화 지속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테네올림픽 특수 기대 · 미국의 일체형 DTV수요 증가 · 유럽의 디지털방송 가입증가로 관련제품 수요 확대 ·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가격 경쟁력 약화 · 중국과의 기술격차 급속 축소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 디지털 제품 수입 증가 · 저가 소형가전 수입 증가 · 국내진출 일본부품업체들의 관련 부품 대일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침체 · 부품 국산화 · 엔화대비 원화 상대적 약세로 수입수요 억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우위 지속 위한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종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전산업 생산은 수출이 견인 · 수출환경 양호로 수출 호조세 지속 · 내수는 여전히 부진 지속 · 신제품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지속 	

□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시 원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듯

- 백색가전의 경우 원자재 파동 영향을 많이 받는 철이나 구리제품의 리드프레임 사용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임. 그러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더욱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표II-38> 주요 여건변화가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 인
중국의 건축정책	수 출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수 입	○	
	해외투자	○	중국의 첨단산업 유치대상 품목
유가상승	수 출		
	내 수	▽	고에너지 제품 구매 감소
	수 입 생산비용	○	저에너지 산업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수 출 생산비용		백색가전에 영향 (리드프레임에 사용하는 구리, 납 등)
환율	수 출	△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
	수 입	▽	대일 수입억제
	생산비용	△	디지털 가전의 국산화율 낮음

주: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3) 가전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경기부진으로 내수 8% 감소 예상

○ 금년 하반기 가전시장은 특별한 내수확대 요인이 없는 가운데, 업체의 판촉전략, 가격 인하, 특소세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감소세는 상반기보다는 줄어드는 것으로서 아테네 올림픽 특수와 특소세 인하효과의 긍정적 기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가 높고 고용 악화가 해소될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내수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가전 해외수요 확대로 수출 28% 증가 전망

○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년 경제성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가전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아테네 올림픽 특수가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국내 가전업체들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장확대가 기대되어 하반기 수출은 28% 증가할 전망임.

- 이는 가전업계의 내수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수출확대노력과 고가 프리미엄 백색가전과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그러나, 가전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율이 2002년 44%에서 2003년 46%로 대폭 높아졌고, 금년에도 50% 이상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수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음.
- 생산은 수출에 힘입어 4% 증가 예상
 - 내수 침체속도가 둔화되고 디지털TV 등 고가 제품의 수출 증가, 프리미엄 백색가전의 수출단가 인상 등 수출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생산은 하반기에 4% 증가가 예상됨.
 - 홈네트워크 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제품과 양문 여닫이식 냉장고나 드럼 세탁기 등의 고가·다기능 프리미엄 제품,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 복합형·에너지 절약형·건강친화적 생활가전 제품 등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의 양극화로 수입은 19% 증가 전망
 - 수입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디지털 가전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증가로 19%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으로 최근 일본 부품업체들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관련 핵심부품의 대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Ⅱ-39〉

가전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30,602 (-)	15,700 (-1.5)	16,981 (15.8)	32,681 (6.8)	16,423 (4.6)	17,591 (3.6)	34,014 (4.1)
수 입	3,008 (19.9)	1,651 (14.6)	1,846 (17.8)	3,497 (16.3)	1,980 (19.9)	2,200 (19.2)	4,180 (19.5)
내 수	20,875 (-)	10,483 (-2.9)	11,364 (12.7)	21,847 (4.7)	9,707 (-7.4)	10,435 (-8.2)	20,142 (-7.8)
수 출	10,760 (11.0)	5,981 (10.4)	6,629 (24.0)	12,610 (17.2)	7,720 (29.1)	8,450 (27.5)	16,170 (28.2)

자료 : 생산·내수통계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수출입 통계는 KOTIS.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 생산과 내수는 원화, 수출·입은 달러화 기준.

3) 내수는 생산+수입-수출의 개념.

4) 생산과 내수는 통계의 일관성 결여로 2002년 증가율 산출 곤란.

(3) 정책건의

- 디지털TV는 월드컵을 계기로 폭발적인 수요창출을 보였으나, 디지털방송방식 논란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바, 논란의 조속한 종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디지털 TV의 내수 활성화 촉진이 필요함.
- 일부제품과 소수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로서 대외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함.
-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수입관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동향 파악과 정책수립을 위해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통계분류 정비가 필요함(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기능의 결합제품, MP3폰 등).
- 디지털가전의 경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서 관련분야의 고급인력 육성과 핵심기술 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8. 통신기기산업

(1) 상반기 동향

- 미국, EU 등 세계경제와 한동안 부진했던 정보통신분야의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04년 통신기기시장도 4~5%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이동전화기 시장의 경우 제품별로는 컬러폰, 카메라폰 등으로 신제품 출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도 수요확산이 급속히 진전되어, 시장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환경변화에의 대응도 필요
- 이러한 산업환경 하에서 2004년 상반기 국내 통신기기산업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수요 확대와 다양화, 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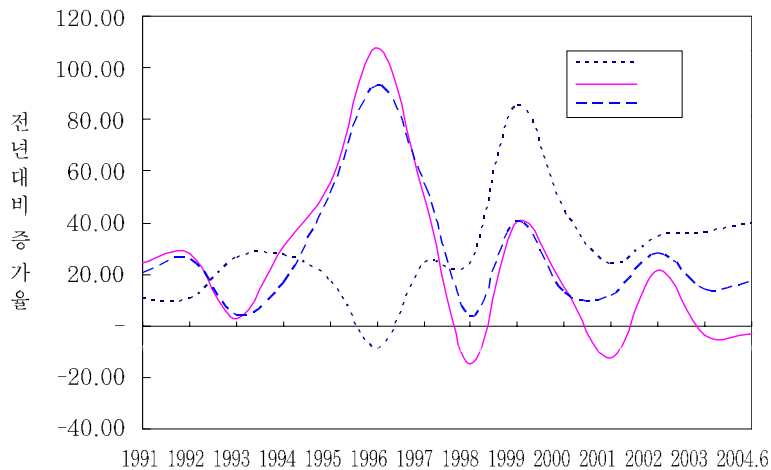
화된 제품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결국 2004년 상반기에도 국내 통신기기산업 성장은 수출이 주도하였다고 할 것임.

- 주력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2003년에 이어 확대되었고, 특히 신제품을 중심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50% 내외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2003년 급격한 수출확대로 16.4%의 비중을 보였던 중국시장에서 중국정부의 수입물량 조절과 중국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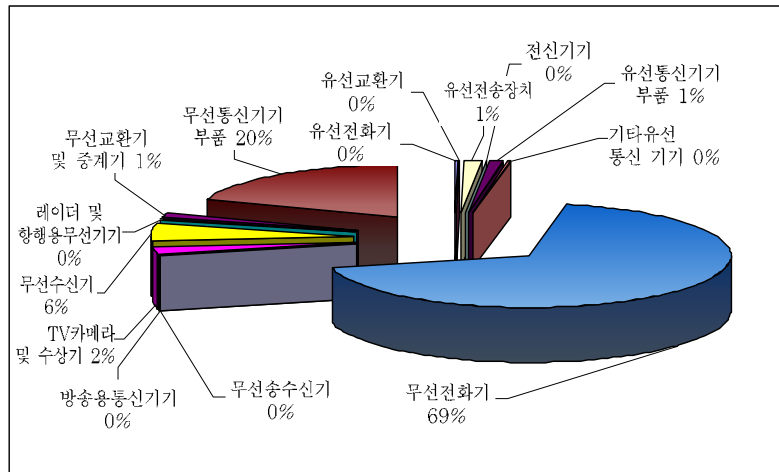
<그림Ⅱ-2> 통신기기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증가율 추이



수출규모가 줄어들기도 하였음.

- 내수는 시장을 주도하는 이동전화기가 카메라폰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확산과 번호이동성 도입 등 내수시장의 여건 변화로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자의 증가세 둔화로 그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초고속인터넷 등은 신규투자 둔화, 3G 등 신규서비스는 상용화 지연 등으로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결과라고 할 것임.
- 한편, 수입의 경우도 첨단통신장비와 카메라폰에 소요되는 교체차량소자, 소형광학렌즈 등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수요

<그림 II-3> 통신기기산업의 품목별 수출구성비(2004. 4)



가 늘어나, 전년동기 대비 31%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2) 하반기 전망

1) 통신기기산업의 여건변화

□ 신규가입자 둔화로 시장확대 한계

○ 내수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산업을 주도할 정도로 시장규모를 확대시킬 것 같지는 않음.

- 금년 초부터 시작된 번호이동성, 통합번호 제도 등이 지속되고, 또 은행과 통신사업자가 연계된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시되면서 대체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시장확대 가능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것임.

-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보급률이 73%로 매우 높아, 신규가입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 내수시장 확대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것임.

•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보급률 둔화, 3G 서비스의 상용화 지연 등으로 통신장비분야 시장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날 뚜렷한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겠음.

○ 이처럼 시장확대에 한계를 보이고는 있지만, 업체간의 시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특히 컬러폰, 카메라폰 등의 제품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출시된 MP3폰 등 지속적인 신제품 출현으로 업체간 경쟁이 가열된 상황이며, 소비자 역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의 구매패턴이 변화되면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한편 상반기에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 금지위반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시행할 지에 따라 내수 시장 규모가 좌우될 것임.

□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증가세 유지

- 수출시장은 선진업체의 견제와 중국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국내업체들의 선전으로 국내산업을 주도할 정도의 수출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기기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이동전화기의 비중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동전화기의 경쟁력 확보 여부가 전체 수출규모를 좌우한다고 할 것임.
-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무선통신 기기에 대한 수출수요가 늘어 1/4분기에만 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대미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동전화기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가 디지털 이동통신으로 전환되고, 특히 컬러폰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그 증가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는 GSM 단말기의 수출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 즉 카메라폰, 슬라이드폰 등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3년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던 중국시장의 경우 2004년 들어 중국정부의 수입규제, 선진기업과의 경쟁, 그리고 중국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특히 SKD(Semi Knock-Dwon) 또는 CKD(Complete Knock-Down) 방식으로 이동전화기의 중국 내 현지생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컬러폰, 카메라폰 등 첨단제품의 경우는 아직 중국업체와 상당수준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의 국내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시장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 선진업체들의 특허료 요구로 수익률 저하
 - 이처럼 국내 통신기기산업은 내수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로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표II-40> 통신기기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 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			
· 중국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차원			

- 그러나 이동전화기 업체들의 생산구조가 카메라폰, PDA폰, MP3폰 등으로 첨단제품화하면서 관련 핵심부품의 조달이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금년 상반기 퀄컴이 제공하는 1xEV-DO 칩셋 부족으로 국내생산이 지연되었으며, 6월 이후 수급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GSM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모토로라, 에릭슨 등 선진업체의 특허료 요구는 대기업에는 수익률 저하로, 이에 대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는 수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결국 제품이 고도화, 첨단화되면서, 소요되는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의존으로 제품의 적기 출시나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수출시장의 확대로 국내생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등 생산비용 절감, 또는 해당시장 공략 등을 목표로 해외생산도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중국에서의 생산확대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수입규제 등으로 인한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임.

□ 제품의 첨단화로 핵심부품 수입수요 증가

- 2000년 들어 소비자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함께 저가의 관련 장비들이 중국 등으로부터 다량 수입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최근 통신기기산업에서 수입의 주요 분야는 이동전화기와 관련된 핵심부품이라고 할 것임.
 - 그 동안 정부와 기업, 연구소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제품에 소요되는 상당부분이 국산화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신제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음.
 - 참고로 제품수요가 가장 큰 카메라폰의 경우 고체촬상소자, 이미지센서, 소형광학렌즈, 이미지프로세서 등 핵심부품을 삼성전자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확대 요인으로 작용함.

□ 신제품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 통신기기산업과 관련된 투자는 2003년 부진했던 설비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전화기 등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II-41> 통신기기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예상	이유
설비투자	▲	·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기존설비의 확장에 대한 투자 중심
연구개발투자	△	· 통신기기산업을 주도하는 이동전화기 관련 신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총투자	△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표II-42> 통신기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 산	· 지속적인 수출수요 · 카메라폰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	· 내수 둔화 · 중국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내 수	· 번호이동성제도 실시 · 모바일뱅킹과 통합번호제도 실시	· 높은 보급률로 신규수요 저하
수 출	· 세계시장의 성장지속 · 브랜드이미지 제고 · 독일, 영국 등으로 시장다변화	· 중국업체의 경쟁력 제고 · 중국의 수입규제 · 선진기업과의 경쟁
수 입	· 신제품의 수요확대에 따른 첨단 부품 수입수요 확대	·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투 자	·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 중소기업체들의 경쟁력 저하
총 합 평 가	·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지만, 이동전화기에 대한 국내업체의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통신사업자들의 3G 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부진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3G 관련 장비생산에 대한 부분은 미진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송속도 향상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망증설 및 업그레이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기존설비의 확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 연구개발투자는 제품경쟁이 심한 이동전화기 관련 분야에서 원천기술개발은 물론 제품응용기술개발 위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동전화기의 경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2~3개월일 정도로 신제품 출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은 통신기기산업에 큰 영향 없을 듯

- 긴축정책이 부동산 등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이루어진 반면, 통신기기는 중국이 투자유치를 원하는 분야이므로 별 영향이 없음.
 - 한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어, 최근의 여건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의 일부 분야가 악화될 경우 국내산업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도 있겠지만, 통신기기 등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투자유치 또는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있어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

□ 유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듯

- 유가상승에 따른 통신기기산업의 중간투입비용 상승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유가상승이 생산비용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경우 수출규모보다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임.

□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은 별로 없음

- 통신기기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관련된 논의는 별로 없음.
- 금년 초 퀄컴에서 제공하는 1×EV-DO 칩셋과 같이 핵심 부품의 수급문제와 GSM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들의 특허료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것임.
- 특히 기술특허료의 경우 대기업에게는 수익률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선진기업의 특허공세에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수출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환율절상으로 산업에 미칠 영향 없을 듯

- 환율부분이 통신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표Ⅱ-43〉 주요 여건변화가 통신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인
중국의 긴축정책	수출	○	· 긴축정책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카메라폰 등 고급제품 위주로 중국업체와 비경쟁적임
	수입	○	· 별 영향없음
	해외투자	○	· 통신기기는 첨단산업으로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는 분야이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유가상승	수출	○	· 생산비용 상향으로 수익성은 위축될 수 있으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내수	○	· 별 영향없음
	수입	○	· 별 영향없음
	생산비용	○	· 별 영향없음
기타 원자재 가격상승	수출	○	· 별 영향없음
	생산비용	○	· 별 영향없음
환율	수출	○	· 통신사업자 조달 또는 OEM에 의한 부분이 많고, 일부는 제품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음
	수입	○	· 별 영향없음
	생산비용	▽	·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의 경우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주: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 수출의 경우 통신사업자 조달 또는 OEM에 의한 부분이 많고, 일부는 제품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음.
- 다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의 경우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3) 통신기기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시장을 견인할 새로운 서비스 부재로 4% 정도 감소 예상

○ 내수시장은 이동전화기와 기타 통신장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70% 정도에 달하는 이동전화기의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시장규모가 좌우된다고 할 것임.

- 금년 들어 번호이동성,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확대를 꾀하고는 있으나, 보급률이 73% 정도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시장확대는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3G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3G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시장도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지 못함.

- 그 결과 통신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품질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여, 금년 하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3.6% 정도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수출 38% 이상 증가 전망

○ 제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그 동안 미국 중심의 수출에서 영국, 독일 등 EU지역으로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근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 선진업체들의 대응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 역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향후 국내업체들의 지속적인 시장확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수출에 힘입어 생산은 21% 내외 증가

- 세계시장의 회복세, 신제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소비욕구에 그 동안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노력이 순효과를 발휘하여 수출규모가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내수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모색되지 않으면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생산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제품의 첨단화로 핵심부품 수입수요 증가하여 수입은 22% 이상 증가

- 최근 카메라폰, MP3폰 등 첨단형 이동전화기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핵심부품의 수입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2%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퀄컴으로부터 수입하는 1×EV-DO 칩셋은 물론 카메라폰의 핵심부품인 고체촬상소자, 소형광학렌즈 등과 생산기자재와 관련된 계측기기, 자동제어기기 등의 수입수요

<표II-44>

통신기기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32,116 (31.2)	17,697 (21.2)	18,956 (8.2)	36,653 (14.1)	21,590 (22.0)	22,943 (21.0)	44,533 (21.5)
수 입	3,079 (-5.5)	1,436 (-4.0)	1,866 (17.8)	3,302 (7.2)	1,886 (31.0)	2,275 (22.0)	4,161 (26.0)
내 수	19,434 (26.8)	9,928 (7.1)	8,844 (-13.0)	18,773 (-3.4)	9,684 (-2.5)	8,522 (-3.6)	18,206 (-3.0)
수 출	14,232 (34.3)	8,394 (39.6)	11,014 (34.0)	19,411 (36.4)	12,558 (49.5)	15,200 (38.0)	27,758 (43.0)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TIS 무역통계, 산업연구원.

주 : 1) 생산 및 내수는 원화, 수출입은 달러화 기준.

2)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04년도 연간기준으로 통신기기는 공급측면에서 생산 21.5%, 수입 26.0% 증가세를 보이고,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은 43.0% 증가하나, 내수는 3.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 정책건의

□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 통신기기산업은 한동안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설비투자과 가입자 확보, 그리고 인터넷 보급확산 등으로 내수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그 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인터넷 관련장비와 이동전화기의 경우 인터넷 보급확산과 포화상태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보급률 등으로 인해 신규 수요창출보다는 대체수요에 의존함으로써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통신기기산업은 내수기반을 통해 수출확대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MB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허료 등 선진업체의 공세에 대한 대응필요

- 한편 GSM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일부 선진업체들의 특허료 요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마련도 필요할 것임.
- 선진업체의 특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들이 다수의 특허권자들과 적절히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임.

9. 컴퓨터산업

(1) 상반기 동향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수는 침체지속

- 2003년 상반기의 내수 환경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데

다 산업 특유의 제품주기에 따른 수요회복세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됨.

○ 컴퓨터산업의 상반기 내수판매액은 연초 업계의 기대와 달리 컴퓨터의 교체주기가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예 비해 크게 하락할 것임.

- 상반기 내수의 전반적인 부진은 불황이라는 거시적 요인 외에 컴퓨터 판매의 회복세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으로 신규수요 발생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고유의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음.

- 상반기의 동향은 노트북 PC, LCD 모니터, DV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가 수요를 주도하여 모바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유지시켰음.

○ 국내 생산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출증가에 의해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약 8.1% 증가할 전망이다.

- 생산부진의 더딘 회복은 내수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대기업의 생산설비가 해외로 이전한 영향도 크게 받고 있음.

□ 수출은 계속 호조

○ 컴퓨터산업의 상반기 수출은 다른 디지털전자 제품들과 같은 추세를 보이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상반기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45%를 기록할 전망이다이어서 컴퓨터산업의 유일한 낙관적 지표라 할 수 있음.

- 상반기의 수출증가는 카드류 등의 컴퓨터부품, 모니터에 의해 주도되었는바, 이들 제품군은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60% 이상 수출이 확대됨.
- 상반기 수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노트북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그동안 계속 위축되었던 데스크톱 PC의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과거 흐름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는 노트북의 수출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수출물량이 축소되고, 데스크톱은 신흥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신장되었기 때문임.
- 한편 상반기중의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4% 이상을 기록하여 2003년 한 해의 수입증가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수준 증가하였음.
 - 수입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차적으로 전년의 정체 현상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상반기의 수입 규모는 수출의 34% 수준에 불과하여 수출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며, 제품에서는 모니터와 노트북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노트북의 수입은 처음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현상인데, 이는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일본 노트북 제

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임.

(2) 하반기 전망

1) 컴퓨터산업의 여건변화

□ 경기침체로 내수부진 지속이 예상

- 세계적인 IT경기는 회복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여건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
- 컴퓨터는 최종소비재이자 내구재라는 성격상 사용자의 구입필요성 이상으로 경제적 구매력의 영향을 받음.
 - 전반적인 경기위축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기업 및 일반소비자들이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구매행위를 지연시켜 내수확대를 어렵게 할 것임.
- 컴퓨터 보급률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내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점도 산업발전의 큰 제약요인임.
 - 우리나라는 인터넷 및 게임 사용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IT 인프라의 핵심인 컴퓨터의 신규수요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신규수요보다는 신기능, 고급형 제품으로의 교체수요만을 기대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신규수요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컴퓨터 관련산업(예 : PC방)이나 일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학생층의 입학, 졸업,

취업 등과 연계된 구매를 통해 가능함.

○ 노트북 PC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점은 현재로서는 하반기 내수 확대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호재임.

- 데스크톱 PC 수요하락, 노트북 수요증가로 대비되는 제품 선호도는 고부가가치제품인 노트북의 소비를 확대시키면서 부분적으로 내수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노트북의 내수비중은 25% 수준이지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신규수요를 흡수하는 한편으로 데스크톱의 교체수요가 노트북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음.

□ 세계시장의 회복으로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

○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컴퓨터에 대한 수요도 단기간 내에 빠르게 회복세로 반전되는 추세임.

- 세계적으로 컴퓨터의 수요는 비즈니스용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의 IT 투자심리 회복 여부가 산업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되고 있음.

- 여기에 동남아,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잠재력이 큰 이들 국가의 경기회복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 외에 한국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중국, 멕시코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우회수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해외공장에서 글로벌 메이커에 ODM/OEM 공급하고 있는 완제품의 수출도 호조를 유지할 것임.

□ 해외생산체제의 지속으로 생산기반 위축 불가피

○ 세계적인 가격경쟁시대의 도래

- 컴퓨터산업은 첨단제품중 기술진보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그 영향으로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이 가격경쟁을 격화시키는 주된 원인임.

- 따라서 델, HP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메이커와 국별 토종 업체들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임.

- 국내시장도 국내업체와 외국기업간의 시장확보 경쟁이 가

<표II-45> 컴퓨터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			
- 세계적인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중국을 활용한 가격경쟁력 제고			

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임.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생산이 불가피한 추세임.
 - 중국의 경쟁력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생산은 해외생산이 지속되면서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율 반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임.
 - 세계최대의 컴퓨터 생산국인 대만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기업들 모두가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였으며, 중국 생산능력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임.

□ 수입제품의 시장점유 확대추세

- 국내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중 하나는 수입 확대임.
 -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배경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경영전략에서 찾을 수 있음.
 - 델, HP 등 미국기업과 다수 일본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임.
- 중국산 부품과 국산 제품간의 가격격차가 확대되면서 중국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우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II-46> 컴퓨터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 예상	이유
설비투자	▽	· 중장기적으로 해외생산 기능강화 차원에서 국내생산능력 단계적 축소
연구개발투자	○	· 기능형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맞춰 신기능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총투자	○	· 해외생산 확대에 의해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위축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표II-47> 컴퓨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산	· 국내외 컴퓨터 수요 증가 · 고급형 제품의 보급 확산	· 수출거점으로서의 국내기반 약화
내수	· 노트북 수요의 증가 · 컴퓨터 특수(EBS 수능교육) 효과 기대 · PC가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부상	· 전체수요의 75%를 차지하는 데스크톱PC 수요증가의 둔화 · 특히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 수요의 회복이 지연 · 낮은 취업률로 젊은 계층의 구매력 저하현상이 지속
수출	· 세계 IT경기의 빠른 회복 · 해외생산거점에 대한 수출확대	· 환율 하락세 · 기업들의 해외생산거점 강화
수입	· 외국산 노트북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 중국산 주변기기의 수입	
투자		· 해외거점에 대한 생산기능 강화
종합평가	· 내수 및 세계 비즈니스 시장의 회복기 전환으로 국내외 수요 증가 기대 · 수출이 산업성장을 견인	

□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예상

- 해외거점의 생산기능이 강화되면서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는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대신 국내는 연구개발 기능을 점차 강화할 것임.
 - 해외생산 전략에 맞춰 컴퓨터산업에서는 생산과 연구개발을 이원화하는 글로벌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축소되고 연구개발투자가 대신 집중되면서 컴퓨터산업의 전체적인 투자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은 컴퓨터산업에 별영향 주지 않을 전망

- 기본적으로 육성대상인 IT산업군에 해당하는 컴퓨터산업은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무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는 일단 연착륙이 예상되지만 실사 경착륙이 되는 경우에도 수출이나 중국에 대한 투자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 중국에 대한 수출은 수출용으로 투입되는 부품 및 주변기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국 내수의 위축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상승도 컴퓨터산업에 영향 없을 전망

- 기본적으로 컴퓨터 제품은 석유 소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또한 각 부품들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

〈표II-48〉 주요 여건변화가 컴퓨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 인
중국의 긴축정책	수출	○	· 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부분품 수출 비중이 커서 영향 미미 · 단기적으로 영향 없음
	수입	○	· 단기적으로 영향 없음
	해외투자	○	· 중국의 육성산업이므로 단기적으로 영향 없음
유가상승	수출	○	· 원가구조에서 유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 영향 없음
	내수	○	-
	수입	○	-
	생산비용	△	· 통상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수출	○	· 핵심 투입재(메모리, CPU, OS)의 세계적 독과점구조로 인해 영향 없음
	생산비용	○	· 핵심 투입재(메모리, CPU, OS)의 세계적 독과점구조로 인해 영향 없음
환율	수출	▽	· 경쟁심화로 가격전가 요인이 거의 없을 전망
	수입	△	· 경쟁심화로 가격전가 요인이 거의 없을 전망
	생산비용	○	· 설비투자가 예상되지 않으므로 영향 없음

주 : 1)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2) () 안에는 주요원자재 명기.

가 변동요인이 제품가격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임.

- 컴퓨터산업은 핵심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CPU, 운영체제(OS)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제품은 세계적인 독과점 구조이므로 특정국가, 특정기업에만 해당하는 영향은 없을 것임.

□ 환율 상승 요인도 별 영향 주지 않을 전망

- 환율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컴퓨터산업은 경쟁심화로 가격전가 요인이 거의 없을 것임.
- 중국 의존도가 커서 위안화 가치가 변동된다면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상승이나 하락이 예상되지 않음.

3) 컴퓨터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경기회복 지연으로 하반기 내수증가율 제로 예상

- 경기침체의 영향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증가는 전년 동기의 마이너스 증가에 비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년동기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에 머문 반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기업 수준에서 체감하는 구매력위축 현상이 실제로 해소될 것이라고 판

단할 수는 없음.

- 수요는 여전히 위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지만 조금씩 회복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몇 가지 내수 촉진요인이 기대됨.
 - 대학 수능교육과 관련한 컴퓨터 특수는 하반기의 내수를 주도할 가장 매력적인 요인임.
 - 컴퓨터가 단순한 업무용, 개인용 차원의 기능에서 한차원 발전하여 홈 엔터테인먼트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어서 이를 활용하려는 신규수요도 어느 정도 발생할 전망이다.
 - 이동성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가격 하락, 성능향상이 충족되면서 노트북에 대한 수요도 상반기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내수를 정체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도 여전히 상존할 것임.
 - Y2K 밀레니엄 특수 이후 전통적인 컴퓨터 교체주기가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반기 초반까지는 교체수요 발생이 계속 부진할 것임.
 - 전체시장의 75%를 점하는 데스크톱 PC의 수요부진 때문에 노트북 수요증가가 대폭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전체 산업의 내수부진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 세계 기업수요 호전에 힘입어 수출은 약 19% 증가 전망

- 선진국 중심으로 컴퓨터 소비의 중심축인 비즈니스 수요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수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한국기업의 해외생산거점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하반기에도 계속 호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전년 하반기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 금년 하반기의 수출증가율 수치는 낮게 나타나겠지만,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반기기준 1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 수출경쟁력을 갖춘 모니터와 내장카드의 수출이 산업 전체의 수출증대를 주도할 것이며 보조기억장치의 수출도 활발할 전망이다.

□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6% 증가

- 생산은 수출호조라는 호재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지 못함.
 - 하반기의 생산은 전년동기의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내수 회복세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대기업의 자체생산 기반이 해외로 이전한 상태에서 생산 능력은 근본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울 것임.
- 생산에서는 대기업관련 업체와 일반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못할 것임.

-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은 중국산 저가제품에 밀려 생산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 극복하지 못한다면 생산위축이 불가피할 것임.

□ 수입은 20% 증가

- 주요수입국은 대부분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는 생산국(중국, 대만, 싱가포르)이거나 노트북 생산국(일본)이어서 수출이 확대될수록 기본적인 수입수요도 증가할 것임.
- 외산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트북의 수입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고급품은 외국제품에 의존하는 주기판, 그래픽카드, HDD, CD롬 등의 수입도 상반기의 증가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표II-49> 컴퓨터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28,884 (-)	13,329 (-4.3)	15,710 (5.2)	29,039 (0.5)	14,429 (8.3)	16,661 (6.1)	31,090 (7.1)
수 입	5,682 (-4.7)	2,768 (-3.3)	2,904 (3.0)	5,672 (-0.2)	3,169 (14.5)	3,252 (12.0)	6,421 (13.2)
내 수	21,625 (-)	9,629 (-7.4)	9,805 (-12.8)	19,434 (-10.1)	8,188 (-15.0)	9,790 (-0.2)	17,978 (-7.5)
수 출	12,941 (15.1)	6,470 (0.5)	8,507 (30.8)	14,977 (15.7)	9,410 (45.4)	10,123 (19.0)	19,533 (30.4)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2) 생산·내수는 원, 수출·수입은 달러 기준임.

(3) 정책건의

- 해외생산 확대에 대비하는 국내생산기반 지원
 - 해외생산이 계속 확대될 경우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핵심부품류 생산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EMS 기업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며, 특히 대량생산능력을 갖추도록 촉진함.
-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조달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입지를 확보해주어야 산업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10. 반도체산업

(1) 상반기 동향

- 경기회복 본격 시작
 - 반도체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의 확실한 회복에 따른 가격상승이 이어져야 함.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시장은 본격적으로 수요증가를 견인할만한 확실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여

시장을 이끌고 있음.

- 상반기 들어 반도체의 가격상승과 함께 PC, USB메모리스틱,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폰 등 반도체 응용산업의 회복으로 반도체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인 수요를 보면 D램의 수요처인 PC가 회복되고 있고, 모바일제품의 활황으로 플래시메모리, D램 등의 메모리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 비메모리의 경우 휴대폰, LCD모니터, 디지털가전, 디지털 카메라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반도체의 유효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반도체 수출의 경우 상반기에 메모리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일관생산제품이 호조를 보였고, 비메모리반도체를 수출하는 조립가공무역도 크게 늘어났음.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D램, S램, 플래시메모리 등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본격 회복되었고,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수탁무역도 크게 증가하였음.
- 수출 대상국도 미국중심에서 중국 등으로 다변화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제소로 제3국의 시장개척이 절실했던 원인도 있음.
- 반면, 국내 수요는 반도체 응용제품인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이 반도체 내수를 견인해 오고 있음.

이러한 응용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비메모리이나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D램 가격 상승은 생산차질에서 비롯

- 금년 상반기에 이례적으로 D램 가격이 상당기간 상승하였는데, 이는 생산업계의 공급 차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인피니언과 마이크론이 제조공정을 0.15~0.13 μm 에서 0.11 μm 으로 업그레이드 전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 수율을 정상적으로 올리지 못하여 물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인피니언,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 D램업체들이 플래시메모리 분야에 진입하면서 기존 D램 라인을 플래시메모리 라인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D램의 공급 차질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D램공급의 능력 개선은 하반기에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공급애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PC업계의 재고확보를 위한 가수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고, 필연적으로 가격상승을 초래하였음.

(2) 하반기 전망

1) 반도체산업의 여건변화

□ 성장조건의 급격한 변화

-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성장조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우선, 반도체시장을 견인하는 주력시스템이 기존의 PC위주에서 모바일제품과 디지털가전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반도체도 D램 위주에서 SoC(복합칩)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음.
- 기술개발은 선풍의 미세화를 촉진하여 설계 및 공정기술이 $0.13\mu\text{m} \rightarrow 90\text{nm}$ 로 가속화되고, 웨이퍼 규격도 $200\text{mm} \rightarrow 300\text{mm}$ 로 진화되고 있음.
- 메모리사업은 거대화되어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고, 메모리 제품도 플래시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메모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비메모리업계는 부가가치 체인별 분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기존의 일관생산체제에서 코어IP설계전문(chipless) 및 칩설계전문(fabless) 비즈니스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고속성장하고 있고, 또한 이들을 뒷받침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반도체 경쟁국들은 더욱 신속한 성장기반을 재정비하게 될 것임. 이미 미국은 플래시메모리를 재무장하고, 비메모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본

은 메모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시스템 IC사업 통합 및 연대를 강화하여 대규모의 정부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유럽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대만은 끈질긴 D램사업의 도전과 함께 중국 본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생산기지화를 확립하고 국내외업체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비메모리분야의 수입 증대, 메모리 수출 급증

- 국내 시장은 반도체 어플리케이션분야인 디지털카메라, MP3, 카메라폰, PDP-TV, LCD-TV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들에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비메모리임.
- 이들 완제품은 내수와 수출 모두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여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의 수입이 작년에 이어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D램, 플래시메모리, S램 등 메모리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통상마찰 회피로 해외 생산확대

-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혁신의 특성상 제품기술(product technology)과 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하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에

<표II-50> 반도체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와 원인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생산과 국내 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		
해외생산 증가원인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닉스의 미국 현지생산 증가는 상계관세 회피 차원 · 중국의 현지생산은 조립부문이며, 저렴한 인건비와 증치세 경감 차원 ·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국내업체가 세계적으로 기술 및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前공정분야는 국내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공동화의 우려 사항은 절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력하여 왔음. 그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96년을 전후해서 통상압력 회피를 위해 미국에 D램공장을 각각 신설하였음.

- 작년부터 하이닉스는 미국 수출의 D램에 대한 높은 상계관세가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을 대폭 늘려가고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조립가공분야를 중국의 현지공장에 대규모로 이전하여 노동력의 원가절감과 현지 부가가치세의 경감을 꾀하고 있음.
-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국내업체가 세계적으로 기술 및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前공정분야는 국내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공동화의 우려 사항은 절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12인치 라인 투자 본격화

-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행투자 시점을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 금년 5월부터 수도권 투자확대의 규제에서 풀려나 12인치 라인을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 이를 통해 D램과 플래시메모리의 대규모 설비능력이 갖춰질 것으로 보임.
-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설비증설과 병행하여 기존설비 효율 증대에 집중하고 있음.
 - 하이닉스의 경우 공정기술혁신에 따라 기존설비에서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을 통한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표Ⅱ-51〉 반도체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 예상	이 유
설비투자	▲ (대폭 증가)	12인치 라인 증설, 플래시메모리 라인 투자확대
연구개발투자	△ (다소 증가)	나노공정기술, SoC칩 개발 등으로 투자 확대
총투자	▲ (대폭 증가)	설비의 선행투자, R&D 투자확대로 대폭 증가예상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표Ⅱ-52〉 반도체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론, 인피니언 등 일부 D램업계의 라인 업그레이드(0.13 → 0.11μm)하면서 생산 차질 · 인피니언, 마이크론 등은 일부 D램라인을 플래시메모리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생산 차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닉스의 일부 D램라인을 플래시메모리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생산 차질
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3, 휴대폰, 디지털가전 등 반도체 응용분야의 국내 수요급증으로 지속적 증가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등 일부 완제품의 중국 생산 확대로 약간의 반도체내수 경감효과 예상 · 디지털지상파방송 지연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디지털가전,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기존 반도체 응용제품 수요 급증 · USB메모리스틱, 자동차 등 신규수요 확대 · 플래시메모리의 세계적 수요 급증으로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EU의 상계관세부과로 수출위축 예상 · 일본업계의 구조조정 완료로 본격 생산 개시하여 시장경쟁 심화 예상 · 비IT기업들의 정보화 투자 위축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비메모리분야의 국내 수요급증으로 지속적 증가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컴퓨터 등의 중국 생산 확대로 비메모리분야의 수입 미약한 경감 효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로 12인치 라인 투자 확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닉스의 12인치 라인 투자 지연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가져올 확실한 수요처의 등장으로 반도체 경기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전망 · D램의 수요급증과 일부공급 차질로 호경기 예상 · 메모리의 급격한 수출신장이 기대되어 4년만에 무역흑자 예상 	

자료 : 산업연구원(KIET).

늘림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12인치 라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면도 있지만 자체적인 기술혁신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음.

2) 주요 여건변화의 영향분석

□ 중국의 긴축정책은 반도체산업에 큰 영향 없을 듯

-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수출은 중국이 우리 제품과 경쟁될 만한 반도체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수출은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될 것임.
- 중국으로의 주요품목은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이며, 그 중에서 D램의 경우 컴퓨터의 고급화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고, 플래시메모리는 응용분야(디지털카메라, 휴대폰, MP3, 휴대용 메모리스틱 등) 확대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자구회생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음.
- 긴축정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됨. 다만, 현재 중국정부가 경기진정 정책을 시멘트, 철강 등 전통산업분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고, IT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분야는 오

히려 강화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도체 투자는 영향 없을 수도 있음.

<표II-53> 주요 여건변화가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요인별	부문별	영향	원 인
중국의 긴축정책	수 출	○	중국은 우리와 경쟁할 만한 반도체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내 반도체 수요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수 입	○	중국에서 수입은 대부분 한국 현지업체의 조립부문 역수입이므로 영향 미미
	해외투자	○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정부 장려산업으로 신규투자 감소의 가능성은 희박
유가상승	수 출	○	반도체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아님
	내 수	○	상 동
	수 입	○	상 동
	생산비용	○	상 동
원자재가격상승 (실리콘웨이퍼)	수 출	○	원자재 상승 징조 거의 없음
	생산비용	○	상 동
환 율	수 출	○	반도체 가격에 환율변동을 거의 전가 안함
	수 입	○	상 동
	생산비용	○	장치산업이므로 초기 투자시 영향 있을 듯

주 : 1)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2) () 안에는 주요원자재 명기.

3) 반도체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세계경기 호황으로 수출 지속 증가 전망

○ 세계경기 회복과 국내 메모리제품의 경쟁력 수준향상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약 21%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단순한 산술적인 반등비율이며,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

○ 반도체 경기가 완전한 성장세 기조에 들어감으로써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도 안정화되어 일단의 침착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임. 미국의 IT산업 수요도 약간씩 회복으로 향하

〈표Ⅱ-54〉 반도체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25,908 (-)	15,502 (21.3)	16,514 (25.8)	32,016 (23.6)	19,660 (26.8)	21,050 (27.5)	40,710 (27.2)
수 입	17,476 (12.4)	9,955 (28.5)	11,373 (16.9)	21,328 (22.0)	12,210 (22.7)	13,210 (16.2)	25,420 (19.2)
내 수	26,753 (-)	17,194 (32.6)	16,615 (18.8)	33,809 (26.4)	19,220 (11.8)	20,580 (23.9)	39,800 (17.7)
수 출	16,631 (16.6)	8,263 (6.5)	11,272 (27.1)	19,535 (17.5)	12,650 (53.1)	13,680 (21.4)	26,330 (34.8)

자료 : EIAK(생산), KOTIS(수출입), KIET(전망)

주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고,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전자제품의 생산 증가에 따라 반도체수입도 계속 증가

- 자동차, USB메모리스틱, 의료전자기기 등에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등장하고, 디지털가전 등 기존제품의 생산증가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비메모리의 반도체 수입이 증가할 것임.
- 하반기 반도체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약 16%에 이를 전망이며,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비메모리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급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주요 수입선은 정보통신용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인텔, CDMA칩의 퀄컴, 마이크로컨트롤러의 TI 등 주로 미국업체이고, 디지털가전용의 반도체는 일본업체들임.

(3) 정책건의

□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 이미 확보한 메모리부문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공동참여의 첨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함.
- 메모리반도체 제조는 이제 나노기술로 접근해야 하는데, 관련 원천기반기술이 취약하여 세계 메모리산업을 선도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신기술 개발의 원천이 되는

선폭, 표면처리, 불순물처리 등 정밀측정 및 평가기술, 환경 친화성 기술 등 원천기술을 산·학·연이 연계 개발토록 하여 선행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임.

□ 비메모리부문 육성 및 기술인프라 구축

- 비메모리분야는 설계기술이 관건이므로 설계기술인력 양성 부문에 지금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더욱 확충해야 할 것임. 특히 질적으로는 자동차나 휴대폰 등 시스템을 설계하는 인력이 반도체를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업종간, 학제간 교차교육을 통해 반도체 설계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것임.
- 또한 비IT분야의 대형완제품업체,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나 기계설비회사 등이 자사내의 연구소에 반도체설계팀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조세정책 등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반도체혁신협력사업을 외국업체에도 개방하여 미래의 시장개척을 마련해야 함.

□ 차세대반도체 집중개발 추진

- 자동차용 반도체, 의료전자용 반도체, 반도체조명 등이 앞으로 고성장 유망시장으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 성장엔진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임. 또한 에너지, 건설·교통, 의료·환경 분야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텔레메트릭스의 산업화를 통한 반도체 신시장 창출도 적극 추진해야 함.

- 차세대 SoC개발, 나노공정개발, 차세대메모리개발 등 성장 동력인 차세대 반도체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반도체장비·재료의 기술개발 적극 추진
 - 국내 반도체 장비·재료업체는 대부분 연륜이 짧고, 중소벤처의 소규모기업인 관계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간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대형화 기업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외국업체의 국내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내 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Issue Paper 2004-161

2004년 하반기 경제전망 -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

發行處: 産業研究院(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清涼里洞 206-9)

發行人: 오 상 봉

登錄: 1983年 7月 7日 第6-0001號/電話: 3299-3114

印刷: 2004年 6月 26日/發行: 2004年 6月 29日

印刷處: 邦 文 社

ISBN 89-90789-52-4 93320

購讀問議: 편집팀(3299-3151)
內容의 無斷轉載 및 譯載를 禁함.
普及價 10,000원